현대불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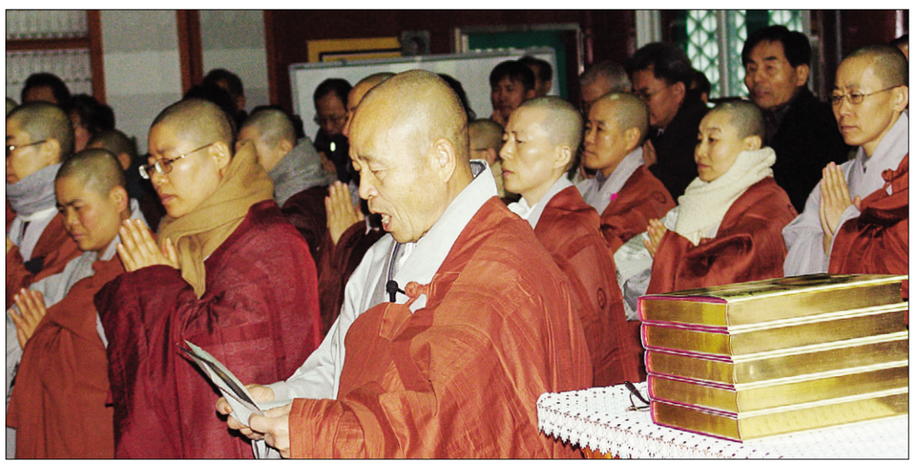
제 765 호 구독신청 02)2004-8200 Buddhanews.com 불기 2554년 1월 6일(음력 11월 22일) 수요일(주간)

불자님들의 소중한 후원은 부처님의 말씀을 널리 홍포하는 밑거름으로 사용 될 것입니다.
현대불교신문사 ARS 포교후원
060-700-1080

신상품 LED인등 LED전구
찬덕연등 031)792-6288 / 794-4055

화엄의 가르침 화엄세상 뒤덮다

탄허 스님 현토본 '화엄경' 간행… 세계 도서관 등 5000권 법보시


구랍 28일 의정부 회룡사 극락보전에서 <대방광불화엄경> 점안의식을 봉행하는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

탄허 스님이 토를 단(懸吐) <대방광불화엄경>(전5권, 교림출판사 刊)이 해외 50여 개국 280개 대학도서관과 국내 600여 등록 도서관 등 880여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법보시된다. 세계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대규모 경전 법보시는 이번이 처음이다.

의정부시 회룡사(주지 성견)는 구랍 28일 회룡사 극락보전에서 화엄학연구원장 각성 스님(부산 화엄사 회주)을 법주로 사부대중 200여 명이 동참한 가운데 <대방광불화엄경> 점안법회를 봉행했다.

이날 법회에서 각성 스님은 법어를 통해 "처음 발심할 적에 문득 정각을 이루는 온갖 신묘함을 간직하고 말과 생각을 초월해 벗어났기에 <대부사의경> <부사의해탈경>이라고 칭해지는 <대방광불화엄경>이야말로 가장 본성에 부합되는 지극한 법문이고 일승(一乘)의 가장 중요한 궤도"라고 말했다.

이어 각성 스님은 "성견 스님이 화엄경 5000권(1000질)을 세계 각국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고려 문종의 셋째 아들인 대각 국사가 중국에 우리 경전을 기증한 이후 1000여 년만에 일어난 보기 드문 발심 공양"이라며 "이 인연으로 더욱 가행정진하여 <유마경>에 나오는 월개(月蓋) 비구의 법공양과 같이 한다면 비고 밝은 참마음(虛明眞心)을 되찾게 될 것"이라고 격려했다.

약 1억원의 재원이 든 이번 화엄경 법보시는 회룡사 주지 성견 스님이 2004년 입적한 은사 혜주(慧珠) 스님의 은혜를 갚기 위한 원력에서 비롯됐다. 혜주 스님은 80세의 고령임에도 회룡사 회주로서 북한산 관통도로 반대운동을 펼친 스님이다.

법회에서 대중의 찬탄을 받은 성견 스님은 '법공양 회향 게송'을 통해 "화엄경 인경(印經)에서부터 독송, 수지, 유통하는 모든 이들이 이 공덕으로 숙업(宿業)과 현업(現業)이 모두 소멸하고 복과 지혜 모두 증장하고, 보리심(菩提心) 모두 발하며 현세의 몸 모두 끝나게 되면 함께 극락세계에 나서 법계의 모든 중생이 함께 무상도(無上道) 이루기를 발원한다"고 밝혔다.

외국인들도 읽기 쉽게 3년간의 한문 교정 및 편집과정을 통해 간행된 80권본 <대방광불화엄경>은 오·탈자 없이 금장(金裝) 양장본으로 제작됐다. 각성 스님이 한문 및 한글로 서문을 쓴 이 경은 총 3000쪽에 달하는 분량으로, 1질당 30만원(각권 6만원)에 판매된다.

김성우 기자 buddhapia5@hanmail.net

수술 마친 다보탑 "화사해요"

국립문화재연구소 다보탑 수리 완료 보고회 개최








위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보수된 다보탑 상륜부. 다보탑 전경. 다보탑 부재 표면을 세척하는 모습. 균열된 부재를 충전제를 이용해 보수하는 모습.
사진제공=문화재청

국보 제20호 다보탑이 대수술을 마치고, 1년간 감춰졌던 다보여래의 자태를 드러냈다.

보수공사 기간 동안 다보탑 곳곳에 땜질됐던 콘크리트가 제거됐고, 빗물이 빠지지 않아 검버섯처럼 피어난 이끼 등도 모두 걷어냈다. 탑 표면을 비롯해 해체된 석재의 구석구석까지 깔끔히 세척해 신라 경덕왕 10년(751) 축조 당시의 상태를 회복했다.

문화재청 국립문화재연구소(소장 김봉건)는 구랍 29일 경주 불국사 현장에서 다보탑 수리 완료 보고회를 개최했다.

수리 전 다보탑은 1925년 전면해체 보수와 1972년 2층 하부 사각 난간과 상륜부 등 부분 수리를 거치면서도 해결하지 못한 풍화와 부식으로 심각한 상태였다. 사각 및 팔각 난간, 상륜부 등 탑 곳곳에서 석재의 풍화로 인한 균열과 박리가 발견됐다. 콘크리트로 배수로가 막혀 탑 내부로 흘러들어간 빗물은 시커멓게 썩어 석재의 색깔마저 변화시켰다. 특히 2층 난간부의 심한 훼손은 다보탑의 안전까지 위협할 정도였다.

1500년 이상 버텨온 다보탑의 해체까지는 많은 준비가 따랐다. 3D 스캐닝으로 0.001mm까지 측정했고, 풍화도면을 작성해 원형복원을 위한 자료 수집에 만전을 기했다. 원형복원을 위한 철저한 준비 끝에야 부재는 하나 둘씩 탑에서 분리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가 다보탑 수리를 위해 분리한 부재만 78개이다. 다보탑의 사각 난간에서 41개, 팔각 난간에서 24개, 상륜부에서 13개의 부재들이 숙련된 기술자와 연구자의 손에 맡겨졌다.

해체를 하고 보니 단순히 오랜 시간 비바람에 노출돼 탑이 낡아간 것만은 아니었다. 결정적인 원인은 탑 1층의 지붕돌과 2층의 몸체 사이에 빙 둘러 채워진 폭 20㎝, 두께 25㎝의 콘크리트 덩어리 때문이었다.

국립문화재연구소 경주석탑보수정비사업단 배병선 단장은 "2층의 빗물이 빠지도록 설계된 배수로를 일제가 모르고 콘크리트로 채워 막아놓은 것 같다"고 말했다.

배수구가 막히니 빗물이 고여 이끼가 끼고 석재 표면이 양파 껍질처럼 벗겨졌던 것. 급속한 부식의 원인이 밝혀지지 않았던 탑은 그동안 물을 빼기 위해 난간 아래쪽이 뚫리는 등 애꿎게 몸살만 앓아왔다.

해체된 부재 등은 초음파검사를 거쳐 내구성을 시험했다. 그 결과 박리와 균열이 심한 8개가 새 것으로 교체됐다. 국립문화재연구소 측은 새 부재에는 기존 부재와 구별을 위해 표식을 넣었다. 그동안 보수를 위해 탑 곳곳에 덕지덕지 칠해진 콘크리트와 시멘트 모르타르는 정과 미세 드릴을 이용해 정교하고 깔끔하게 걷어냈다. 손상을 막기 위해 건식세척과 저압와류세척 기법을 통해 부재를 씻어냈다. 세척 후에는 자외선을 쏘아 소독했고, 금이 가거나 껍질이 벗겨진 부분은 접합하고 강화처리 했다.

배 단장은 "탑신이 수직에서 2도 정도 기울어진 상태지만 안전에 지장을 줄 정도는 아니어서 탑의 1·2층은 건드리지 않고 상륜부와 사각 난간, 팔각 난간 등 훼손이 심한 부분만 해체했다"고 설명했다.

조동섭 기자

10·27법난특별법 개정안 통과

명예회복·피해조사활동 '탄력'

한시법인 10·27법난특별법의 유효기간이 3년 연장 되도록 한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돼 법난 명예회복과 피해조사활동이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구랍 29일 제285회 국회(임시회) 본회의에서 '10·27법난 피해자의 명예회복 등에 관한 법률(이하 10·27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통과됐다.

이번 개정안 통과로 조계종(총무원장 자승)과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회(위원장 영담)는 역사기념관 건립과 피해 스님에 대한 명예회복 작업에 박차를 가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나라당 김무성 의원(한나라당, 국방위)이 대표 발의하고 41인의 국회의원이 서명한 '10·27특별법' 일부 개정안에 따르면 △부칙에 명시된 법의 유효기간이 2010년 6월 30일에서 2013년 6월 30일까지로 3년 연장됐으며 △제4조(피해자 신고 및 심사)에 '시행 후 1년 이내에 피해자 등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심사를 완료'해야 하는 규정이 '2012년 6월 30일'까지로 연장됐다.

10·27법난피해자명예회복심의위원장 영담 스님(총무원 총무부장)은 "기존의 3년이라는 시간은 명예회복사업이 제대로 진행되기에는 부족했다"며 "법 개정으로 기한이 늘어난 만큼, 피해 스님들은 물론 불교계 차원의 명예회복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이번주 20면 발행 ▶8 인터뷰-담교 스님 ▶10 선지식-지해 스님

社告

현대불교신문 부산지사장을 모십니다

현대불교신문과 함께 부산지역 포교에 앞장설 참신한 지사장을 모십니다.

제출서류 및 기한 :
- 구비서류: 이력서(사진부착), 자기소개서, 포교활동 계획서, 추천서(스님 및 단체장), 주민등록 등본 각 1통 및 사진 2매
- 제출기한: 2010년 1월 30일(토)
- 제출방법: 우편(30일까지 도착분 유효) 또는 본사 방문 접수

활동분야 :
지역내 구독확장, 광고수주 및 수익사업, 기사제보 및 취재 지원

제출처 :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고객지원팀
전화: (02)2004-8200 팩스: (02)737-0697



죽비와 목탁



이나은 기자
bohyung@buddhapia.com

기부에 인색한 대기업들

경인년 새해부터 닥친 한파에 전국이 꽁꽁 얼어붙었다.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혹독한 겨울나기가 될 수 있다. 그래서인지 해마다 이맘때면 불우이웃돕기 행사가 활발히 펼쳐져 왔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따르면 2008년 목표액 보다 11억원 많은 돈이 모여 희망 모금액이 처음으로 2000억 원을 돌파했다. 현재까지는 최대액수. 미국발 금융위기로 경기한파가 몰아친 때의 모금액이 사상 최대액수라니 놀랍지 않은가?

2009년 한국 경제는 세계 어느 나라보다 빠르게 금융위기의 악몽에서 벗어났다. 연초 마이너스 성장이라는 비관적인 전망에서 시작된 한국 경제는 2·4분기와 3·4분기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이 각각 2.6%, 3.2%를 기록하는 등 가파른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정부는 내년 5% 내외의 성장률을 예상하며 다양한 방안을 모색하고 있기도 하다. 한국 경제에 대한 긍정적 전망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때 아이러니하게도 기부금 형편은 안 좋아지고 있다고 한다.

2008년보다 경제사정이 좋아진 지난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는 12월 1~22일 927억원을 모금했다. 모두가 경제위기로 어려워하던 2008년의 1006억원보다 79억원 적은 금액이었다.

이 같은 결과에는 대기업들의 불우이웃돕기나 사내외 복지기금 등으로 지출한 기부금이 작년보다 급감한 것이 크게 작용했다.

재벌닷컴이 매출 상위 100대 기업의 분기보고서를 조사한 결과 2009년 9월 까지 지출한 기부금 총액은 4439억원으로 2008년 같은 기간의 7242억원보다 38.7% 감소 금액으로는 2803억원 줄어들었다. 같은 기간 조사대상 대기업의 순이익은 26조 166억원에서 26조 9652억원으로 평균 3.6% 증가했다. 이런 상황에서 매출 상위 100대 기업 가운데 작년보다 기부금이 늘어난 곳은 38개사에 그쳤고, 기부금을 줄인 곳은 62개사에 달해 상당수 대기업이 기부에 인색했다는 결과다.

불가에는 '빈자일등(貧者一燈)'의 우화가 전한다. 물질의 다과(多寡)보다는 그 마음이 더 소중하다는 뜻이다. 하지만 갖고 있으면서도 어려운 이웃을 외면하는 것은 자비의 등 하나, 지혜의 촛불마저 켜지 않는 것과 비교되는 일 아닐까? 겨울은 가고 반드시 봄은 온다. 2010년에는 기업과 개인 모두 365일을 하루 같이 여여하게 이웃을 돌아보는 습관을 길러보면 어떨까?

현대불교로 최상의 공양 法보시를…

부처님께서는 경전을 바르게 설하고 설명하고 고찰하며 바른 법을 온전히 지키는 법공양(法供養)이 가장 수승한 공양이라 하셨습니다. 한 장의 '현대불교'를 이웃과 어려운 이들에게 법보시하는 것은 다함께 깨닫는 세상을 만드는 형상 없는 불사(佛事)가 될 것입니다.

▶ 법보시 대상
군법당, 병원, 교도소, 각급 학교 및 공공 도서관, 관공서

▶ 법보시 후원 안내
법보시는 1구좌 1000원이상
월 구독료는 5000원
계좌 : 국민은행 038-25-0008-365(예금주: 현대불교신문사)

문의 (02)2004-8200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

태고종, 기관장·실장직 인사 단행

태고종(총무원장 인곡)은 12월 28일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을 비롯한 전문종무기관장 및 총무원 실장직 인사를 단행했다.

전통문화전승관 2층 회의실에서 열린 이날 임명식에서는 중앙선관위원장에 월운 스님, 중앙교육원장에 보경 스님, 중앙포교원장에 백운 스님, 종무조정실장에 청광 스님이 각각 임명됐다.

총무원장 인공 스님은 임명식에서 "이번 인선은 개인 실무 역량과 애종심 등을 고려했다"고 밝히고, 경인년 새해를 맞이해 종도단합과 발전을 위해 노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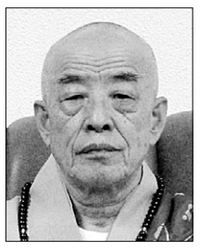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월운 스님은 화봉 스님을 은사로 득도, 관음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으며, 묵담 스님을 계사로 봉원사에서 대승계를 수지했다.

대원불교대 졸업 후 동국대 불교대학원 수료했다. 한국불교신문사 사장, 제9대 중앙종회의원,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상임위원, 중앙사정원장 등을 역임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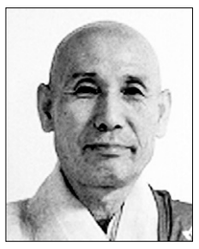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은 인공 스님을 은사로 득도, 법륜사에서 사미계를 수지했다. 정암 스님을 계사로 법륜사에서 대승계를 수지한 이후 법륜사 사집과, 선암사불교전문교육원 사교과, 대교과를 졸업했다.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수료 후 법륜사 불교전문강원 강사, 총무원 교무부장, 경기동부교구 종무원장, 중앙선거관리위원장, 정수원 부원장, 법륜사 주지, 보덕사 비구니강원장, 중앙승가전문강원장, 부종결사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했다. 현재 법륜승가대학장을 맡고 있다.

중앙포교원장 백운 스님은 동산 스님을 은사로 득도, 수덕사에서 사미계 수지했다. 혜암 스님을 계사로 수덕사에서 대승계 수지했으며 통도사 사집과, 동화사 사교·대교과 수료했다. 이후 동방불교대학을 졸업,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과를 수료했다. 태고종 연수부장, 춘천불교사암연합회장, 석왕사 주지, 강원불교대학장, 삼장불학원장, 총무원 사회·교무·기획부장, 교무관리실장, 종무조정실장, 종정예경실장, 제 8,10대 중앙종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현재 강원교구 종무원장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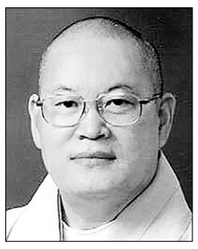
종무조정실장 청광 스님은 혜초 스님을 은사로 득도, 사미계를 수지했다. 덕암 스님을 계사로 구족계를 수지한 스님은 영남대학교 졸업, 중앙대학교 대학원 행정학 석사, 동국대학교 불교대학원 사회복지학 문학석사, 동방대학원대학교 자연치유학 박사과정을 거쳤다. 현재 제12대 중앙종회의원, 종단제도개혁위원회 상임위원을 맡고 있다.



중앙선관위원장 월운 스님.



중앙교육원장 보경 스님.



중앙포교원장 백운 스님.

노덕현 기자 dhavala@buddhapia.com

쌍계사 법광·화엄사 우석 스님 선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서

조계종 제14대 중앙종회의원 보궐선거에서 제13교구 쌍계사 종회의원에 법광 스님, 19교구 화엄사 종회의원에 우석 스님이 각각 선출됐다.

우석 스님은 1992년 9월 8일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했으며 1996년 10월 27일 통도사에서 청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은사는 종삼 스님.

동국대 선학과 졸업한 후 한려대학원 사회복지 석사과정을 졸업했다. 향일암 총무, 동여수노인복지관 관장 역임했으며 현재 사성암 주지, 화엄사 재무국장을 맡고 있다.

이암 스님(법광 스님)은 1972년 3월 15일 범어사 석암 스님을 계사로 사미계 수지, 1975년 7월 15일 해인사 고암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 수지했다. 은사 스님은 고산 스님이다. 동명대학교 사회복지학 전공했으며 해인승가대 졸업했다. 총무원 사회국장, 제13대 중앙종회의원을 역임했으며 현재 화방복지원 이사장, 화방사 주지를 맡고 있다.

한편, 이번 보궐선거는 제33대 집행부에 입각한 영담 스님(총무부장)과 덕문 스님(호법부장)의 후임으로 각 본사는 단독 출마로 별도 투표과정 없이 당선을 확정했다.

남은 4석은 총무원장 자승 스님, 교육원장 현응 스님, 기획실장 원담 스님이 있었던 직능직 3석과 범어사 1석으로 직능직 1월 8일 열리며 법어사 보궐선거는 1월 11일 진행될 예정이다.

노덕현 기자

"용산참사 해결 환영"

조계종 논평

불교계를 비롯해 종교계가 사태해결을 위해 앞장선 용산참사 문제가 현안 발생 345일 만에 극적으로 협상이 타결됐다.

서울시의 "용산4구역 철거 현장 화재 참사에 대한 협상이 타결됐다"는 발표와 관련, 조계종(총무원장 자승)은 구랍 30일 용산참사 원만해결을 환영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조계종 대변인 원담 스님(총무원 기획실장)은 논평을 통해 "총무원장 자승 스님은 취임 첫 행보로 참사현장을 방문해 원만한 해결을 발원한 바 있다"며 "우리 종단은 앞으로도 소통과 화합의 정신으로 국민의 상생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선주 기자

송년법회서 6000만원 보시

신흥사, 어려운 이웃에 자비의 손길

조계종 제3교구본사 속초 신흥사(주지 우송)가 연말 속초지역 소년소녀 가장 등 어려운 이웃에게 다시금 자비의 손길을 펼쳐 눈길을 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이 박기현 속초시노인복지회관 부장에게 3000만원 상당의 물품 기탁증서를 전달하고 있다.

신흥사는 구랍 28일 속초 마레몬스 호텔에서 지역 신행단체 및 자원봉사·지원회 등이 참석한 '자비나눔 송년 대법회'를 봉행하고 소년소녀 가장 등에게 6000만원 상당의 쌀과 월동비, 부식 등을 전달했다. 이날 신흥사는 소년소녀 가장 100명에게 쌀 30kg과 부식, 생활비를, 기초생활수급대상자 등 빈곤 가정 400가구에는 쌀 30kg과 부식, 생활비를 각각 전달했다. 이번 자비나눔 대법회를 통해 전달된 성금과 쌀은 신흥사 교구 본말사 신도들을 비롯해 자원봉사자, 속초시민들이 자발적으로 동참한 바자회에서 모금된 것으로 총 6000여 만원 상당이다.

신흥사는 지난 6일 우송 스님의 주지 취임식을 지역 이웃을 돕는 자비나눔 행사로 봉행했으며, 지난 9월에도 추석을 맞아 자비나눔 대법회를 열고 독거노인 등에게 5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들을 전달한 바 있다.

신흥사 주지 우송 스님은 이날 법어를 통해 "이웃의 어려움을 보면 기꺼이 찾아가 도와주는 불청지우(不請之友: 청하지 않았는데도 찾아와 벗이 되어 주는 친구)가 되자"며 "경인년 새해에도 나와 이웃이 하나 되는 동체대비의 해가 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자비나눔 대법회에는 주지 우송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3교구 말사 주지스님 등 지역 스님들, 자원봉사자, 복지법인 직원, 후원자, 채용생 속초시장과 최흥집 전 강원도 정무부지사 등 사부대중 2000여 명이 운집했다.

노덕현 기자

9개 기관에 선재의 선물 400개

아름다운동행 구랍 29일 전달식



배상문 프로골퍼가 선물을 전달하고 있다.

아름다운동행(이사장 자승)의 2009년 하반기 자비나눔사업인 '선재의 선물 보내기' 캠페인을 회향하는 선물 전달식이 구랍 29일 조계종 총무원 1층 로비에서 진행됐다.

이날 마련한 '선재의 선물'은 송암보육원, 선재동자원, 혜명보육원, 세립주택모자원, 마야원, 달마학교, 상계동공부방, 선혜방과후교실, 월곡청소년공부방 등 9개 기관에 총 400개의 박스가 전달됐다.

'선재의 선물'에는 화계사, 동화사, 전등사, 흥국사, 교계언론기자 등 50여 단체와 아름다운동행 홍보대사 배상문(프로골퍼), 한명로씨를 비롯한 전국각지 100여 명이 동참해 약 5241만원을 모았다. 선물은 기부자들의 마음과 함께 전국 2000여 명(1억원 상당)의 아이들에게 전달됐다.

박선주 기자

자비나눔은행 쌀 나눠

직지사복지재단 구미지부 자비나눔은행(이사장 성웅)은 구랍 28일 구미시 원평동 사무실에서 연말연시 쌀 나누기 행사를 진행했다.

지난 9월 설립된 자비나눔은행은 독거노인, 차상위계층, 저소득계층, 농아인협의회, 외국인 노동자 등 124가구에 쌀 2000kg을 전달했다.

상임이사 법등 스님은 "앞으로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지역 이웃에게 지속적인 지원을 하겠다"고 약속했다. (054)444-0408

이나은 기자

문화재 인근 건설 가이드라인 마련

문화재청 문화재 619건 현상변경 허용기준 고시… 불교계 대책마련 시급

국가지정문화재 인근에서의 건설행위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사찰, 석탑 등 국가지정문화재 다수를 보유한 불교계의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구랍 28일, 중원탑평리칠층석탑 등 국보·보물 228건을 포함한 619건의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마련하고 이달 말경 관보에 고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 이어 문화재청은 "2010년까지 1600여 건의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을 모두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행위의 규제를 합리화하고 행정의 예측 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책정된 제도다.

현행 문화재보호법에 따르면 사업시행자가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에서 건설행위를 할 때는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받아야 한다.

이들 전문가 1/2 이상이 건설행위 등이 문화재에 영향이 있다고 판단하면 국가지정문화재 현상변경 등 허가 신청 절차를 밟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이 과정에서 처리기간이 오래 걸릴 뿐더러 허가 신청서 및 설계도서 작성에 따른 예산이 소요되는 등 건설행위 주체의 입장에서는 불편이 커 지속적인 민원의 대상이 돼 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이 마련되면 관계전문가 3인 이상의 문화재 영향 검토를 안 받아도 되며, 허용기준 범위 내의 건설행위는 시·군·구에서 즉시 처리가 가능하다"며 "현상변경 허용기준에 따라 개별 문화재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효율적으로 보존·관리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 말했다.

현 정부 들어 문화재 보호 정책은 완화추세에 있다. 문화재 주변 건설공사에 대한 영향검토 완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며, 지난해 공포된 '문화재 보호법 시행규칙 일부 개정령'이 그 예이다.

교계에서는 민원해소를 명분으로 MB정부의 개발 논리가 문화재 보호 정책까지 후퇴시키는 것 아니냐는 우려와 문화재 보유 사찰의 고충이 해결되게 됐다는 찬반의 목소리가 엇갈리고 있다. 그동안 화장실 하나를 짓더라도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했던 일부 사찰들은 이번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기준 마련으로 불사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하지만 다수의 문화재를 보유한 불교계가 정작 정부의 문화재 정책 입안 과정에 두 손 놓고 있는 것은 분명한 잘못이라는 지적이 많다.

실제로 문화재청의 이번 발표에 앞서, 경남 김해시와 경북 의성군, 경기 안성시, 전북 남원시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 현상변경 허용 기준 마련을 위해 공청회를 열고 의견을 수렴해 왔지만 교계에서는 아무 의견도 내지 못했다.

조계종 총무원 문화부 이분희 행정관은 "문화재 현상변경 기준 마련에 관해 아직까지는 별다른 대책이 없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관련 내용을 정리해 대응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cetana@buddhapia.com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 '국보'

문화재청 보물서 국보로 승격 지정

문화재청(청장 이건무)은 구랍 30일, 보물 제138호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鳳巖寺 智證大師 寂照塔碑)'를 국보 제315호로 승격·지정했다.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구산선문의 하나인 희양산문의 개창자 도헌 국사, 즉 지증 대사의 탑비이다. 비석의 크기나 귀부와 이수의 조각수법 등이 통일신라 말기를 대표하는 전형적인 양식과 기법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이 비의 비문은 신라의 대학자이며 문장가인 최치원이 지은 것으로도 유명하다.


국보 제315호로 승격 지정된 봉암사 지증 대사 적조탑비.

'봉암사 지증대사 적조탑비'는 최치원이 지은 대숭복사비(大崇福寺碑), 성주사낭혜화상백월보광탑비(聖住寺郎慧和尙白月葆光塔碑, 국보 제8호), 쌍계사진감선사대공탑비(雙磎寺眞鑑禪師大空塔碑, 국보 제47호)와 함께 4산 비문의 하나로 일컬어진다.

비문에는 신라의 불교사를 세 시기로 나눠 약술하고 도신(道信) – 쌍봉(雙峰) – 법랑(法朗) – 신행(愼行) – 준범(遵範) – 혜은(慧隱) – 도헌(道憲)으로 이어지는 도헌 국사의 법계(法系)를 구체적으로 기록해 신라하대 선종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로 평가받는다. 또한 이 비에는 탑비를 세운 연대와 비문을 쓰고 새긴 사람이 경주 분황사의 혜강(慧江) 스님으로 밝혀져 있어서 한국 서예사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이다.

같은 날, 문화재청은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 등 대구·경북 지역 중요 불교 문화재 16건을 보물로 지정 예고했다.

이번에 보물 지정 예고된 문화재는 '구미 대둔사 건칠아미타여래좌상'을 비롯해 '문경 대승사 금동아미타여래좌상 및 복장유물' '상주 남장사 아미타여래삼존좌상' '영주 부석사 석조석가여래좌상' '예천 용문사 목조아미타여래좌상' '구미 수다사 영산회상도' '대구 동화사 보조국사지눌진영' '문경 김룡사 영산회괘불도' '상주 남장사 감로왕도' '안동 봉정사 영산회괘불도' '안동 봉정사 아미타설법도' '예천 용문사 천불도' '안동 광흥사 동종' '초조본 불설가섭부불반영반경' '길흥축월횡간목판' '예천 명봉사 경철선원자적선사능운탑비' 등이다.

이 문화재들은 문화재청이 2007년 추진한 경북 북부지역 258개 사찰 소장 1만 390점 불교문화재에 대한 일제조사 결과 보물 지정 가치가 인정된 31건 41점에 대한 심의 후 결정됐다.

조동섭 기자

'한국선학' 등 등재지 선정

한국연구재단 2009 학술지평가 결과 발표

한국연구재단(이사장 박찬모)은 구랍 25일 2009년 학술지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평가 결과에서 한국선학회(회장 김영두)가 발행하는 학회지 <한국선학>과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원장 박인성)이 발간하는 <불교학보> 등이 등재지로, 한국불교선리연구원(원장 법진)이 펴내는 <선문화연구>가 등재후보지로 선정됐다.

또, 불교학연구회(회장 본각)의 <불교학연구>와 한국불교연구원(원장 정병조)의 '불교연구'는 각각 등재유지와 등재후보유지를, 국제불교문화사상사학회(회장 송석구)의 영문학술지 <International Journal of Buddhist Thought and Culture>는 1차 심사에서 통과됐다.

이에 따라 불교학계 등재학술지로는 이번에 선정된 <한국선학>과 <불교학보>를 비롯해, <강좌미술사>(한국불교미술사학회 刊) <보조사상>(보조사상연구원 刊) <불교학연구>(불교학연구회 刊) <한국불교학>(한국불교학회 刊) <인도철학>(인도철학회 刊) 등 7종으로 늘었다.

등재후보학술지는 새로 선정된 <선문화연구>와 <대각사상>(대각사상연구원 刊) <불교연구>(한국불교연구원 刊) <동악미술사학>(동악미술사학회 刊) 등 4종이다.

조동섭 기자

'3000만원 모교에' 東大 출신 연예인들

동국대 출신 연예인들이 구랍 23일 모교에 발전기금 3000만원을 기부했다.

이날 전달된 기부금은 연극 '햄릿' 공연의 수익금으로 올해 초 학교측에 전달한 수익을 합치면 5000여 만원을 기부한 셈이다.

동문 연예인을 대표해 전달식에 참석한 이정재 씨는 "동문들이 학교발전을 위해 한자리에 모여 참여한 합동공연인 연극 '햄릿'에서 모두 최선을 다했다"며 "이렇게 마련한 수익금이 연극학과 후배들과 학과의 발전을 위해 유용하게 쓰여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조동섭 기자**

"만화는 선의 영역과 상통"

배종훈 작가 선 카툰 8~17일 불일미술관서

"선(禪) 카툰이요? 마치 시(詩)와 같아요."

불교 만화가 배종훈 작가가 10년 동안 작업한 선(禪)적인 만화와 일러스트 작품들을 한자리에 모아 전시회를 연다. 이번 전시에는 배 작가가 그간 작업한 작품 중 30여 점만 특별히 엄선해 선보인다.


배종훈 작가의 작품.

전시 구성은 각종 매체에 수록된 작가의 작품을 디지털 프린팅 한 것과 배 작가가 그간 별도로 작업해 온 불교관련 페인팅 작품들을 두 가지로 나눠 전시한다.

"사람들이 쉽게 불교를 접할 수 있는 방법을 찾다가 짧은 만화를 생각하게 됐죠. 짧은 만화의 한 두 컷에 담긴 의미는 몇 권의 책보다 의미 있습니다. 만화는 선(禪)의 영역과도 상통하는 부분이 많죠."

10여 년간 불교만화만을 고집해 온 배종훈 작가는 원래 불자는 아니었다. 하지만 불교의 사상과 정서의 매력에 빠져 지금껏 불교만화 작업을 이어왔다. 배 작가는 "특별한 부처도 특별한 깨달음도 없으며 결국 본래 그러한 것이 불교"라고 생각한다고 말한다. 그래서인지 그의 작품에는 철저한 자기 수행과 나눔이 배어있다. 배 작가의 이런 수행이 담긴 작품들은 4호부터 100호까지 다양한 캔버스로 전시장을 가득 메운다.

한편 이번 전시는 생명나눔실천본부와 공동으로 기획해 판매수익금 일부를 어려운 이웃들에게 기부할 예정이다. 배종훈 작가의 '맑은 생각, 카툰 선(禪전)을 만나다' 전시는 1월 8~17일 서울 법련사 불일미술관에서 전시된다.

이은정 기자

사랑의 불서 1200권

법련사, 교도소 등 보시

송광사 분원 법련사(주지 보경)가 연말연시를 맞아 이웃들에게 불서 보시를 해 훈훈한 미담이 되고 있다.

법련사는 구랍 22일 경내에서 '사랑의 불서 보내기 운동'의 일환으로 보경 스님이 출간한 <사는 즐거움>을 포함한 불서 1200여 권을 사회교정시설(교도소)과 복지시설, 군부대 등에 전달하는 기념행사를 열었다.

보경 스님은 "연말마다 불서를 구입해 보시했지만 이번에는 신도들의 자발적인 참여로 이뤄져 의미가 크다"며 "책을 필요로 하는 곳도 많지만 우선 교화시설에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앞으로는 군법당에도 책을 보내 군포교 지원으로 확대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02)733-5322

이나은 기자

"영담 스님의 특정 기자 표적인사"

불기협, 불교신문 인사 비판 성명 내

불교신문(사장 혜자)의 경영적자 해소를 위한 인사이동 안이 발표를 앞둔 가운데, 한국불교기자협회(회장 안직수, 이하 불기협)가 불교신문의 인사발령을 비판하는 성명을 내고 총무부장 영담 스님을 정면으로 비판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불기협은 구랍 29일 '불교신문 부당 인사에 대한 한국불교기자협회의 입장'이라는 제하의 성명서를 조계종 총무원 기획실에 전달했다.

불기협은 성명서에서 "최근 불교신문 인사위원회가 결정한 보직변경에 불교계 기자 전체는 참담한 심정을 금하지 않을 수 없다"며 "이번 인사발령은 인사회의를 주도한 부사장 영담 스님의 특정 기자에 대한 표적인사"라고 비판했다.

불교신문 인사위원회가 1월 1일자로 보직변경 통보한 내용에 따르면, 10년차 차장급 경력기자를 비롯해 입사 2년차 기자와 편집기능직 직원 등 편집국 기자들이 업무국 또는 신설된 전략기획팀 등으로 발령됐다.

불기협은 "경영난의 책임을 상대적 약자인 종사자에게만 묻는 교계의 분위기가 아쉽다. 당사자가 동의하지 않는 보직변경과 부당인사는 즉각 철회돼야 한다"며 불교신문 발행인인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결단을 촉구했다.

이에 대해 한 불기협 임원은 "특정 스님과 불기협의 불편한 관계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은 옳지 않다"면서 "불자들이 열악한 교계 언론 환경에 대해 인식을 달리 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조동섭 기자

일주문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 워크숍

조계종 포교원 혜총 스님은 구랍 28~29일 태화산 전통불교문화원에서 종단인가 신도전문교육기관 학장 및 주요소임자 워크숍을 개최했다.



파라미타 우즈베키스탄 국제교류

파라미타청소년연합회 회장 도후 스님은 구랍 21~30일 우즈베키스탄에서 독립운동가 후손, 고려인 등을 대상으로 국제교류활동을 실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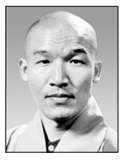
다문화가족 초청의 날

보은 법주사 주지 노현 스님은 1월 1일 법주사 궁현당에서 다문화가족 초청의 날 행사를 봉행하고 국악공연을 비롯한 각국 민속 공연을 선보였다.



대구교구청 축하 방문

대구 동화사 주지 허운 스님은 구랍 24일 천주교 대구교구청을 축하 방문해 '진리는 하나' 화환을 전달했다.



부석사 어린이 한문학당

서산 부석사 주지 주경 스님은 1월 17~ 23일 6박 7일간 부석사 문화체험장에서 어린이 한문학당을 개최한다.



옥천성당서 종교인 합동 미사

옥천 대성사 주지 혜철 스님은 박영순 청주향교 전교, 이근태 목사 등과 구랍 24일 천주교 옥천성당에서 미사를 봉행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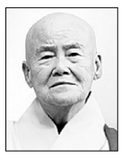


원우회 신임 위원장 선출

조계종 총무원 박정규 행정관은 구랍 29일 종무원조합 원우회 정기총회에서 신임 위원장으로 만장일치 선출됐다. 임기는 2010년 1월 1일부터 1년.

부고

견성암 현찬 스님 원적



예산 수덕사 비구니 선원 견성암 선원장을 역임한 청운당 현찬 스님이 세수 77세 법랍 55세로 구랍 29일 새벽5시 견성암에서 원적에 들었다. 현찬 스님은 1954년 견성암에서 수업 스님을 은사로 출가, 범어사 대성암과 불영사, 내원사 등의 선원에서 40하안거를 성만했다. 2009년 11월까지 견성암 선원장을 맡아 후학들을 지도해왔다.

서석재 前 국회 정각회장 별세



제13·15대 국회 정각회장을 역임한 서석재 前 총무처 장관이 구랍 26일 향년 74세로 별세했다. 서 前 장관은 제11~15대 국회의원 등을 역임했다.

"불교상담심리사 영역 확장에 앞장"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 원장 담교 스님 취임



"불교 상담은 시대의 요구입니다. 인기에 영합하기 보다는 현시대의 요구에 부응하는 불교상담개발원으로 나아가겠습니다."

불교상담개발원 제4대 원장으로 선출된 담교 스님은 구랍 29일 기자 간담회를 갖고 신년 사업방향을 발표했다. 불교상담개발원은 △불교상담대학 및 대학원을 통한 불교상담 전문인력 육성 △불교상담의 정체성 확립과 연구 활성화 △불교상담심리사의 활동 영역확장을 위한 '찾아가는 상담' 실시 등을 2010년 주요 사업으로 계획했다.

담교 스님은 "이웃종교는 신학대를 중심으로 상담교육을 활발히 전개하고 있으며 상담자격증을 소지한 사람들은 사회에서 실질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반면 '불교상담'은 정체성도 미비하고 전문 상담 인력부족, 관심부족으로 타종교인들이 불교계에서 상담과 교육을 할 정도"라고 말했다.

이어 스님은 "그동안 스님들은 상담교육을 치부하는 경향이 있어왔지만 실질적으로 상담공부는 스님들에게 필수적이다. 신자들과의 대화에서 상담기술을 배우고 안배우고는 천양지차"라며 스님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당부했다. "상담은 실습이 관건"이라는 스님은 230여 명의 조계종 포교원 인가 불교상담심리전문가들의 활동 영역확장을 위해 '찾아가는 상담'을 실시한다.

이에 1월 중순부터는 매주 수요일 동국대학교일산불교병원, 복지관 등에서 환우과 가족, 노인들을 위한 상담을 진행한다. 또 담교 스님은 "각 사찰에 스님 외에도 전문 상담가가 포진해 있어야 한다"며 전국 지역 사찰에서 상담교육을 필요로 하는 사찰에 찾아가는 교육도 계획 중이다.

24시간 불교전화상담기관인 자비의 전화가 올해로 20년, 불교상담개발원이 12주년을 맞이했다. 이에 담교 스님은 "11년 성과 평가를 통한 조직 정비와 중장기적인 발전 방안을 마련하고, 자문위원회·연구위원회·자격위원회·실무위원회 등의 위원회를 재구성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담교 스님은 1986년 범어사에서 자운스님을 계사로 비구니계를 수지하고 1993년 자비의 전화 제6기 카운슬러교육 수료, 1994년 중앙승가대학 졸업, 동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상담심리사 교육학 석사학위 취득, 동국대 불교대학원 불교사회복지 문학 석사학위 취득, 서울불교대학원대학교 상담심리 박사과정을 수료했다. 경기지방경찰청상담원, 제2군 사령부 군상담전문위원 등으로 활동했으며 2005년부터 현재까지 서울가정법원 가사전문위원 등 다양한 분야에서 대·내외적인 불교 상담을 전개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un82@buddhapia.com

"캐롤보다 사랑받는 찬불동요 보급"

좋은벗풍경소리 제4대 회장 자용 스님 취임



"모두를 위한 찬불동요, 크리스마스 캐롤보다 더 사랑받는 찬불동요를 만들어 보급하겠습니다."좋은벗풍경소리 제4대 신임회장으로 선출된 자용 스님(사진)은 구랍 28일 봉행된 '제3·4대 회장 이취임법회'에서 음성포교의 혁신적인 변화를 다짐했다.

자용 스님은 "크리스마스 캐롤이 복음성가라는 것을 모르고 전화수신음에 캐롤을 쓰는 불자, 스님들도 있다"며 "이 시대 최고의 부처님 노래가 거리 곳곳에서 들릴 때까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자용 스님은 찬불동요 활성화에 불자 연예인들을 적극 활용할 계획이다. 스님은 취임 하루 전날인 27일 '2009 KBS 연예대상'에서 우수상을 받은 방송인 이수근이 '평창 극락사 주지 자용 스님께 감사드린다'라는 수상소감 한 마디에 국·내외에서 120여 통의 전화를 받았다. 스님은 "이수근이 왕성한 활동을 하기 전부터 극락사 어린이 수련회 등을 통해 인연을 맺었으며 경제적으로 여유가 없을 때 조금씩 도운 것이 결과적으로 큰 포교였다"며 사연을 밝혔다. 자용 스님은 "이수근의 한마디가 엄청난 포교효과를 보듯이 앞으로 불자 연예인을 후원·배출하는 것은 또 다른 포교다. 불자 연예인들을 좋은벗풍경소리 후원 회원으로 포섭해 최고의 노래가 담긴 음반을 선보이겠다"며 불자들의 적극적인 후원을 부탁했다.

스님은 평창 극락사 주지, 극락사 관인부설 연화유치원 원장, 중앙승가대학 부설 보육교사교육원 원장, BBS 불교방송 룸비니동산 MC, BBS불교방송 TV '자용 스님의 종이접기' 등에서 활동하고 있다.

이상언 기자

국민훈장 모란장 수상

현성 스님 안보교육 기여



구랍 28일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에서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은 현성 스님(오른쪽).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 총재 현성 스님이 구랍 28일 국민훈장 모란장을 수상했다.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서대문구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현성 스님은 평화통일과 안보의식 고취 및 안보교육에 기여한 공로와 안양교도소 재소자를 대상으로 하는 안보교육을 꾸준히 전개해 온 공로를 인정받아 국민훈장 모란장을 받았다.

노덕현 기자

지역 불교계 소식

대한불교범종단연합회 정식 출범

범종단적인 불교계 인사 모임인 대한불교범종단연합회(회장 지암)가 구랍 24일 유성 유진호텔에서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정식 출범했다.

행사에는 지암 스님을 비롯해 부회장 화담·청파 스님, 사무총장 해광 스님, 감사원장 위산 스님, 도오 스님 등이 참석해 연합회 총재에 제주 수정사 조실 도산 스님을 만장일치로 추대했다. 또한 산하단체로 비구니회와 유발승려를 포함하는 법사단을 조직하기로 했다.

대한불교범종단연합회는 종단 상호간 친목과 유대를 통해 한국불교의 위상을 고양시키고 인류사회 발전을 통한 세계평화의 선도적 역할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지난해 4월 창립됐다. 혜철 충청지사장

선교종 경남종무원 장애인 가정돕기 법회

대한불교선교종 경남종무원(원장 법우)은 구랍 18일 경남 밀양시 소재 경남종무원에서 제1회 장애자 가정돕기지원금 전달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경남종무원 사부대중이 모은 보시금을 밀양지역 국민기초 생활보장 수급자 장애인에게 전달했다.

경남종무원장 법우 스님은 "사회복지 실천과 불국정토 구현을 위한 대한불교선교종의 창종이념 실천을 위해 마련한 행사"라면서 "이웃과 함께 '상구보리 하화중생'이란 근본이념을 실천하며 자비를 베푸는 자세를 항상 견지하자"고 말했다. 청운 경남남부지사장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 성탄 트리 불 밝혀

한국불교대학 대관음사(회주 우학)는 동지인 구랍 22일 목사·수녀님을 초청해 아기예수 탄생을 축하하고 크리스마스의 의미를 되새기는 시간을 가졌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보문시현사 불사보시금 지역동민에 회향

33관음이 나툰 도량, 대구 보문시현사(주지 일우)는 최근 '33응신 목관세음보살' 점안법회 봉행후 보시금으로 들어온 전부를 지역 동민에게 각각 22만원 상당의 쌀로 회향했다. 손법천 대구지사장

풍주사 '연꽃과 같이' 합창발표회

재단법인 충북 교구본사 고령산 풍주사 합창단은 구랍 25일 청주 예술의전당 소극장에서 '연꽃과 같이'를 주제로 발표회를 개최했다.

공연에는 풍주사 주지 덕일 스님과 청주청원불교연합회장 광해 스님, 보현사 주지 원봉 스님을 비롯한 대덕스님 등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백제불교회관 송년법회

백제불교회관(관장 장곡)은 구랍 28일 법당에서 송년 법회를 개최했다.

행사에는 백제불교문화대학 사재동 학장, 백불신행단체협의회 이진옥 회장을 비롯한 각 산하 단체장, 대전사암연합회 사무총장 남산 스님 등 3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혜철 충청지사장

마음 나누니 겨울이 더 따뜻합니다

광주불교사암련 · 금선사 · 원효사, 연탄 · 떡국 · 성금 등 보시 실천

강추위와 폭설이 전국을 뒤덮은 때, 호남지역 불교계가 다양한 이웃돕기 행사를 통해 자비의 온정 전달에 나서 눈길을 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회장 성오)는 구랍 29일 '희망과 자비의 연탄나누기' 행사를 열고, 광주지역 소외계층 50여 가구에 연탄 1만장과 난방비 등을 전달했다.

행사에는 성오 스님을 비롯해 광주불교사암연합회 회원스님 10명과 자비신행회를 포함한 40여 자원봉사자가 참여했다.

이날 전달된 '희망과 자비의 연탄'은 광주불교사암연합회가 지난해 본지와 공동주최했던 '2009빛고을불교아카데미' 강좌의 수익금과 각 사찰과 불교단체에서 지원한 후원금을 모아 마련됐다.

연탄 200장과 40㎏들이 쌀이 전달된 김옥덕(74. 남구 방림1동) 할머니 집은 조손가정으로 며느리가 가출해 10여 년 전부터 중학2년과 초등6학년의 손자 · 손녀를 양육하고 있다. 김 할머니 가정은 아들이 있지만 경제능력이 없어 할머니 혼자 가정을 이끌며 많은 생활고를 겪고 있었다.

성오 스님은 전달에 앞선 인사말에서 "불교의 가르침은 보살정신이며, 오늘날의 보살정신은 봉사"라며 "봉사를 할 곳이 없어지는 것이 봉사의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광주 금선사(주지 일명)는 이에 앞선 28일 광주시 송정시장에서 노점상을 하는 400여 어르신에게 따뜻한 떡국을 전달했다.





광주불교사암연합회의 사부대중이 희망과 자비의 연탄을 나르는 모습(왼쪽). 일명 스님이 어르신에게 떡국공양을 올리고 있다.

연일 추위가 계속되는 날씨에 시장 도로 주변에 쪼그리고 앉아, 집에서 제배한 농산물을 판매하는 어르신에게 따뜻한 점심은 크나 큰 선물.

점심을 받아든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추운 겨울에 언 몸을 녹이는, 세상에서 가장 맛있는 음식이었다"라고 감사해 했다.

일명 스님은 떡국 전달에 앞서 자원봉사자들에게 "음식을 공양 받는 어르신들은 우리의 어버이 같은 존재이다. 부모에게 음식을 공양하듯 전해 달라"고 당부했다.

특히 이날 참가한 자원봉사자들은 노점상 어른들보다 더 낮은 자세로 두 손을 모아 음식을 드려 눈길을 끌었다.

자원봉사에 참여한 양현숙(금선사 신도) 씨는 "잠깐 봉사하는 것도 이렇게 추운데, 난로불도 없이 하루종일 앉아 농산물을 판매하는 할머니를 보니 너무 가슴이 아팠다. 전해드린 따뜻한 밥에 추운 겨울을 이기는 맛있는 식사가 되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광주 무등산 원효사(주지 현지)는 구랍 25일 광주 동구 소재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행복재활원(원장 정숙현) 지체장애아동들에게 먹거리와 성금을 전달했다.

행사에서는 현지 스님, 김진여성 광주생명나눔실천 후원회장을 비롯해 자리이타봉사단원 10여 명이 참석해 과자와 과일 등 지원물품을 비롯해 봉사단원이 매월 1만원씩 모은 기부금 중 100여 만원도 선사했다.

전달식에서 현지 스님은 "추운 겨울 소외받는 많은 사람들이 있다. 우리가 조금만 관심을 갖고 나눔을 행하면, 세상은 한층 더 맑은 사회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달식 후 참여한 봉사단원은 스스로 밥을 먹지 못하는 중증 지체장애아동들에게 점심을 먹여주고, 목욕을 시키는 봉사에 참여했다.

행사에 참여한 김진여성 후원회장은 "'움직이지 못하는 이 아이들이 우리의 모습일 수 있다'는 담당자의 말에 말을 잊지 못했다. 나누고 봉사하라는 부처님의 말씀을 열심히 실천하고 싶다"라고 참가 소감을 이야기 했다.

사회복지법인 동산보육회 행복재활원은 지체장애아동들이 기거하는 시설로 3세부터 18세까지의 160여명의 원생들이 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문빈정사 세대 초월 법회 열기 뜨거워

명상하며 참회하는 마무리 법회…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

승가란 범어 'samgha'의 음역으로 간략하게는 승(僧)이라 하고, 화 · 중(和 · 衆)이라 번역한다. 즉, 화합의 뜻을 갖는다. 오늘날 승가의 구성원을 사부대중(四部大衆)이라 표현한다. 바로 비구 · 비구니 · 우바새 · 우바이가 그것이다. 작은 불교단체이든 큰 조직이든 승가의 원칙인 화합은 단체운영의 근간이다. 여기에 단체별 개인별 소통을 더한다면 더할 나위없는 승가가 될 것이다.

빛고을 광주의 무등산 아래 첫 절인 문빈정사(주지 법선)는 사부대중 만남의 장을 만들고 법회를 여는 곳이다.

사부대중이 만드는 가족법회에 참가하러 들린 구랍 29일에는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세대를 초월한 200여 불자가 모여 지난 한 해를 반성하고 참회하는 송년법회를 봉행중이었다. 이날 법회에는 광주 동구청 불자회와 조선대 불교학생회 회원들도 참여해 열기를 더했다.

행사는 단순했다. 지난 한 해를 참회하는 시간. 그 흔한 장기자랑에 노래가 나올 만도 한데 문빈정사의 송년법회는 조용히 앉아 명상에 들고, 참회의 마음으로 부처님 전에 절을 올리는 것으로 한해를 마무리 하고 있었다.

주지 법선 스님은 신년의 좌우명을 <채근담>에 나온 "남을 대할 때는 봄바람처럼 부드럽게 대하고, 자신한테는 추상같은 엄격함을 가져야 한다(對人春風 持己秋霜)"는 말로 대신했다.

법회에 참석한 신도들의 모습은 지난 한해의 아쉬움보다 새로운 해에 무엇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이 묻어나온다.

광주에서 청년회를 운영하는 곳은 단 3곳 뿐이다. 어린이회와 거사회도 열리는 곳이 적기는 마찬가지이다. 이런 여건에서도 문빈정사에는 어린이 답사회, 청년회, 거사회를 비롯해 여성 신도회가 조직돼 있다. 신도회 조직에는 바라밀 봉사단이 있어 매주 화요일 봉사활동을 나간다.

매월 한차례 어린이부터 어른까지 모여 한 달을 돌아보고 계획하는 법회를 하는 것이 바로 가족법회라고 한다. 가족법회에서는 각 단체가 서로 교류하고 사찰의 중요사항을 논의할 수 있는 장이 자연스레 마련된다.

작은 절인 문빈정사가 단체법회를 여럿 꾸려가는 것이 쉽지 않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법선 스님은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하기 보다는 "가족법회가 기존 신도법회와 더불어 사찰의 근간이 됐으면 한다"고 말한다.

2010년에는 1월부터 어린이 생명평화학교가 이곳 문빈정사에서 개최된다. '자연과 함께 놀며 생명과 평화를 배우자'는 주제로 진행된다.

1990년대 말까지만해도 문빈정사에는 어린이부터 신도회까지 탄탄한 조직을 갖추고 사찰운영위원회를 중심으로 운영됐다. 여기에는 회주 지선 스님의 원력이 큰 역할을 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단체는 와해됐고, 사람들은 지쳐갔다. 아마 광주와 전국의 대다수 포교사찰은 같은 경험을 되풀이했을 것이다.

법선 스님은 "2010년은 문빈정사가 다시 출발하는 원년"이라고 말한다. 스님은 다시 사람을 모으고, 좀 더 자연스럽게 불법이 그들에게 전달되기를 기원했다.

문빈정사 스님들과 신도들은 "문빈정사가 작지만 많은 사람들에게 큰 꿈을 주는 포교사찰로 자리매김할 수 있게 2010년에도 힘찬 발걸음을 내딛겠다"며 "부족함이 있지만 사부대중이 서로 손을 맞잡으면 큰 일을 해낼 수 있을 거라 확신한다. 희망을 갖자"고 말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새해 원력과 신심 다져요"

전북공무원불자회 · 전북포교사단 · 고창복지관

전북지역 불교계 단체들이 2009년을 여법하게 회향하고, 2010년의 신심과 원력을 다지는 송년법회를 잇따라 마련했다.

전북지역공무원불자회는 구랍 25일 김제 금산사 설법전에서 송년법회를 봉행했다.

행사에는 전북도청연우회, 김제시청연우회, 경찰청불자회, 교사불자회, 법조인불자회, 전주교도소 성불회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200여 공무원불자들이 참석했다.







위부터 전북지역 공무원불자회 송년법회와 전북포교사단의 전북포교사의 밤, 고창군종합사회복지관의 제2회 복운 문화행사 작품발표회.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은 법어에서 "새해에는 전북지역에도 불교방송이 개국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 해가 될 것"이라며 "공무원불자들이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통해 종교 간 화합과 문화의 교류를 통해 화합과 단합된 모습을 보여달라"고 당부했다.

한편, 이날 법회에서는 모범적인 신행활동을 펼친 도청 연우회 김희수 불자 등 7명이 금산사 주지스님으로부터 '우수 공무원 불자 표창'을 수상했다.

전북포교사단(단장 김진수)는 같은 날, 전주 관광호텔연회장에서 '전북포교사의 밤'을 개최했다.

행사에는 금산사 주지 원행 스님, 조계종 포교부장 계성 스님, 김백호 전북신도회장, 김완주 전북도지사, 박규선 전북교육위의장, 강홍원 포교사단장, 임희웅 차기 포교사단장 등 전북지역에서 활동 중인 200여 사부대중이 참석했다.

원행 스님은 치사에서 포교사들에게 "폭넓은 신심과 원력으로 세상의 등불이 되는 이정표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포교부장 계성 스님은 "포교사의 역할과 그에 맞는 위상을 갖도록 지원할 것"이라며 "각 지역의 포교역량을 극대화하는 데 포교사들이 그 역할을 해 달라"고 말했다.

행사에서는 그동안 포교일선에서 수고를 아끼지 않은 김해수 포교사 등 우수 포교사에 대한 시상이 이어졌다.

한편, **고창군 종합사회복지관 · 노인복지회관**(관장 무공)은 구랍 28일 복지관 대강당에서 500여 지역주민과 어르신이 함께한 가운데 '2009 제2회 복운 문화행사 작품발표회 및 송년행사'를 개최했다.

이번 작품발표회는 지난 1년 동안 복지관과 노인복지회관을 이용하면서 참여한 프로그램 발표와 지역주민들에게 복지관 문화교육 프로그램을 알리는 자리로 마련됐다.

행사에는 난타공연, 댄스스포츠, 요가시범, 은빛구름복운 합창단의 공연 등을 선보였다. 이어 한글교실을 다니며 느꼈던 수기낭독에 이어 실버악단의 아코디언 공연은 어르신들의 잠재능력을 발휘하는 당당한 모습을 볼 수 있는 무대였다.

무공 스님은 "어르신들이 배움을 향한 끝없는 무한열정으로 복지관 문화교육에 참여하고 있다. 앞으로 복지관에서는 보다 다양한 분야의 문화교육을 준비해 복지관을 찾는 주민의 잠재된 소질을 표출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행사에 동참한 어르신에게는 따뜻한 겨울 장갑이 선물로 증정됐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2교



함영의 **밥맛 나는 세상**

58 밥은 경험- 박 아줌마 편

77번 아줌마의 죽 한 그릇에 담긴 정

양갈이 순한 천성과 다소곳한 성품의 박아줌마가 6개월 동안 교도소에 수감된 적이 있었다는 사실은 놀라웠다. 군부독재 시절에 데모에 가담한 죄로 재판 결과도 없이 교도소 신세를 져야했으니, 당시 그녀가 받은 충격은 자살을 결심한 정도로 컸다.

"교도소로 넘어갈 때 여자교도관이 몸을 샅샅이 조사하는데, 심리적으로 워낙 힘든데다 몸수색까지 당하고 나니까 죽고만 싶더라고. 내 존엄이란 건 하나도 없고 재판은 받지도 않았는데 죄인 취급을 당했으니까…."

교도소에서의 생활은 모든 것이 생소했다. 소변을 보는 일에서부터 차디찬 바닥에서 낡은 담요 몇 장으로 추운 겨울을 보내야했던 건 무엇보다 힘들었던 기억이다. 부모님에 대한 죄스러움에 정체성의 혼란과 존엄성의 상실로 삶의 의미를 전혀 느낄 수가 없었다.

"그래도 밥은 세끼 꼬박꼬박 나오고 유치장에서보다는 먹을 만하더라고. 특이한 음식도 많았고…."

교도소에서 만난 여자들은 음식만큼이나 다양하고 낯설었다. 간통으로 들어온 사람에서부터 사기, 절도, 살인 등 일상에서 가까이 접해보지 못했던 군상 속에서 교도소 생활도 차츰 적응이 되어갔다. 나중에는 수감자들이나 교도관들과 친해져 괜스레 어슬렁거리며 이런저런 대화를 나눌 수 있는 여유도 생겨났다. 그때 만난 사람들 중에 가장 잊을 수 없던 이가 '77아줌마'였다.

"우리는 이름 대신 번호로 불렸어. 그 아줌마는 77번이라 '77아줌마'로 불렸는데 장기수였어. 원래 장기수들은 다른 곳으로 넘어가는데 교도소 내에 일손이 필요하니까 몇 명 남겨놓던.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음식을 하러 나갔어. 나는 77아줌마랑 가장 친했는데 늘 자기를 어리석은 죄인이라고 하는 분이었지."

77아줌마의 담당은 쌀을 씻어 밥을 짓는 거였다. 일명 '쌀 고르는 아줌마'로도 통한 그녀



박 아줌마는 교도소에 있을 때 단식투쟁 삼일 째 되는 날 아침에 먹은 쌀죽의 맛을 잊을 수 없다.

가 낮에 하는 주된 일과는 오래된 정부미에서 벌레를 골라내는 일이었다. 한가로운 오후에 쌀을 고르며 앉아있는 그녀 옆에서 이런저런 수다를 떨곤 했다.

77아줌마와의 우정이 깊어진 것은 어느 날 교도소에 일명 '큰손'이라고 불린 한 여자 수감자가 들어온 사건이 계기가 되었다. 그 여자 수감자의 방은 큰손답게 여느 수감자들 방의 세 개를 합쳐놓은 크기를 사용했고, 심부름을 해주는 도우미까지 붙여졌다.

"그런 처우가 너무 불공평해 단식투쟁을 했어. 그런데 갇힌 공간이라 그런지 이틀 하는데도 죽는 줄 알았어. 그때 77아줌마는 내가 걱정스러워 안절부절 했는데 우리 엄마랑 동갑이라 그런지 내가 딸 같았나봐. 삼일 째 되던 날 아침에 쌀죽을 해왔는데, 그걸 먹는데 가슴이 미어지더라고…."

77아줌마가 딸처럼 예뻐했던 동료에게 그곳에서 해줄 수 있었던 건 죽 한 그릇 밖에 없었지만, 그 마음은 모정과 다름없었다. 고작해야 참기름 두어 방울 떨어뜨려 쑨 쌀죽이었지만 그녀와 나눈 것은 '마음'이었다. 고양이가 어슬렁대던 풍경 속에 한가로이 앉아 쌀을 고르던 77아줌마의 우정은 그렇게 죽 한 그릇의 추억으로 남았다.

이젠 기억조차 빛바랜 시절의 이야기가 끝나갈 즈음, 박 아줌마는 가방에서 무언가를 꺼내 입안에 털어 넣었다.

"이게 누에고치인데 건강이 좋아지더라고. 어디 아픈 데는 마땅히 없는데 기운이 금방 딸려서…."

"아니 수건으로 목매달 데를 찾을 땐 언제고 이젠 기운이 부실하다고 약까지 챙겨먹네. 그리고 큰손이 큰방을 쓰면 큰손이라 그런 가부다 하지, 어떻게 거기까지 가서도 시위를 하냐. 너무 엉뚱하니까 마음이 아파야 될 사연인데도 코믹해서 자꾸 웃음이 나잖어."

사연을 듣는 내내 미안해하면서도 실소를 터트리던 내게 박 아줌마가 한마디 한다.

"세상이 그런 거지뭐. 똑같은 상황도 어떤 시각으로 보느냐에 따라 비극도 희극도 되는 거고…."

교도소에서의 고행이 그녀에게 전식득지(轉識得智)의 경지에라도 이끌어 준 걸까. 아줌마의 내공이란 게 원래 그러한 걸까. 양갈이 순할 줄만 알았던 박 아줌마는 알고 보니 지혜롭고 엉뚱하기까지 한 여자였다.

자유기고가, blog.naver.com/owisdom

동상의 모든 것… 알면 피한다

기상청은 2010년 새해부터 영하권의 추운 날씨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했다. 겨울다운 추위가 맹위에 질새라 사람들은 스키, 등산, 얼음 낚시를 즐기지만 동상의 위험도 피할 수 없다. 일상생활은 물론이고 일 하다가도 언제든 걸릴 수 있는 동상과 그 치료법을 알아보자.

#동상이란 무엇이며 어디에 생기나?

동상은 인체가 영하 7℃ 환경에서 7~18시간 정도 노출되면 생긴다. 젖은 의복을 입고 있거나 차가운 금속에 접촉해 장시간 있을 경우 열손실이 많아 진행이 빨라지고 영하 10℃ 이하의 날씨에 바람까지 불 경우에는 특히 조심해야 한다.

동상의 증세는 저온에 장시간 노출된 인체 조직이 얼면서 혈액순환이 장애를 받아 생기며 2차적으로 괴사가 일어날 수 있다. 주로 손, 발, 귀, 코와 같이 신체의 끝부분으로 혈액순환이 원활치 못한 부위에 바늘로 찌르는 듯한 통증과 가려움증이 나타나고 감각이상과 강직현상이 나타난다.



스키나 눈썰매 등 겨울철 야외활동은 옷이 쉽게 젖을 수 있어 동상에 잘 걸린다.

#어떤 사람이 동상에 잘 걸리나?

젊고 건강한 사람보다 유 · 소아 또는 노인, 혈액 순환이 잘 안 되는 환자에게 자주 발생한다. 수면제나 진통제를 복용하고 있는 사람과 흡연자와 술을 마시는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잘 걸리며 그 밖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 당뇨병, 영양실조가 있는 환자와 동절기 야외훈련이 잦은 군인, 산악인, 잠수부에게서 흔히 나타난다.

#동상에도 단계가 있다

동상의 증상은 전신성과 국소성으로 분류하며 국소성은 다시 1~3도로 나눠진다.

1도: 홍반성으로 피부표면이 붉게 되거나 부으며 감각이 둔하고 며칠 후 화끈화끈한 열감과 가려움증이 발생한다.

2도: 수포성으로 발적부위에 콩알 크기의 물집을 형성하며 때로는 화농성이 돼 심한 통증을 동반하는 경우도 있다.

3도: 괴저성으로 조직의 괴사를 일으키며 심하면 피부는 물론 근 건 뼈 등까지 파급되어 손가락 발가락 등의 결손을 일으키고 가끔 화농을 나타낸다.

#동상의 응급처치법

– 가벼운 동상인 경우

환자를 즉시 실내로 들어오게 해 젖은 옷을 벗긴 후 동상 부위를 감각이 돌아올 때까지 40℃의 따뜻한 물에 담가둔다. 피부가 말랑말랑해지고 붉은 빛을 낼 때까지 30~60분 동안 담가둔다. 동상에 걸린 부위는 감각이 둔하므로 물의 온도는 보호자가 안전하게 체크해줘야 한다. 너무 뜨거울 경우 환부를 더 악화시킬 수 있고, 화상을 입을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환자를 계속 따뜻한 상태에 있도록 하면서 다른 외상을 받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 심한 동상인 경우

환자의 젖은 옷을 벗기고 마른 옷으로 갈아입힌 후 즉시 응급실로 데려가야 한다.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잘 감싼 후 최대한 외부의 충격을 받지 않도록 한다. 예를 들어 아이가 발에 동상이 걸린 경우 아이를 걷게 해서는 안 되므로 업어 가야 한다. 바로 응급실로 갈 수 없는 경우에는 증상이 악화되지 않도록 응급처치가 중요하다. 우선 환자에게 따뜻한 물을 먹이고, 여건이 된다면 동상이 걸린 부위를 따뜻한 물(약 37~40℃)에 담가두거나 담요 등으로 동상 부위를 따뜻하게 감싸준다.

#겨울철 야외활동시 동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 추위에 장시간 신체 노출을 금지.

– 손발을 자주 씻고 항상 건조한 상태로 유지.

– 추위에 노출되어 있을 때는 젖은 내의, 양말, 방한복 등을 입지 않는다.

– 방한복이나 방한화는 혈액순환에 지장을 줄 정도로 조이지 말 것.

– 추위에 노출돼 있을 때 자주 몸을 움직이고, 수시로 더운 물과 음식을 먹을 것.

이나은 기자

밥 많이 먹으면 공부 못 한다 마음으로 공부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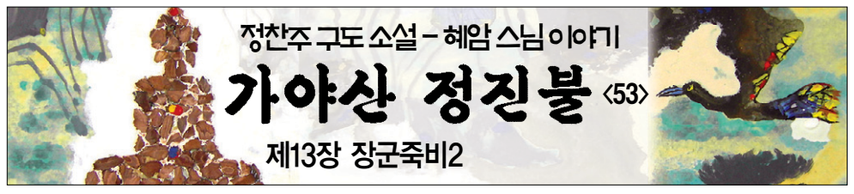



그림 · 최문정

해인사 선방 오후불식 가풍 혜암 스님이 세워

"일대사 해결하려는 이가 고비 넘기지 못한데서야…"

재가자 선원 운영에 정성… 매월 두 차례 철야정진

혜암은 해인사의 유나와 부방장, 방장을 하는 동안 선방청규를 철저하게 지켰다. 원당암에서는 재가선방을 개원하여 틈틈이 지도하는 한편, 해인사 선방에서는 대중들과 똑같이 가부좌를 틀고 정진했다.

그때 혜암을 선방에서 가장 가깝게 시봉한 수행자 중에 한 사람이 고양 흥국사 주지 대오(大悟)다. 대전에서 대학을 다니다가 출가하기 위해 쌀 한 말을 지고 해인사를 찾았던 대오가 행자생활을 마치고 해인사 선방에 방부를 들인 것은 1991년도 하안거 때부터였다. 혜암이 1996년에 방장을 사임할 때까지 지객 소임만 5년 동안 보았던 것이다.

"1992년도에 성철 방장스님 밑에서도 스님의 지시를 받아 방을 짜는 지객을 보았습니다. 1993년 성철스님이 입적하시자 뒤이어 은사스님께서 해인사 6대 방장이 되시고 난 뒤부터 선방의 규율은 더욱 강화되었습니다. 은사스님께서 1993년 동안거부터 선방대중들에게 오후불식을 지시하셨거든요. 오후에는 아무 것도 먹지 말라고 하니 선방대중 사이에 갈등이 생겼습니다. 은사스님께서는 수좌가 됐건 상좌가 됐건 밥 많이 먹는 사람을 제일 싫어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공양간에서 몰래 먹다가 혼구녕이 난 수좌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음 철부터는 오후불식을 하겠다는 각서를 받고 선방 방부를 들였습니다."

그래도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수좌가 있었다. 혜암은 수좌의 그런 태도를 용납하지 않았다. 선방대중 앞에서 삼배를 시키어 참회케 했다. 오후불식은 혜암이 체험에서 얻은 경험칙(經驗則)이기도 했다. 저녁밥은 몸을 무겁게 하고 수마를 불러들이므로 공부하는 데 독이 되었던 것이다.

"오후에 먹는 것은 안 되고 물을 마시는 것은 허용됐습니다. 은사스님께서 저녁밥은 독이라고 했습니다. 장좌불와는 못했지만 저도 은사스님의 지시대로 3년 동안 오후불식은 지켰습니다. 해보니 한 달이 고비였습니다. 힘든 고비를 넘기고 나니까 몸이 가볍고 잠도 줄고 해서 공부하는데 좋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해인사 선방의 오후불식은 1년 정도 지나자 자연스럽게 정착되었다. 전국의 선객들에게 소문이 돌아 오후불식을 지켜낼 수좌들만 해인사를 찾아왔으므로 혜암의 정진 가풍은 저절로 자리를 잡았던 것이다.

대중들에게 오후불식보다 더 참기 힘든 것은 일주일 용맹정진이었다. 일주일 동안 잠을 자지 않고 정진하는 것이 용맹정진이었다.

"은사 스님은 대중과 똑같이 결제를 하셨습니다. 대중생활을 하셨다는 것만으로도 존경스럽습니다. 방장이 되신 후에도, 그러니까 93년 11월, 74세 때부터 77세까지 매 안거마다 단 한 시간도 용맹정진에 빠진 적이 없었습니다. 평생을 용맹정진하신 분이기 때문에 4시에서 4시 10분 사이에 정확하고 한결같이 대중선방 가운데에 시자더러 의자를 갖다 놓게 하고 앉았습니다."

대중들은 용맹정진 중에 몰려오는 잠과 사투를 벌여야 했다. 자신도 모르게 앉은 자세가 흐트러지곤 했다. 그때는 어김없이 혜암의 장군죽비가 졸고 있는 스님의 어깨 우위로 날아왔다.

그런데 잠을 자지 못하면 신경이 창날처럼 날카로워지기 마련이었다. 밤 12시가 넘게 되면 장군죽비 소리만 들어도 마른땀이 나고 신경이 곤두섰다. 더 이상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느꼈던지 한밤중에 한 스님이 혜암의 장군죽비를 맞는 순간 반사적으로 고함을 쳤다.

"큰스님, 한밤중에 조금 졸 수도 있지 않습니까. 며칠째 한 숨도 자지 못했으니 그런 것 아닙니까. 졸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으니 봐주시기도 해야지요. 섭섭합니다. 큰스님은 존 적이 없습니까."

한 스님이 혜암에게 반항하듯 대들었다. 눈치를 봐가며 슬쩍슬쩍 졸던 몇 명의 대중이 그 스님의 말에 은근히 동조했고, 다른 대중들은 놀란 채 가부좌를 풀었다. 그러나 혜암은 한 발도 물러서지 않았다. 장군죽비를 또 다시 내리쳤다. 그러자 그 스님이 벌떡 일어나 도망쳤다.

혜암은 그 스님이 돌아오기를 기다렸다가 선방 분위기를 수습한 뒤 간절하게 당부했다.

"여기 앉아 있는 사람들은 도대체 누구요. 일대사를 해결하려는 대장부 중에 대장부가 아닙니까. 수좌의 길을 걷겠다고 한 사람들이 이 정도의 힘든 고비를 넘기지 못한 데서야 말이 됩니까. 용광로에서 벌겋게 단련된 쇠라야만 금강보검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들을 부처님으로 만들려고 이렇게 단련하는 것이오."

그러면서 혜암 자신이 오대산에서 어렵게 공부하던 얘기를 하여 공부에 대한 용맹심이 솟게 했다.

"옛날 오대산 한암 노스님 회상에서는 김치를 금치라 했습니다. 겨울 내내 김치 한 가지로 공양을 하는데, 그것마저도 귀해 금치라 했소. 대중이 헤프게 많이 먹을까봐 소금에 저리다시피한 김치였어요. 한암 노스님께서는 밤이 되면 몰래 김칫독으로 가 소금을 한 바가지씩 부었어요. 그러니 김치 맛은 짜다 못해 쓴맛이 났습니다. 그런 김치 한 쪽이면 밥을 세 숟가락도 더 먹었지만 그것도 고마워하며 불평 한 마디 없이 공부들을 했어요. 지금은 어떻습니까. 공양간에서 공부하는 스님들 뒷바라지를 얼마나 잘해줍니까."

용맹정진 중에 상황이 정반대로 바뀐 적도 있었다. 이번에는 선방에서 찰중 소임을 맡은 수좌가 장군죽비를 들었는데 혜암이 졸았던 것이다. 찰중 수좌는 영웅심리가 발동하듯, 아니면 자신의 소임을 과시하려는 듯 혜암의 어깨를 사정없이 후려쳤다.

대중이 보기에 민망할 정도였다. 사실, 장군죽비는 졸지 말라고 자극을 주는 방편인데, 찰중의 태도는 폭력에 가까웠던 것이다. 그런데 대중이 더욱 놀란 것은 혜암의 태도였다. 자세를 고쳐 앉은 혜암이 나직하게 말했다.

"죽비를 치더라도 예의를 갖추시오."

부드럽지만 단호하게 내뱉은 '예의'라는 말에 상황이 반전됐다. 찰중 수좌의 얼굴에 당황하는 빛이 역력했고, 대중들은 '역시 큰스님이구나!' 하고 신심을 냈다. 이 광경을 본 대중끼리 포행시간에 수군거렸다.

"다른 노스님 같으면 무색하고 창피하여 선방을 나갔을 것이오."

"선방을 나가 두어 시간 동안 마음을 다스린 뒤 들어왔겠지요."

"이런 일로 어느 노스님은 대중선방에서 다른 처소로 옮기신 적이 있긴 해요."

혜암은 후배 수좌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으려고 조심했다. 그렇다고 조는 모습을 굳이 숨기려고는 안 했다. 몸의 현상과 정신의 작용은 달랐다. 평생을 눕지 않았기 때문에 오랫동안 앉아 있으면 눈사람이 녹는 것처럼 몸이 생리적으로 허물어졌다.

그러나 혜암은 자신의 의지를 끊임없이 추스르곤 했다. 꾸벅꾸벅 조는 모습을 보이다가도 장군죽비를 든 수좌가 가까이 다가서면 한 걸음 전에는 반드시 자세를 바로잡았다. 정신만은 깨어 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것마저 극복하기 위해 어느 때부터인가는 의자를 선방 가운데 놓고 앉아 참선했다.

그런데 어느 날 의자 앞으로 고꾸라지는 일이 벌어졌다. 시자가 놀라 가슴을 쓸어내렸다. 몸이 앞으로 넘어지면 사고가 날 위험이 있어 주의를 기울였는데도 소용없었던 것이다. 그 일을 겪은 혜암이 시자에게 말했다.

"시자야, 의자 다리를 톱으로 잘라버려라."

그래도 며칠 후 몸이 앞으로 고꾸라지려 하자, 시자를 다시 불러 말했다.

"시자야, 끈으로 의자등받이에 내 허리를 매라."

이를 본 젊은 대중들은 신심을 내지 않을 수 없었다. 70대 노스님이 암자에서 안거하지 않고, 대중선방에서 단 한 시간도 빠짐없이 함께 용맹정진하는 올곧은 모습에 마음속으로 감복하지 않을 없었던 것이다. 쉼 없는 정진은 혜암이 자신에게 한 약속기기도 했다. 혜암은 대중에게 곧잘 다음과 같이 법문하곤 했다.

"해인사는 총림이니까 많이 사는 것이 원칙이지만 양적으로 많이 사는 것보다는 스님들이 적게 살더라도 올바르게 살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방장이 되자마자 오후불식을 시작했지요. 오후불식 않고 삼시로 먹고는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물론 사람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합니다. 밥 먹는 것을 보면 그 사람의 인격을 알 수 있습니다. 밥이 그 사람의 몸을 좌우해요. 술 먹고 술 안 먹은 척할 수 있습니까. 술을 많이 먹으면 내 생각대로 안 됩니다. 정신이 흐려지고 몸이 무거워져서 해태심 나고 짜증을 냅니다. 그래서는 무슨 일이든 안돼요. 그러니까 밥 먹는 것 보면 그 사람 운명을 알 수 있습니다. 관상법이 아니더라도 아주 백발백중 맞힐 수 있어요. 그래서 나는 밥 먹는 것이 공부하는데 첫발이라고 말합니다. 다른 데서 배워가지고 하는 말이 아닙니다. 내가 해보니까 밥 많이 먹고는 공부하지 못하겠다는 판단이 서요. 어떤 사람이 와서 공격하고 항의해도 답변할 자신이 있습니다. 해인사 선방에 대중이 아주 적게 살더라도 오후불식 시키고, 적게 살더라도 좋으니까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수좌를 도와줘야겠다고 생각합니다. 한 사람이 살더라도 올바르게 공부하려고 애쓰는 사람이 있으면 선방이고 절이지, 많이 살더라도 밥만 먹고 사는 데라면 절이고 선방이라 할 수 없습니다.

마음을 깨닫고 마음을 닦는 사람이 사는 곳은 도살장이나 술도가도 절이요, 법당이 거룩하고 스님들이 많이 살더라도 그렇지 않은 절은 마구니 굴속이며, 능히 번뇌 망상을 씻는 사람이 사는 절은 부처님 도량이요, 그렇지 않은 절은 속가라고 합니다.

불법이란 모양과 바깥이치를 빌리고 이용해서 설파를 해놓은 말입니다. 그런데 말만 따라가면 이치에 어긋나 버립니다. 또한 머리 깎고 법복 입었다고 해서 스님이 아닙니다. 마음으로 스님 노릇하고 공부하는 사람이 스님인 것입니다."

혜암은 선방스님들을 경책하면서, 한편으로는 재가불자들에게도 참선공부를 지도했다. 염불과 기도에만 의지하는 재가불자들에게 정법을 선양하기 위한 교화방편이었다. 1981년에 원당암에 재가불자 선원을 개원하여 매년 여름과 겨울에 안거케 하고, 매월 첫째와 셋째 토요일에 철야 용맹정진케 했던 것이다. 총림 안의 산중암자에서 재가불자 선원을 개원한 것은 혜암의 단안이 아니면 불가능한 초유의 일이었다.

혜암은 재가불자 선원 운영에 정성을 쏟았다. 선원 입구에 세운 글씨 한자 한자도 아무렇게나 쓰지 않았다. '달마선원(達磨禪院)'이란 글씨는 혜암이 직접 진주 호국사로 가서 은초(隱樵) 정명수(鄭命壽) 선생을 만나 부탁했다. 정명수 선생은 한말 최고의 서예가였던 성파(星坡) 하동주(河東州) 선생에게 추사체를 익혔고, 진주성 촉석루와 서장대 및 북장대 그리고 해인사 구광구와 해탈문 주련 등을 쓴, 구산과 일타와도 교우가 깊었던 서예가였다.

이러한 인연으로 정명수 선생의 아들은 혜암의 상좌가 되었다. 그가 바로 마흔이 넘은 나이에 원당암으로 출가하여 여연 밑에서 행자생활을 한 산청 율곡사 주지 일화(一和)다. 일화는 행자생활 중에 몸이 허약해 집으로 갔다가 다시 해인사로 돌아와 혜암에게 사미계를 받고 선방으로만 7년 동안 진리의 구름(法雲)을 좇다가 그마저 병고로 접었던 것이다.

재가불자들에게 참선공부를 시키기 위해 원당암에 오른 혜암은 영단(靈壇)이 있는 원당(願堂)에서 법문을 자주 했다. 영가의 위패들을 봉안한 법당에서 굳이 법문하는 이유는 산 사람뿐만 아니라 망자의 영가들도 참선하여 생사 해탈해야 된다고 믿기 때문이었다. 혜암은 산 사람이건 죽은 사람이건 간에 이승과 저승의 모든 사람들이 참선하여 해탈하기를 바랐던 것이다. 〈계속〉



월서 스님의
주련 이야기 47

공덕 쌓고 자비 베풀어야

[원문]
외외당당만법왕(巍巍堂堂萬法王)
삼십이상백천광(三十二相百千光)
막위자용난득견(莫謂慈容難得見)
불리기원대도량(不離祇園大道場)
–성륜산 용덕사 대웅보전

[번역]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32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춰주는구나
그 자비로운 모습 뵈옵기 어렵다고 말하지 말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량에 나투시네.

[선해(禪解)]
2010년 경인년(庚寅年) 새해가 밝았다. 승가(僧家)에서의 새해 의미는 매우 각별하다. 사찰들마다 한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면서 제야(除夜)의 타종과 신년 법어, 탑돌이 등 새 출발을 다짐하는 다양한 행사를 개최한다. 대개 사찰에서는 그믐 자정에 백팔번뇌를 없앤다는 의미에서 108번의 타종을 치는데 이는 지난 한해를 정리하고 새해에 모든 중생들의 소망을 담는 불교의 오랜 전통이기도 하다. 범종은 법고, 운판, 목어와 함께 사물의 하나로 육지의 모든 중생을 제도하기 위한 것으로 소리를 듣는 순간만이라도 번뇌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고 믿고 있으며 종소리를 듣고 법문(法門)을 듣는 사람은 오래도록 생사의 고해(苦海)를 넘어 불과(佛果)를 얻을 수 있다. 그 다음에 하는 것이 탑돌이인데 불자들이 절에 모여 밤새도록 탑을 돌며 부처님의 공덕을 기리고 저마다 소원을 비는 행사인데 이 아름다운 전통의 유래는 긴 세월을 이어왔다.

어쨌든 이 모든 승가의 행사들은 한해의 모든 번뇌를 버리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새해를 살아야 한다는 깊은 의미를 담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누구나 새해를 맞는 감회는 남다를 것이다. 살아온 생의 연륜에 한 살을 더한다는 의미는 과연 무엇일까? 승가에서 나이를 세는 의미는 조금 다르다. 이른바 법랍(法臘)이다. 이는 불가에서 속인이 출가해 승려가 된 해부터 세는 나이를 뜻하는데 세수와 달리 깊은 의미를 담고 있으며 좌랍(坐臘)·계랍(戒臘)·하랍(夏臘)·법세(法歲)라고도 한다.

납(臘)이란, 본래 연말에 신에게 제사지내는 것을 뜻하여 세말(歲末)을 일컫는 말인데, 출가하여 수행하는 비구(比丘)는 세속에서 12월 말을 연말로 치는 것과는 달리, 하안거(夏安居) 제도에 따라 음력 7월 15일을 연말로 하고, 안거를 마친 횟수대로 나이를 세게 되는데 이를 하랍이라고 한다. 또 수행승은 수행연수의 다과에 따라 상랍·중랍·하랍으로 분류하기도 하며, 특별히 법랍이 많은 이는 납만(臘滿)·극랍(極臘)·일랍(一臘) 등으로 부른다.

승가에서 이러한 법랍을 세는 것은 바로 나이만 먹는 '밥도둑'을 배제하기 위해서인데 요즘에는 출가 연도부터 해를 따져 법랍을 센다. 말하자면, 수행은 하지 않고 그저 밥만 얻어먹는 승가의 밥도둑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이렇듯 절집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라도 법도(法道)를 지니지 않는 게 없다. 수행자나 불자들은 이에 대한 깊은 뜻을 알아야 한다.

오늘의 주련 여행은 성륜산 용덕사이다. 이곳은 조계종 제2교구 본사인 용주사(龍珠寺)의 말사이다. 신라 문성왕 때 영거 선사(靈居禪師)가 창건하였고, 신라 말기 도선 국사(道詵國師)가 중창한 곳으로 알려져 있다.

석가여래삼존불과 고려시대의 작품으로 보이는 57위의 나한상을 봉안하고 있는 대웅전은 석가여래를 본존으로 모신 주불전으로 3×3간 규모로 다포식 팔작지붕으로 세워졌으며 정면 어간 양쪽의 기둥 상부에는 용을 조각하여 끼웠다. 양 측면 중앙의 간에는 각각 지장탱과 신중탱을 모셨는데 지장탱은 중앙에 커다랗게 지장보살을 그리고 좌우에 시왕과 그 권속들을 대칭으로 배치하였다. 지장보살은 연꽃 위, 의자에 앉아있는 반가상이다. 오른손에는 보주를 들고 있으며 통견의 법의에 영락을 늘어뜨린 모습으로 원형의 광배를 지니고 있다. 신중탱은 중앙에 위태천을 크게 그리고 그 위에 대예적금강신을 그렸으며 좌우로는 대범천과 제석천을 그렸다. 전체가 좌우대칭의 구도이며, 주변으로는 신중상을 배열하였다.

또한 용덕사는 도선 국사가 조성한 삼층석탑과 철인(鐵人) 3위 중 2위가 남아 있는 문화재의 보고이다. 대웅전 위로 나 있는 암굴 입구에는 반가사유상의 정교한 보살좌상이 있는데 이 또한 도선 국사가 조성한 것으로 전한다. 용덕사의 이름은 용의 덕택을 보았다는 설화에서 유래하는데 용굴에 얽힌 전설은 1200여 년 전 신라 문성왕 이래로 구전(口傳)되어 오고 있다. 암굴에 용이 살고 있었는데 1000년을 기다린 끝에 용이 여의주를 얻게 되었다고 한다. 마침 아버지의 병을 고치고자 암굴에서 한 처녀가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지켜 본 용은 처녀의 효심에 감탄하여 여의주를 처녀에게 주어 아버지의 병을 고치게 하였다고 한다. 이를 설명하듯 법당에는 한 마리의 우렁찬 청룡이 적옥(赤玉)을 입에 물고 몸부림을 치며 하늘로 승천하는 벽화가 남아 있다.

그럼 대웅보전 주련의 내용을 살펴보자.

'외외당당만법왕 삼십이상백천광: 높고 높아 당당하신 만법의 왕. 삼십이상으로 백천광명을 비추신다.'

상(相)이란 전생에 쌓은 공덕이 신체적인 특징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하는데 삼십이상은 부처님이나 전륜성왕(轉輪聖王)이 몸에 지니고 있었다는 삼십 두 가지의 모습이다. 불상의 이마 한가운데에 박혀 있는 보석이나 상투처럼 솟은 정수리는 불상의 전형적인 특징이다. 이중에서 이마 한가운데 있는 보석은 본래 백호(白豪)라는 하얀 털로 부처가 이를 통하여 세상에 빛을 비춘다고 하고, 상투처럼 솟아오른 정수리는 육계라고 부른다. 이러한 불상의 특징도 모두 삼십 두 가지에 이른다. 부처님이 이 삼십이상으로 만법의 제왕으로서 당당하게 중생들을 항상 보살피고 계신다는 뜻이다.

그러나 수행자라면 이러한 32상에도 집착해서는 안 된다. 형상에 집착하거나 물들지 않고 형상 그대로 공(空)임을 요달해야 한다. 그래서 <금강경>에서는 "일체의 상(相)을 떠나면 부처다(離一切相 卽名諸佛)"라고 했다. 또 "모든 형상이 상이 아님을 본다면 바로 여래를 보는 것이다(諸相非相 卽見如來)" 라고 했다.

'막위자용난득견 불이기원대도량: 자비로운 그 모습 뵙기 어렵다고 말하지 마라 기원정사 떠나지 않고 항상 이 대도량에 나투시네.'

어리석은 중생들은 부처님의 자비로운 대광명을 기다리고 있지만 만나기 힘들다고 투덜거린다. 그러나 부처님은 옛날 기원정사에 계실 때부터 현재, 미래에도 항상 우리 곁에 나투신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부처님의 광명을 만나기 위해서는 많은 공덕을 쌓아야 하고 자비를 베풀어야만 한다. 불가에서는 부처님의 출현을 시간에 따라 과거불(過去佛)·당래불(當來佛)·현재불(現在佛)로 나누기도 하는데 곧 부처님이 자비(慈悲)의 상징임을 뜻하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용덕사 대웅보전의 주련이 담고 있는 내용은 '외외당당한 32이상을 가지신 만법의 제왕인 부처님은 예나 지금이나 미래에도 항상 우리 곁에서 자비를 베풀고 있다'는 경구이다.

■ 조계종 원로의원

그믐 자정 백팔번뇌 없애는 108타종 불가의 전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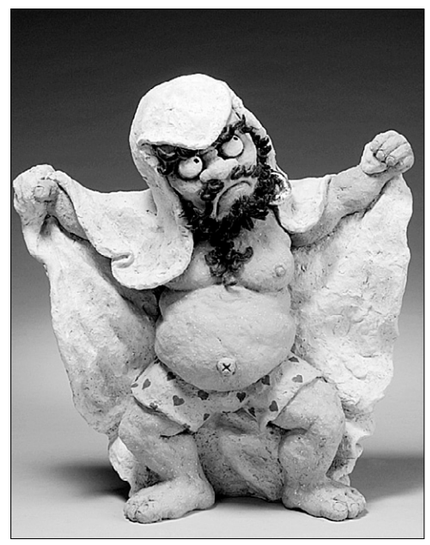
부처님은 과거 현재 미래 항상 우리 곁에 나투신다

덕산 스님의 달마록 선해
달마관심론 2

실상과 하나 되기 위해 정진

[원문]
又問曰 云何觀心 稱之爲了 答曰 菩薩摩訶薩行深般若波羅密多時 了四大五蘊 本空無我 了見自心起用 有二種差別 云何爲二 一者淨心 二者染心 其淨心者 卽是無漏眞如之心 其染心者 卽是有漏無明之心 此二種心 自然本來俱有 雖假緣和合互不相生. 淨心恒樂善因 染心常思惡業 若眞如自覺 覺不受所染則稱之爲聖 遂能遠離諸苦 證涅槃樂 若隨染造惡 受其纏覆則名之爲凡 於是沈淪三界 受種種苦 何以故 由彼染心 障眞如體故.

달마 대사께서 또 대답하셨다. "지, 수, 화, 풍의 네 가지 원소와 색, 수, 상, 행, 식의 오온이 본래 공하여 '나'가 아님을 알아야 하며 자기의 마음에 일어나는 작용이 두 가지가 있음을 알아야 하느니라. 무엇을 두 가지라 하면, 하나는 청정한 마음이고, 다른 하나는 더러운 마음이다. 청정한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없는 진여의 마음이고, 더러운 마음이라는 것은 번뇌가 있는 어리석은 마음이니라. 이 두 가지 마음은 본래부터 저절로 함께 존재하는 것이며, 어떤 인연으로 어울릴 수는 있으나 서로를 생겨나게 하지는 못하느니라. 청정한 마음은 항상 선인(善因: 선근)을 좋아하는데 더러운 마음은 항상 악업을 생각하느니라. 만일 진여를 스스로 깨달아 깨달음이 더러움에 물들지 않으면 성인이라 하는데, 마침내는 모든 괴로움을 여의고 열반의 즐거움을 받을 것이고 만일 더러움에 유혹을 받아 악을 지어 그것에 묶이고 덮이면 범인이라 하는데 삼계에 빠져 갖가지 고통을 받을 것이니라. 왜냐하면 마음이 더러움에 덮여 진여의 본체를 가렸기 때문이니라."


김영수 作 '달마' (소재 테라쿠타).

[해설]
지, 수, 화, 풍은 흙, 물, 불, 바람을 말합니다. 여러분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것은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이 빠져나가면 눈, 귀가 있어도 보지도 듣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마음이 주인이고 육신은 객(客)이라는 얘기예요. 마음의 작용이라는 것은 끊임없이 생겨요. 이것은 번뇌입니다. 지, 수, 화, 풍 네 가지 원소와 색, 수, 상, 행, 식도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왔으니까 모양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모양이 없는 것에서 나온 물질로 된 모든 것은 사실이 아니니까 언젠가는 없어지게 되어 있어요.

성현들은 청정한 마음을 쓰고 있고, 우리는 더러운 마음을 쓰고 있습니다. 실상(實相)에 마음을 두고 행하지 않는 마음은 번뇌의 작용이니 더럽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구름이 끼면 빛이 나왔다 안 나왔다 하잖아요? 태양은 언제나 빛을 내고 있지만 구름이 끼면 빛을 보지 못 합니다. 그러나 구름이 싹 사라지면 밝은 빛이 나와서 대자연에 생명을 불어넣어 줍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부처님과 같은 청정한 마음인데, 잘못된 견해로 만들어 놓은 업(業)이 불성을 가리고 있는 겁니다.

우주의 근본 실상, 하나의 마음을 진여(眞如)라 합니다. 거기에 마음을 두고 있으면 청정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청정한 마음과 더러운 마음은 본래 두 가지가 있는데, 성현들은 수행을 통해서 실상을 깨달았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쓰고 있고 우리는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청정한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 자체는 생기고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불생불멸(不生不滅; 생도 죽음도 없다)이라고도 합니다. 바로 청정한 불성(佛性)자리를 말하는 겁니다.

청정한 마음은 항상 선인(善因 : 선근)을 좋아하는데 더러운 마음은 항상 악업을 생각합니다. 우주의 근본, 진여당체에서는 좋은 인연만 생각한다는 얘깁니다. '어떻게 하면 중생을 제도하게 될까?' '어떻게 하면 괴로움에서 벗어나게 될까?' 하는 생각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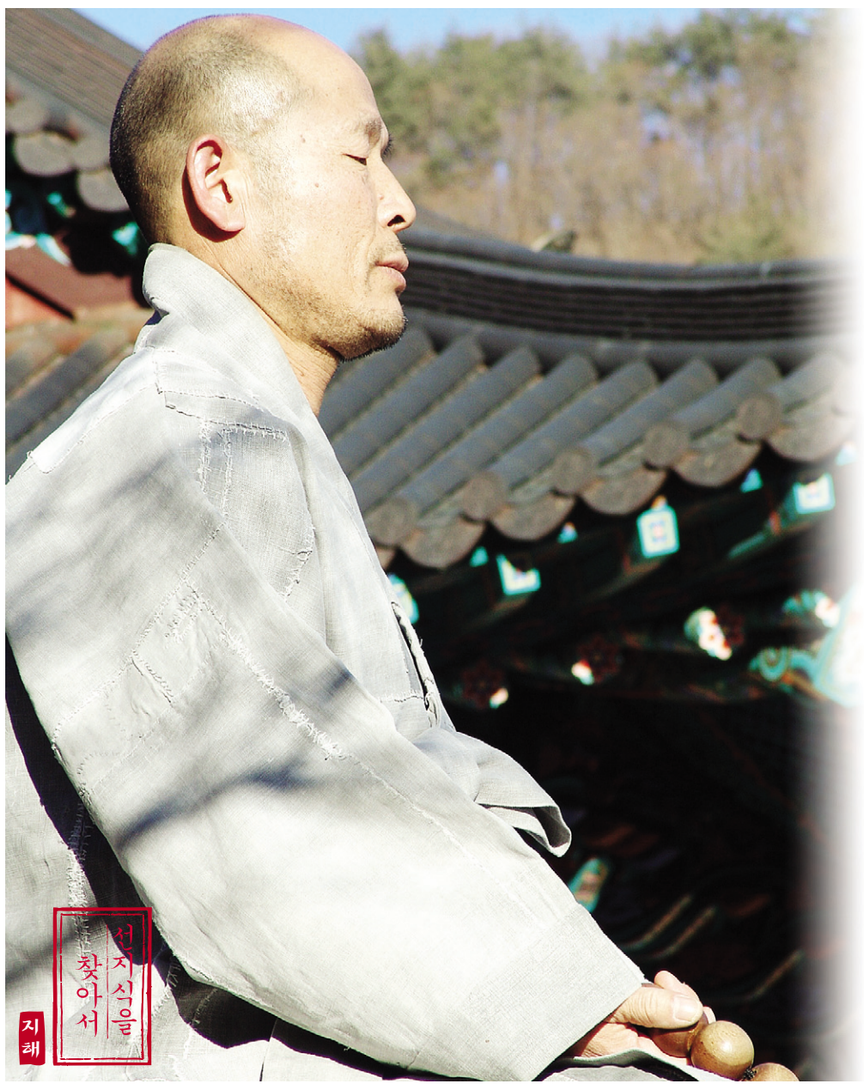
악한 마음, 나쁜 마음이라는 것은 먹고 놀기 좋아하는 이런 쪽으로 쓰는 마음을 말하는데, 업이 불성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더러운 마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실상을 바로 보지 못하고 하는 행위는 진여당체인 불성을 점점 어둡게 만들어 절대로 괴로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얘깁니다. 우리는 육신을 위주로 살아와서 정진하는 중에 힘들면 다음에 하자는 생각이 드는데, 이것이 중생놀음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예요.

근본 실상에 하나가 되기 위해서는 어렵더라도 정진의 끈은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많이 배우고 많이 가졌다고 해도 고통에서 벗어나는데는 아무런 이익이 없어요. 단 십분이라도 내 마음을 찾고자 하는 정진만이 다음 생에도 큰 힘으로 나타납니다. 수행을 통해서 법의 맛을 느끼게 되면 수행에 탄력이 붙게 됩니다. 그렇게 수행해서 득력(得力)을 하시기 바랍니다.

■ 청주 혜은사 주지

일 속에 보살의 구족한 바라밀이 있으니…



성주 도솔암 주지 지해 스님

우연히 찾아든 천상곡에 걸망 풀고 흙집 지어 정진

모든 이에 '나무불' 청정해탈하라는 발원 담아 불러

도솔암은 신라시대 어느 도승(道僧)이 당신이 깨달은 진리를 조용히 나무 하고 농사 지으며 즐기면서 지은 고반정사(考槃精舍) 터에 자리를 잡았다. '고반(考槃)'의 뜻은 '열반 · 적멸의 세계를 살핀다, 즐긴다'는 뜻이다. 모든 번뇌가 다한 적멸의 세계를 일상생활 중에서 수용한다는 의미도 담고 있다. 천상곡의 낮은 고요하여 적멸하기 그지 없고, 밤하늘은 달과 별들을 소반(小盤)에 가득 담아놓은 듯하다 하니, 절터의 유래가 의미심장하다. 예전에 있던 고반사 건물은 불에 타 없어지고 불상은 다른 절로 모셔졌다. 그후 오랜 세월이 지나서 절터 밑 산골짜기에 마을이 들어섰는데, 절 이름을 따서 고반동이라 했으며 동네 입구 산자락 암벽에 '고반동문(考槃洞門)'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 동네에 우연히 한 수좌스님이 찾아오니 주민이 무척 반겨서 하룻밤 묵게 됐다. 주민의 안내로 상곡(上谷)을 구경하다가 옛 성인의 숨결을 느껴 곧바로 걸망을 풀고 흙집을 짓고 농사 지으며 정진하게 된 스님이 바로 도솔암 주지 지해(智海) 스님이다. 스님은 주민의 간절한 바람과 스님의 구법(求法)일념과 중생을 다생(多生)의 부모로 살피는 원력으로 길상도량을 열게 된 것이다.

행자의 안내로 지해 스님을 뵙고 삼배를 올리니, 스님은 엄숙히 합장한 채 '나무 불'하고 축원을 하신다. 스님은 만나는 사람들에게 늘 '나무 불'이라고 인사하기 때문에 '나무불 스님'이란 별명을 얻었다. 스님은 '나무 불'에 모든 악을 끊고 온갖 장애에서 벗어나 청정한 마음으로 해탈하라는 의미를 담아 만나는 사람들을 축원한다.

"절터가 범상한 곳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 도량을 새로 일군 인연이 궁금합니다."

"불기 2534(1990)년 봄, 제방 선원에서 공부하다가 우연히 천상곡에 인연이 닿아 집 한 채를 얻고 밭떼기를 구해 농사를 짓기 시작했어요. 흙벽돌 2000장을 리어카로 네 달 동안 혼자 실어나르면서 흙집을 짓는데, 동네에서 매일 한 사람씩 돌아가면서 도와줘서 토굴을 잘 짓게 되었습니다. 너무나 고마워서 동네 반장님 사랑채에서 주민에게 원효 스님의 '발심수행장'을 비롯한 불경을 서당식으로 가르쳤더니, 주민이 절 일을 집안일처럼 돕게 되었습니다."

지해 스님은 3년 정도 농사를 지어보니 농사의 깊은 의미를 알게 됐고, 낮에는 밭갈고 밤에 참선 하는 주경야선(晝耕夜禪)의 수행을 이어갔다. 낮에는 생명을 가꾸면서 일을 하고 밤에는 좌선으로 피로를 풀어가며 조사선의 전통인 '노동선'을 체험한 것이다.

"일을 하면서 비로소 아! '선(禪)은 이렇게 하는거로구나' 하고 마음이 계합되었습니다. 자연으로부터 수계 받는 심정으로 허공처럼 크게, 대해처럼 넓게, 태산처럼 굳게, 태양처럼 밝게, 바람처럼 자유롭게, 대하(大河)처럼 꾸준하게 흘러가듯 나아가라는 교훈을 얻었습니다. 자연과 대화하며 도량을 가꾸는 수행으로 한가하게 살다보니 어느덧 스무해가 흘렀군요."

지해 스님은 20여 년 가까이 주경야선의 치열한 토굴수행을 하며 재가자를 위한 주말 참선정진과 산사체험법회 등을 이끌어왔지만, 수좌로서의 길에 들어선 지는 무려 40여 년에 달한다.

20세에 동화사에서 하루 2시간씩 자며 정진하던 행자시절에 진제 스님(동화사 · 해운정사 조실)을 은사로 모시게 된 지해 스님은 당대의 선지식인 진제 스님의 맏상좌로서 묵묵히 수좌의 길을 걸어왔다.

은사스님의 가르침과 수행지도, 법거량 등에 대해 질문하자, 지해 스님은 행여나 은사스님에게 누가 될까 말을 아끼며, 한 마디만 하신다.

행자 시절, 동화사 말사인 은적사로 올라가는 길에 있었던 선문답이다.

일행 중의 한 수좌가 "어떤 것이 본래인(本來人, 불성)입니까?" 하고 묻자, 진제 스님은 이렇게 답했다고 한다.

"부처도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

이 법거량을 보고 지해 스님은 스승을 더 깊이 믿고 평생 모시게 되었다고 한다.

20여년간 선방에서 정진하다가 모든 인연을 끊고 토굴수행에 몰입하게 된 이유가 궁금했다.

"젊은 시절, 선방에 입방하면 도량문을 나서지 않고 등산도 하지 않은 채 죄복 위를 떠나지 않았지요. 그러나 어느 순간, 죽비소리와 공양 목탁소리, 종성소리, 법문시간에 쫓기고 있는 자신을 돌아보게 됐어요. 나를 잊고 밖으로 쫓겨다닌 셈이지요."

깨달음에 대한 추구 역시 자칫하면 욕심과 조급함이 앞서 본심을 잃어버리고 헐떡이게 된다는 사실을 자각한 스님은 보다 철저한 수행을 위해 모든 반연을 끊고 토굴수행을 하기로 결심한다. 마침내, 천상산에 인연처를 발견한 스님은 자연을 스승, 도반, 도량으로 삼아 정진하면서 비로소 깨달음에 대한 집착마저 놓게 되었다.

"창문을 열면 하늘이 코앞에 있습니다. 하늘 보고 나 한번 보고, 일하다가도 나를 바라보는 게 습관이 됐습니다. 옛날에는 알 수 없던 마음자리를 신선하게 쳐다보게 되고 무수한 과거생 동안 지은 허물의 뿌리도 보게 되었습니다. 조석 예불 때 10악참회를 하면서 더욱 올곧게 본래의 나를 살피며 밝고 조용하게 생활하게 되었습니다. 허물을 참회하여 고쳐가면 마음의 광명이 드러나는 일이 참으로 불가사의한 일입니다."

지해 스님의 수행이력은 40여 년에 달하지만, 실제로는 그보다 한참 전이다. 출가전에 이미 심출가(心出家)를 했기 때문이다.

성주 용암초등학교 5학년 때, 지해 스님은 <도덕> 책에서 부처님의 전생담을 읽고 '목숨 보다 더 소중한 진리란 게 있구나. 나와 남이 없는 세상, 니 집 내 집이 없는 보도 듣도 못한 세상이 있구나' 하고 생각했다고 한다. 이때부터 이 어린아이는 아이들이 좋아하는 놀이를 일체 하지 않은 채 멍하니 먼 산을 쳐다보거나 책을 즐겨 읽게 됐다고 한다.

진리에 대한 어린아이의 막연한 동경심은 성주농고(현 성주고) 2학년 때 비로소 싹이 돋는다. '일체중생이 부처로구나' 하는 건방진(?) 생각이 저도 모르게 일어났다는 것이다. 소년은 일부러 비행청소년들과 어울리며 그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려고 애쓰면서 마음속으로 이런 발원을 했다고 한다. '내가 참선을 해서 깨달아 회상을 열었을 때, 이 인연으로 저 아이들도 함께 공부해 피안에 이르게 하여지이다.'

너무나 조숙했던 이 소년은 고등학교 2학년 겨울방학 때 성주 선석사로 들어가 불교공부를 하게 된다. 당시 절에는 노스님이 여러분 계셨는데, 한 스님으로부터 <초발심자경문>을, 또 한 분으로부터는 선(禪) 법문을, 또 한 분으로부터는 기도수행담과 포교에 대해 배우게 됐다. 이 때 불교의 기초를 다진 소년은 '일체중생이 부처 아닌 자 없구나'하는 인식을 하게 됐고, 밥 먹는 시간도 아까울 정도로 구도심에 불타 한시바삐 출가하리란 결심을 하게 된다. 결국 소년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선석사 주지스님의 소개로 당시에 '젊은 도인'으로 명성이 자자하던 진제 스님을 스승으로 모시게 된 것이다.

"벌써 출가한지 40년이 흘렀어요. 행자 때 광목을 떠서 만든 가사의 본래 천이 조금밖에 남지 않고 새로 기운 천 조각이 대부분이 되었어요. 이처럼 무상한 것이 인생이요, 천 조각처럼 떨어져 나간 것이 자존심(我相)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금생을 헛 살았으니, 내생에는 한 조각 마음광명으로 먼지 없는 구도의 길을 걸으리라 재발심을 하게 됩니다."

구탑 19일, 도량을 일군지 19년만에 대웅전 삼존불 점안식을 봉행한 도솔암이 새로 지은 절임에도 수 천년 지난 도량처럼 무게감을 갖는 것은 신도와 주민이 하나 되어 무량한 공덕의 탑을 쌓기 때문이리라. 도대체 주경야선, 노동선은 어떤 것이길래 야박하기로 소문난 사하촌 주민의 마음까지 움직인 것

지해 스님은 …

1950년 경북 성주에서 태어나 20세에 동화사에서 진제 스님(동화사 조실)을 은사로 출가해 통도사에서 월하 스님을 계사로 비구계를 수지했다. 해인사, 동화사, 봉암사, 통도사, 수도암 등 제방선원에서 정진한 스님은 은사스님 뜻에 따라 잠시 선학원 중앙선원장과 부산 해운정사 주지를 역임하기도 했다. 1990년부터 도솔암을 복원한 스님은 현재 산사체험법회와 주말철야정진 등을 통해 전국에서 찾아오는 수행자를 지도하고 있다. 저서에 <마음의 고향에 돌아가야 하리> <세상에서 참 행복한 사람> <도솔암 이야기> 등이 있다.

2009년의 한 해가 기우는 구탑 26일. 도솔암 가는 길은 다사다난했던 한 해를 차분히 정리하는 여정이 될듯 싶었다. 처음 마주하는 길은 길 위에서 태어나 길에서 법을 전하다 길 위에서 열반하신 부처님 제자들에게는 언제나 구도(求道)의 상징 그 자체다. 길 위에서 길을 묻는 구도자에게 길은 삶 자체이자 깨달음의 종착점을 간직한 마음의 고향이기도 하다.

마침내, 네비게이션이 안내한 도착지점인 금수면 영천리에서 천상산(天上山) 천상곡(天上谷) 골짜기로 들어가니 신천지가 펼쳐진다. 천상산은 마치 저 하늘세계에 동방 지국천, 남방 증장천, 서방 광목천, 북방 비사문천이 도솔천을 받들어 옹호하듯이 동 금오, 남 가야, 서 불령, 북 황악산으로 에워싸여져 있었다. 천상곡 위쪽에 자리잡은 도솔암은 좌청룡 우백호가 옹호한듯한 산세가 범상치 않은 도량임이 저절로 느껴진다.

육바라밀 실천이 생활속 참선



일까. 그 요령은 일을 하면서 6바라밀을 온전히 실천하는데 있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일을 피해서는 안됩니다. 일이 곧 삶이 아니던가요. 일속에 보살의 구족한 바라밀이 있으니 성실히, 즐거이 일을 함에 모든 덕이 얻어집니다. 성실히 일하는 것이 모든 이웃을 이익 되게 하고 나의 삶을 윤택하게 하니 보시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신구의(身口意) 삼업(三業)이 단정하고 깨끗해 지계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널리 이해하며 참고 견디는 마음이 이루어지니 인욕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역경에 굴하지 않고 꾸준히 게으름 없이 노력하니 정진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잡념이 없어 일념이 흩어지지 않나니 선정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성실히 일하는 동안 막히고 힘들 때 지혜를 내어 해결하니 지혜바라밀이 성취됩니다."

지해 스님이 가르치는 참선은 행주좌와 어묵동정이 한결같이 바라밀행으로 이어지는 지혜와 자비가 구족된 살아있는 공부였다. 그래서 6바라밀의 실천은 생활속의 참선이 될 수 밖에 없다. "보시로써 복밭을 일구고, 지계로써 심신을 깨끗이 하며, 인욕으로 이 마음 편안히 하고, 부지런히 도 닦으며 정진하고, 항상 마음을 비워 선정을 이루고, 모든 인연 밝게 비춰 큰 지혜가 납니다."

일과 수행이 둘이 아닌 도솔암의 수행 원칙은 조석 참회예불과 일상속 육바라밀 수행, 주경야선 실천, '불조의 원력행'(佛祖願行) 학습 등으로 이뤄진다. 새벽과 오전은 참회예불과 참선을 하고, 오후에는 2~3시간 울력을 한다. 스님뿐만 아니라 절에 상주하거나 일시 머무는 대중은 모두 울력에 동참한다. 3천 평이 넘는 밭은 스님과 마을 주민이 무보수로 가꾼다. 절은 마을 사람들의 휴식처이자 일터로서, 수확한 작물들은 함께 나누는 기쁨도 누린다. 최소한의 것으로 근검절약하며 살되, 남은 것은 오직 도량을 장엄하며 사사 공양으로 수행대중을 외호하고, 모든 이웃에 부처님 자비를 회향하는데 쓴다.

이렇듯, 주민은 물론 신도들과 먼 곳에서 찾아오는 불자들을 평등하고 편안하게 대하다 보니 도솔암은 어느새 전국에서 소문난 수행처이자 쉼터가 됐다. 병고에 시달리고 실의에 빠진 이들, 어쩌다 무명(無明)에 사로잡혀 도덕성을 잃고 악업 속에서 고뇌하는 이들, 집착을 버리고 꿈에서 깨어나 바른 길을 찾아 수행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두루 찾아와 귀의할만한 곳이다.

하지만, 천상곡을 벗어나면 재가불자들은 다시 온갖 경계와 마주하며 결코 만만치 않은 공부를 지어가야 한다. 절에서 공부하던 때의 환희심과 자신감은 또다시 어디로 사라지고 세상사에 끌려다니며 욕망의 노예가 되어 헐떡일 수 밖에 없는 게 다수 재가불자들의 현실이다. 하기에 바쁜 일상사 속에서 마음공부하는 요체를 여쭙지 않을 수 없었다.

"마음이 삿되려고 할 때 그것을 따르지 말고, 마음이 음탕하려 할 때, 생각이 약해지려 할 때, 생각이 부귀해지려 할 때도 그것을 따르지 마십시오. 마음을 단속해 마음이 사람을 따르게 할지언정 사람이 마음을 따르게 하지 마세요. 마음은 사람을 그릇되게 만들고, 사람을 죽이기도 합니다. 마음이 아라한도 되고 하늘도 되며 축생도 되고 지옥도 되고 아귀도 되는 것이니,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마음이 만드는 것입니다."

지해 스님은 수행자는 깨끗한 마음, 사유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당부한다.

"깨끗한 마음을 가지면 지혜가 생길 것이며, 마음에 지혜가 열리면 앎이 열립니다. 음욕을 생각하지 않고 미움을 생각하지 않으며 삿된 생각을 갖지 않으면 마음이 열립니다.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길은 생각하는 마음, 지혜로운 마음이니 음욕과 성냄이 없게 되어 마음을 깨끗이 하는 도를 얻게 됩니다."

지해 스님의 고요하고 차분한 음성은 짧은 말속에 무궁무진한 진실을 담은 듯 했다. 인터뷰를 사양하던 스님의 하심(下心)을 상심(上心)으로 만들려 한 필자의 조작심도 스님의 천진(天眞)한 무심을 오염시킬 수 없는 노릇이다. 스님이 차를 나누며 들려준 설법도 귀한 법문이려니와 말없는 미소와 행동 하나하나가 법의 문을 여는 선지식의 지혜작용임을 실감했다. 알아들을 수 없는 선문답이 아닌, 일상의 용어로 전하는 스님의 선법문에는 '평상심이 도(平常心是道)'인 조사선의 도리가 녹아있다.

진실한 언행은 편안한 가정 이루고
깨끗한 마음 밝은 미소 만복을 부르네
정성 모아 이웃 위함이 바로 사람의 길이니
가고 오고 말하는 가운데 본심을 잃지 말라.

지해 스님이 필자를 배웅하며 건네준 선시집은 오늘을 사는 사람들이 걸어야 할 지혜의 길을 친절하게 안내하고 있다.

"내 앞에 이르른 일 즐거이 정성으로 임하고 무심의 낙에 자유로이 노니소서."

이와 같은 무념(無念) 바라밀행으로 일하고 설법하며 정진하는 스님의 삶은 필자와 같은 생활인들에게는 구구절절 가슴이 와닿는 생활선법문을 제시하고 있음을 느꼈다. 도솔암(www.edosolam.com)의 산사체험법회(매월 셋째 토~일요일)와 계절별 수련법회, 정기법회를 통해 심신을 재충전하고 번잡한 일상속에서도 여여하게 수행하는 재가불자들이 무수히 쏟아지기를 발원하며 천상산을 발걸음도 가볍게 내려왔다.

김성우 기자



활안 스님의 내가 만난 선지식 禪

76. 소산 우정상 교수

소산(疏山) 대선사의 본명은 우정상(禹貞相, 1917~1966)이다. 1960년대 우리들이 동국대학교에 들어갔을 때 가장 패기 있고 명성 있는 교수가 여러분 계셨지만 역사학자로서는 우정상 교수를 치고, 교리담당으로는 황성기 교수를 손꼽았다.

"나는 사천 사람이며, 1936년 20세로 양산 통도사 구암 스님께 득도(得度)하고 거기서 강원을 나왔기 때문에 중앙불전과 혜화전문을 거쳐 일본 교토 임제대학(京都 臨濟大學)을 구경하게 되었지."

선학(禪學)을 전공한 4년간의 유학생활은 소산에게 커다란 사상적 영향을 미쳤다. 특히 당시 임제대학에서 서산 대사의 <선가귀감>을 교재로 학생들에게 선(禪)을 가르친 사실은 소산이 불교학에 매진하게 한 발심의 계기가 되었다. 그는 서산 대사의 훌륭한 가르침이 일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감탄함과 동시에 우리나라 스님의 가르침을 일본까지 와서 공부해야 하는 현실에 대해 개탄했다. 조국이 식민지로 전락한 상황이기에 유학생인 소산은 당신의 모든 울분과 열정을 불학 연찬에 쏟았다. 그가 훗날 평생에 걸쳐 서산 대사 연구와 조선불교 연구에 전념한 것은 모두 유학시절의 경험과 원력이 크게 작용했다는 후문이다.

소산 우정상 교수님은 때로 텁텁한 농주(農酒)에 얼굴이 불그스레 했지만, 6.25 한국전쟁 피난 때 일까지 안 나오는 이야기가 없었다.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싶어서 더 자주 자리를 마련하고 모셨다.

"내가 이번에 큰 일 날 뻔 했거든. 불교문화연구소 간사로 있으면서 8만 대장경 영인본을 만들고 있는데, 무슨 글자가 잘못 된 것 같아 고쳐놓고 일어서려는데, 갑자기 책 더미가 무너지면서 머리가 깨졌어. 주르르 흐르는 피를 지혈시키고 나를 친 책을 찾고 보니 바로 그 책에 그 경전의 원문이 있어 대조해 보니 글자가 틀리지 않았단 말이야. 옛 사람들이 경전을 만들 때는 필수가 있고, 교정인이 있고, 또 증사가 있어 몇 번씩 교정하였는데 짧은 생각에 의해 고쳐놓고 보니 여러 선배들이 나를 야단친 거 였어. 그래서 그 뒤부터는 절대로 사사로운 견해로 경전을 보지 않네."



우정상 교수님은 경기대학교 부교수로 있으면서 동국대학교 교무과장을 역임하였는데, 이듬해(1955) 육군사관학교 불교부가 생기면서 지도교수가 되기도 하였다. 이것이 장차 10년 후에 군승불교가 창설되게 된 동기이다.

교수님은 불교문화연구소 간사, 중앙도서관장을 맡으면서 많은 저서를 남기게 되었는데, 특히 <조선전기 불교사상연구>와 <교양불교>, 고려대장경 영인본 편집은 불후의 작품이며, 공저로는 <한국불교사> <한국의 인간상>이 있다. <원각사탑파(圓覺寺塔婆)의 사상적 연구><이조불교의 호국사상연구>는 후배들에게 깊은 감명을 준 논문이다.

한번은 원각사 사지에 직접 가서 13층탑의 사상적 배경을 <원각경> 12보살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모든 사람들이 감격했으며, '남한산성 의승군 방번철에 대한 연구'를 발표할 때는 의분의 눈물을 흘리기도 하였다. 성급하면서도 소탈하고, 세밀하면서도 스케일이 광대원만하여 선교양종(禪敎兩宗)을 두루 공부하셨기 때문에 그렇지 않을까 생각 되었는데, 불행이도 1966년 50세의 짧은 나이에 열반에 들어 후배들을 안타깝게 하였다.

"이 태왕(太王: 이성계)은 불교신자다. 어떤 사람은 이 태왕이 배불(排佛)정책을 썼다고 하는데 정도전 처럼 친명파(親明派) 학자들 때문에 배불정책이 이루어지게 된 것이다."

이 말씀을 듣고 북한산 태고사 태고보우 국사 비문을 찾아가 보니 정몽주, 정도전, 이 태조까지도 태고보우 국사의 제자로 되어 있었다. 세종대왕이 내불전을 짓고 비구니스님들을 청해 법문을 듣고 장악원에게 찬불가를 지으라 하며 손수 지은 찬불가곡 27종은 현재까지도 살아있다.

육군사관학교 불교부 지도교수… 군승불교 창설 원조

회룡사에서 무학 대사와의 이야기는 일찍이 세상에 널리 알려진 일이지만 조선조 500년 역사 가운데 거의 300년 역사가 안(불교), 밖(유교)이 다른 종교 신앙을 했으나 진짜 종교로서의 면목은 태조, 세종, 세조의 역사를 보아야 안다고 하였다.

이 태조가 성충 스님을 시켜 불교 내전과목을 편찬하게 한 것은 조선불교를 보다 새롭게 정립코자 할 목적이었다. 그러나 불교 내부의 갈등과 유생들의 불같은 성화 때문에 성사를 이루지는 못했으나, 그래도 그 때 조직된 교과목이 지금까지 사찰 강원교재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보면 불교의 철학과 사상이 얼마나 깊고 견고한가를 짐작할 수 있다 강조하셨다.

김옥암 교수가 쓰는

자족의 경제학 <29>

불교경제학의 소비관은 '소욕지족' 주창

경제학자 그 누구도 욕망 억제 주장한 적 없어… 욕망의 팽창만 논의

현대사회에서는 소비자가 생산자의 목소리를 압도하기 쉽다. 어린애가 어머니의 젖을 찾는 모습을 보면, 인간의 근본도 생산이 아니라 우선 소비라고 생각해도 좋은 것이 아닐까 싶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기 직전에 젖죽을 입에 넣은 것을 본다면, 부처님 역시 소비자였지 생산자는 아니었던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경제활동의 근본은 소비라고 생각해도 좋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소비의 원인은 무엇인가? 그것은 물론 욕망 때문이다. 그 하나는 개체 보존욕(식욕)이며, 또 하나는 종족 보존욕(성욕)이다.

불교는 일반적으로 모든 욕망을 눈앞의 적(敵)으로 하라는 가르침 처럼 생각될 수 있지만, 결코 인간의 근원적인 욕망까지 부정하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이 근원적인 욕망은 우리들이 생존하는 한 완전히 끊을 수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 만큼 이 두 가지 근원적인 욕망에 대해서 지나치게 엄격한 잣대나 도덕적인 기준을 적용하지는 말라는 의미이다. 불교수행에서 단지 경계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은 자아의식 즉, '말나식(末那識)'과 결부된 자기중심욕이다. 욕망이 자기중심욕과 결부되면, 때로는 불교 최대의 계율인 살생계(殺生戒)를 범하기까지에 이른다. 이와 같이 욕망과 자기중심욕이 결부된 모습을, 불교에서는 '자아에로의 포로(囚人)' 즉, 아집(아트마구라스)이라 부르고 가장 경계하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구경제학은 인간의 욕망을 중세의 가톨릭 교회의 질곡으로부터 해방되는 시기에 발생한 배경도 있고 해서, 욕망에 관해서는 관대한 태도를 취하고 있다. 어쩌면 욕망은 경제활동의 원동력으로서 높게 평가돼 왔다고도 해석된다.

그런데 유럽공동체(EU)의 위원장이었던 맨스필드가 재임 중에 파리에서 열린 유네스코의 회의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했다.

"인류가 지구자원 · 환경문제를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인구 및 욕망을 억제하지 않으면 안된다."

이것은 정말로 중대한 역사적인 발언이다. 경제학사상 이제까지 인구(人口)에 관해서는 유명한 T.R 맬더스의 인구억제론이나 K. 마르크스의 반론으로부터 수 차의 세계인구회의에 이르기까지 일관된 논의의 대상이 되어왔다. 그런데 욕망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경제학을 포함해 누구 한 사람 그 억제를 주장한 사람은 없었다. 욕망이 논의의 중심이 된 때는 어떠한 경제체제가 보다 많은 욕망을 보다 널리 공평하게 충족시킬 수 있을까 하는 것만을 논의해 온 것에 지나지 않는다.

불교경제학의 소비관은 바로 욕망의 억제 즉, '소욕지족(少欲知足)'을 주창하고 있다. '소욕지족'의 정신은 부처님의 가르침인 '자족(自足)함을 알자'는 데 있다. 석존은 "만일 족한 것을 알게 되면 몸은 비록 사바(沙婆=苦海)에 처해 있더라도 희락을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자족하지 못하면 천국에 살더라도 만족함을 모르고 항상 물욕에 끌려서 희락을 모르는 법이다. 그렇기 때문에 족함을 모르는 자는 풍족하면서도 가난하고, 족함을 아는 자는 가난하면서도 부(富)하다고 할 것이다"고 설하셨다.

그런데 만일 부처님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족(足)함을 알았다면 소비는 침체되어 금세 경제는 마이너스성장이나 저성장이 돼 버리고 말 것이라고 경제인은 우려하기도 할 것이다. 그러나 탐심을 억제하는 길은 자족하는 법을 배우는 것이다. 공자님도 '곡굉이침지 낙역재기중(曲肱而枕之 樂亦在其中)' 즉, "나물 먹고 물 마시고 팔을 베고 누웠으니 즐거움이 그 속에 있다"고 하여 자족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던 것이다.

소비의 원천은 소득이다. 보통, 소득의 일부가 세금으로서 국가에 납부되고 나머지 소득(가처분소득)은 저축과 소비로 돌려진다. 그러므로 소비는 가처분소득에서 얼마만큼 소비로 돌아가는가(소비성향)가 관건이 된다. 지구자원 및 환경문제를 생각할 때, 지금은 평균소비성향을 낮추어 웬만큼의 저성장을 각오하지 않고서는 지구를 위기에서 구할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런데 불교의 소비에 대한 자세는 어떤가?

각지에서 불교문화가 꽃이 피었을 때 건축물이 그 화려함을 다투어 훌륭한 불상이나 사원이 건립된 예는 적지 않다. 불상을 보면 여래(如來)는 옷을 입고 있지 않지만, 보살은 영락이라고 하는 악세사리를 몸에 걸치고 있다. 아마 이것은 재가신자에 걸맞게 몸을 장식하는 것이 당연시 되고 있었던 증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초기불교성전에도 가정에서 남편이 갖추어야할 태도로서 "남편은 아내에 대해 존경심과 예절과 정조를 지니고 부드럽게 대하며, 가정 살림살이를 책임지도록 하기 위해서 때때로 보석 등 장식품을 베풀어 주어야 한다"고 설하고 있다.

여기서 부처님 생전의 초기 불교 승단의 경제에 관한 엄격하면서도 의미 있는 소비자세를 소개해보자.

아난다(阿難多)가 우다야 왕비 샤마비아티로부터 5백 벌의 의복을 공양 받았을 때, 아난다는 이것을 흔쾌히 받아들였다. 왕은 이것을 보고 아난다가 혹시 탐하는 마음(貪心)에서 받은 것은 아닌가 하고 의심했다. 왕은 아난다를 방문하여 물었다.

"존자는 5백 벌이나 되는 옷을 한 번에 받아 어디다 어떻게 쓸려고 하십니까?"

아난다는 대답했다. "대왕이시여! 많은 비구(比丘)들이 낡아 헤어진 옷을 입고 있기 때문에 그들에게 이 옷을 나누어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헤어진 옷은 어떻게 합니까?"

"헤어진 옷으로 요시트를 만듭니다."

"요시트가 낡아지면?"

"베개부대로 쓰지요."

"그러면 낡아진 베개부대는?"

"병상의 깔개로 씁니다."

"병상 깔개가 낡아지면?"

"발 덮개를 만듭니다."

"발 덮개가 낡아지면 어떻게 합니까?"

"걸레로 씁니다."

"낡아진 걸레는?"

"대왕이시여! 저희들은 이 걸레를 잘게 썰어서 진흙에다 섞은 다음 이것을 집을 지을 때 벽속에 넣습니다."

모든 물건은 소중하게 쓰여지지 않으면 안된다. 될 수 있는 한 살려서 재활용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이 본래 '내 것'이 아니며, 이 세상의 존재로서 나에게 맡겨진 물건을 사용하는 방법이다. '내게 맡겨진 물건'이라고 하는 생각은 우주로부터 맡겨진 것이라는 의미이다. 소욕지족과 자족의 절제된 생활경제는 이와 같은 원시 불교승단의 소비태도와 결코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 안동대 경제학과 교수

㉙ 상호의존성에 주목하라

허달의 불교와 코칭

모든 존재는 '관계'에 의지한다

몇몇 가까운 코치들이 모여서 하는 친목 겸 학술 모임이 있다. 금년 송년모임으로는 모처럼 호사를 좀 해보자는데 의기투합해서, 모 호텔 부페식당에서 아침 겸 점심을 들기로 하고 모였다.

브런치 하면 생각나는 것이 미국 남부 재즈의 고향으로 알려진 뉴올린즈의 프렌치 쿼터에 있는 브레넌 식당의 유명한 아침식사이다. 이 프렌치 쿼터라는 거리는 기본적으로 청교도 나라인 미국의 다른 지역과는 차별화 하여, 취객이 만취가 되어도 흉이 되지 않는 거리라고 해서, 술꾼들의 천국이라고 불리는 곳이다. 모처럼의 해방구를 찾은 술꾼들이 전날 밤 과음의 업보인 쓰린 위장을 안고 찾는 식당이 브레넌 식당인데, 굴 요리와 게 요리 그리고 다채로운 달걀요리가 가게의 자랑이었고, 아침 식사임에도 불구하고 요리마다 추천 와인이 따른 메뉴를 제공하여 '과연' 하고 미소를 머금었던 일이 기억 난다.

모임 날의 브런치는 부페였지만, 정갈하고 깔끔한 초밥, 이태리 식의 야채볶음과 조갯살 요리, 생굴과 올리브유에 데친 해산물 요리 등을 아침부터 샴페인, 백포도주 등 음료와 곁들여 브레넌 식당 못지 않게 훌륭하게 즐길 수 있었다.

음식과 음료를 즐기다 보니 화제는 과식, 체중조절 특히 여성 코치들의 왕성한 식욕과 몸매 유지 비결 등으로 다양하게 전개되었다. 최근 다녀온 인도의 미투나(Mithuna) 조각상에서 발견되는 미인 척도(尺度)나 옛 중국 당삼채(唐三彩)에 표현되는 미인 척도가 모두 요즘 기준으로 보면 비만에 가까운 푸근한 몸매를 최고의 이상형으로 매김하고 있음을 상기시키고, 다산(多産)의 풍성함을 예감하는 아름다움을 이야기 했지만 여성 코치들은 별로 감동(?) 받지 않은 것 같았다. 코치들이 예로 든 코칭 사례 중에는 의외로 영양과 건강, 다이어트 등에 관한 라이프 코칭이 많았는데, 다이어트로 시작된 코칭이 결국은 '어떤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본질적인 문제로 발전하여 해결책을 찾게 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고 한다.

삶, 존재 등에 대한 창조론과 대비해 금세기 최고의 다윈론자로 불리는 리챠드 도킨스의 많이 읽히는 최근 저서 <지상 최대의 쇼> 등도 언급되었는데, 삶과 죽음에 대한 그의 표현이 재미있어 내가 소개하였다.

"우리는 죽음을 향해 가고 있다. 역설적이지만 이 말은 우리가 행운을 타고난 존재라는 말도 된다. 우리가 상정하는 대부분의 잠재적 존재들은 죽음을 경험하는 행운을 갖지 못한다. 그들은 태어난 적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 여기 이 자리에 나를 대신하여 존재할 수도 있었으나 실제로는 결코 삶을 성취하지 못한 잠재적 존재들의 숫자는 아라비아 사막의 모래숫자 보다 많다."

달리 표현하면 이렇게 여기 있는 개개인의 존재 확률이 과학적 잣대로 보아 기적에 가깝다는 의미이겠는데, 이 낮은 개연성이 자아에 집착하는 사람들에게는 창조론의 빌미가 된다. 그러나 대혜 선사의 행장을 기록한 <서장(書狀)>을 참고하면, 아래와 같은 이참정의 게송(出相頌)으로 읊어지게 된다.

눈가죽으로 삼천 대천 세계를 덮고/ 콧구멍에 백억 화신을 가두네/ 개개가 장부이니 뉘라서 굴복할 것인가/ 청천백일에 사람을 속이지 말지라.

도킨스가 과학적 사실을 냉정하지만 다소 시니칼하게 서술하고 있음에 비추어, 이참정의 이 게송은 주객(主客)을 떠난 다른 차원의 어떤 의미를 보여준다.

"부처가 하신 말씀, 너희들 모두가 곧 이미 이룬 부처라는 말씀을 한 치 의혹 없이 굳게 믿은 것이니, 이로써 깨닫는 자리에 나아가 부처님의 은혜를 갚은 것이다." <서장>을 공부하던 언젠가 어설픈 자작 해설을 잔글씨로 책갈피에 써두었던 기억이 난다.

어떤 코치는 삶과 죽음에 대하여, 창조론에도 일리가 있다 하겠으나 패자 부활전이 없는 것이 문제 아니겠느냐는 재미있는 의견을 피력하였다. 인과률(因果律)이란 과학이며, 어떤 경우에도 원인이 있으면 그 과보(果報)가 있어야 한다는 것인데, 창조론을 따르다 보면 죽음이 인과법칙의 이행을 거부하는 모순을 낳게 된다는 점에 그의 생각이 이르게 된 것이었다. 그래서 인과(因果, cause and effect)와 연기(緣起, conditioned genesis)의 과학이야기가 잠시 더 이어지는 화제가 되었다. 이들에게 연기를 설명하기 위해 내가 원용했던 고려대 물리학과 양형진 교수의 글 '물리학을 통해 보는 불교의 중심사상' 중 연기와 상의성에 대한 내용을 요약해 이 날 있었던 코치들의 송년회 소묘(素描)를 끝맺는다.

"연기론의 핵심 의미는 상호의존성, 줄여서 상의성(相依性)인데, 이에 대한 유명한 비유가 <갈대경(蘆經)>에서의 세 개의 서로 의지하고 선 갈대묶음에 대한 것이다. 물 분자가 물의 성질을 가질 수 있는 것은 하나의 산소 원자와 두 개의 수소 원자가 서로 의지해야만 가능하다는 것과 같다. 물질계뿐 아니라 인간 관계도 그러하다. '나는 누구인가?' 라는 코칭 질문을 살펴보자. 결국 모든 존재는 다른 무언가와의 관계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존재할 수 없다. 이것이 상의성이다." ■ 한국코칭센터 고문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립니다
천도재 · 49재회향 · 바라무 · 점안식 · 범음범패
이 인연으로 성불의 씨앗 되소서
011-850-0176

대한불교 대승선교 조계종
※위종단은 비구니(여승)종단 입니다
- 비구니 종단 등록
- 사찰 등록
- 비구니스님이 되고저 원하시는분

서울 총무원 02)579-3690
연락처 010-2606-5121

국제불교지도자 협회
종단기입 및 봉사단 회원 모집
일불 제자의 기치로 사찰 운영 및 모든 행사에 품앗이 정신으로 함께하고자 합니다
종단을 불문, 불교인이면 누구나 환영
전화 02)733-5665

천도재 구병시식 49재
수시 접수 中
태중 아기 영가 (낙태 유산)
49재 천도 전문도량
서울시 노원구 중계4동 약천사 자운 합장
02)3391-8523
011-9002-8523
문의하시면 성심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교범음범패 교육도량
학인모집 실전위주교육
범음범패 바라 나비무 회심곡
사찰행사전문
천도재 49재 점안식 회심곡
011-9317-6686
금정사 대명 합장(부산 · 울산)

역학 · 빙의 · 퇴마
짧은 시간에 속성으로 실전 위주로 확실하게 비법을 개인지도 함
역학 : 귀신 메는 명리 (통변 가능한 분)
사주, 신수, 궁합, 택일, 사성, 작명
최면 : 전생요법, 빙의, 퇴마
(보경사 주지스님 직강)
051)333-3258
011-591-5277

불교전통(범음,범패)
불공 해드립니다
49재(입제 · 회향), 천도재,
점안, 예수재, 수륙재,
각종불공(바라, 작법)
010-2200-8176

역학 · 빙의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역학 : 사주,궁합,택일,성명학
2.최면,전생요법,귀신들린병 퇴마
3.일반과정,속성과정(출장지도가)
4.빙의,전생,우울,공포증,상담
011-772-4606
031)842-8023
의정부 비룡정사 제행스님

영산 중요무형문화재 50호 전수
범음범패 바라무 나비춤
천도재 49재 구병시식 전문
02)802-8554
017-219-4757
서울 금천구 시흥본동 885-6
대흥사 주지 연암 합장
선망부모 천도재는 간절한 정성기도
사주, 명리 상담해 드립니다

저렴하게 불공해 드립니다
49재, 천도재, 점안식
바라무, 작법무,
살풀이, 범음범패
010-3590-7596
019-688-9885

범음 • 범패
실전위주 학인 모집
각종 사찰행사 전문
일행정사 (서울, 경기)
010-6569-1010

각종 불공 범음 · 범패전문
점안식, 49재, 천도재, 구병시식
예수재, 수륙재, 불교의식, 사물,
바라나비춤, 명리, 주역, 활법
실전 위주 교육. 학인행자모집
031)953-3328
011-9923-3329
대광명사 (동양불교대학)

역학 · 빙의 · 퇴마
개인지도,직접상담
1. 빙의, 전생, 우울, 가위눌림
2. 역학, 사주, 궁합, 택일, 성명학
3. 속성과정 (출장지도 가능)
4. 신들림병 상담환영
5. 스님에 한해 특별 할인혜택
010-2484-5001
031)943-8094

빙의 퇴마 전문치료
수시접수 中
병원에 가도 병명이 나오지 않는 분
악령에 시달려 머리가 자주 아픈 분
신병, 빙의로 신내림 받아야 할 분
지장사 주지 광덕 합장
032)261-8425
010-7335-8425
정성껏 상담해 드립니다

불자결혼 상담소
국내 : 초혼, 재혼, 친구, 연인
국제 : 필리핀, 베트남, 한족
성실男 미모女 상담환영.
30대女 무료, 70세까지 (남녀)
아현역 2번출구 (원갑사)
02)365-1345
010-9114-4345

김 현산 작명 역리원
⊙ 작명 ⊙ 사주 ⊙ 운명철학상담
전국 불자님 전화, 우편상담 환영
사주학 기초부터 개업까지 책임지도
기초과정 후 간명비법 전수
110-320 서울 종로구 낙원동 176번지 (3층)
종로3가역 ① 번출구 직진 낙원상가
방면 미투리의상실 3층
010-9113-8545 김현산
02)741-8449 역리원

오미자 원액 차 진오미자
준고랭지
친환경단체 일원
차 중의 으뜸
017-503-3362 토굴

만물 만능 氣 잡기
사물의 진가, 정부정책, 마음의 진위,
사업성패, 미래예측, 기풍수,
기사주, 원격투시, 내게 맞는 것 찾기,
영가상태, 만물 만능치유, 운명개척 등
수치까지 확인.
시중철학이 아닌 100% 과학
누구나 쉽고 간편한 방법. 효능은 무궁
016-606-5658

범음 • 범패
노스님 시봉하며
함께 지내실
법당보살 및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불심있는 50-60대, 경주지역 사찰
011-534-3345

부전스님 모십니다
▷학천사 총무원,부산 영남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거창)
070-8791-7845

비구니 부전스님 모십니다
▷북한산성
02)387-3216

비구 부전스님 모십니다
▷인천
032)522-8131

공양주 구함
대한불교조계종 지장대사
(전남 여수시 소재)
* 주변에 아시는 분 계시면 소개를 부탁합니다.
061)644-1244
010-4442-6789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양평군 용문면, 40-50대
010-8922-1168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경기 성남
011-279-0024

공양주 보살님 모십니다
▷보시금 상담 후 결정
010-3188-5103

28숙기도 (대방등 대집경)
● 기도법을 배우려는 스님, 법당을 모신 보살
● 위치 : 백선사 절 (지하철 1호선 부천역 하차)
☎ 032)664-0048 / 011-741-0867

칭기스칸 대학교
한국캠퍼스 한국불교승가대학 세계화교육
chinggis khaan university
• 정규과정 : 2년제, 4년제 편입학 가능 • 전문과정 : 1년제입학 종교학 (불교문화 학과)
• 강 사 진 : 석사, 박사 12명. 특강
• 과 목 : 종교학, 사회복지학과, 정치외교학과, 불교학, 경영학과, 교육학과, 철학과
• 특 전 : 전세계 대학 편입학 인정, 학비저렴, 시간여유
학교법인 김해대학교육원 강의실 kaya university life education
불교종립 불교문화대학원
학무처 : 0502-788-0808, 055-338-0050, 011-801-8197

고유번호 비영리 단체등록증
2010년 3월 23일까지 우편접수.
법당 없어도 단체장 주지임명. 포교당 신행단체 희망자 우선.
사진, 임차계약서, 신분증사본, 도장
충북 영동 용산 율리 208번지
만불사 (사)조계종 만불교 043)745-3010

큰 법력으로 사물, 바라, 살풀이 무,
극락무 등 시연과 함께 우리말, 한문
등을 마음대로 구사하여 재자와 영가
를 동시에 해탈케하는 정말 신실나는
천도재, 49재 및 불상 불화 점안,
각종 불공의식 저렴한 보시금으로
여법하게 집전하여 드리오니
믿고 청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011-854-8107
50대 초반 비구승 무불 합장

잠시 · 한 · 두달 · 100일
산사에서... 참선,
쉬고 싶으신 분,
기도하고 싶으신 분
오십시오. ○○○주인공?
031)674-7188 백마사
033)441-0664 장안사

체용 사주원리 요해 무료강좌
▶강사 : 김영진 선생님 (故 이석영 선생님 제자)
▶일시 : 2010년 1월 9일 (토요일) 시작
(오후 2-5시까지)
전화 : 02)306-7988 / 010-5624-1365
수색 광복사

유 명 표 구 사
불자가 운영하는 유명표구사에서는 불자님은 물론
스님의 작품을 삼보전에 공양 올리듯 정성껏 표구해 드립니다.
대표장인 이 종 부 합장
문의 ☎ 02)374-9886
▷전국 택배가능◁
서울 은평구 응암3동 응암5거리 (지하철 6호선 새절역 1번출구)
BBS 퀴즈대장경 신행상담 코너 - 달마도 표구 협찬(8년)



하루 저녁에 깨우치는
하루밤에 깨우치는
나경(패철)사용법
문학박사 전용원 저 2만 5천원 전국 대형서점
전화주문: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2만 5천원 입금, 전화주시면
저자가 직접 서명하고 낙관찍어 월간역학 1권
(8,800원) 무료기증 함께 보내드립니다.
전화 1688-1137 역학 동영상강의 www.kbs.cc

행장 모집 합니다
사찰운영 및 기도정진,
주지스님 시봉하시다가
주지스님 열반 후에 본인
앞으로 사찰 등기 가능함.
(세수 35-45세까지)
* 신심이 확실한 분만 전화하세요.
010-3499-3721

조계종 수번 생활광고하여도
전화만 올 뿐, 답답하여 다시내니
객관적 문제가 있는것도 아닌데
노승이 그만 쉬고자 비구니 4-50대
답사하여 안착운영관리 바람.
그리고 조용한 도량에 의지있고
불심있는 4-50대 공양주 연락바람.
소백산 지장보궁 내원암
경북054)653-1180
010-6353-1180



진각스님 명리 철학교실
아기이름 작명
작명, 개명, 상호, 회사명, 아호, 단체명, 모든 분야 이름
문의 051)867-8438
부산경상대학 졸업. 김해가야대학교 졸업
현, 대학원 석사과정 재학중. 국가공인한자1급.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명리학 개인지도 속성*
부산시경 뒤 시청 어린이집 뒤편 삼화탕 옆 송광정사

사주운세 10초 내 맞추면
통장입금하시고 상담하세요
명리학 성공하실분 노크하세요. (사주첩경) 이석영 통달. 수월정사
011-498-5067 / 02)826-5067
031)774-5067 (주말)
〔통화관계로 방문 사절〕 농협 064-02-379867 김진동

대한불교 조계종 **한국불교대학 大관음사**

행자(예비스님) 모집
21세기형 행자교육!! 현대와 전통이 어우러진 수행과 수계 이후 모든 지원!!
- 성별 : 남자, 학력 : 고졸이상
- 1인 1실 및 개성존중의 민주적 교육
- 수행 · 공부의 모든 지원, 최적의 교육 분위기, 자율적 시스템
- 문의 : 010-2488-8228

대구 도심 사찰 최초 납골당 운영
- 최첨단 시설, 편리한 교통, 한발 앞선 장례문화시설!!
- 언제나 염불, 기도소리 들리는 법당 안에 모셔지므로 천도에 아주 좋습니다.
- 설 • 추석 • 기일 • 영가 천도일에 천도 축원해드립니다
- 문의 : 010-6296-0108

생활역학강의 : 전문교육처 (주간반) (야간반)
1)초급4개월 : 중급4개월 : 연구4개월 : 실증철학 고자강 이석영 고단원 이병렬 선생의 정통학문
2)정규야간반신설. 월요일 오후7시~10시 수시접수
3)특강 사주통변실전반 : 수요일 오전9~12시 수시접수 역학은 배웠으나 통변이 어려우신 분들의 특강반
핵심적인 용신법을 바로 알아낼 수 있는 비법전수한 눈에 오행의 움직임을 파악할 수 있는 능력전수
4)작명학 연구반 : 실증성명학전서 : 수시접수 본명사주의 격국법 조후법 통관법 병약법 억부법 오행균형법
부족된 원형이정의 수리법 자원보충법 음령법 호성법의 체계적인 이론과 사상체질법 등 정통작명 비법을 전수 합니다
5) 종합 개인지도 : 수시모집 명리정통 정규반 + 작명 + 관상 + 수상 + 타로
단원역리학회 지현역리학연구원 동대문구 T: 2243-9598. H.P: 018-470-6314 http://kr.blog.yahoo.com/han10305

이 기구만 있으면 풍수지리 대가가 될 수 있다!!

명당 탐지기
관룡자, 심룡척
관룡자와 심룡척은 1990년부터 월간역학을 발행해오는 문학박사 전용원이 1970년대 개발하여 국내는 물론 해외로도 판매되는 기구입니다. 이들 제품은 성능과 모양이 똑같으며 상표만 다릅니다. 명당혈에서 옆으로 90도 회전하여 100% 정확히 명당혈을 찾아냅니다. 묘터나 집터, 사찰, 아파트, 공장터를 잡거나 감정할 때 사용하며 누구나 즉시 사용이 가능합니다.
구입방법: 관룡자, 심룡척은 본래 88만원이지만 지금 구입하시면 66만원으로 할인+월간역학 1년(105,600원)+수맥 탐지봉(15,000원)+휴대용 케이스(2만원)를 보너스로 드립니다.
하나은행 388-910003-23704 한국역학협회로 66만원 입금, 전화(1688-1137)주시면 즉시 보내드리고 1년간 매월 월간역학을 우송해드립니다.
역학 동영상 강의 www.kbs.cc
사주 관상 풍수지리 주역 육효 자미두수
집에서 편리하고 저렴하게 확실한 공부, 24시간 반복 학습 가능함
사주 초보에서 완성까지 45만원 부터
수료증 자격증 회원증 월간역학 필진 위촉장
한국역학협회 관인 월간역학교육원
서울 중구 광희동 2가 303-15 전화 1688-1137

테이프로 공부하는 四柱특강
역학(易學)은 본래 어려운 학문이 아닌데도 일반인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것은 고전 명리학자 (古典 命理學者)들이 주장하는 격국(格局)과 용신(用神) 때문이다. 四柱는 단지 陰陽과 五行의 변화법칙일 뿐, 格局에 매달리지 않아도 된다. 수십 년간 역학을 공부한 사람들도 用神을 잘못 잡는 경우가 허다하다. 格局을 잘못 잡으면 用神은 엉터리가 되기 때문에 정반대의 운명감정이 나온다. 잘못된 格局에 시간을 낭비하지 말고 우주(宇宙)의 조화를 파악할 수 있는 陰陽五行에 대한 공부를 하는 것이 훨씬 더 정확한 운명을 감정할 수 있다. 그래서 易學은 自然科學이요, 氣候學이다. 초보에서 최고과정까지 철저히 이해시키는 독특한 강의는 들을수록 감명과 실감이 날 것이다. 20여 년간 연구하고 개발하면서 후진양성에 심혈을 기울여 왔기 때문에 선생의 강의를 듣는 순간 눈이 활짝 열릴 것이다. **수십 년간 공부해도 用神잡기가 어려운 易學을 녹음-테이프로 하루 한 시간씩 2개월이면 완성할 수 있다.** 財運이 있느냐 없느냐, 官運은 있느냐, 事業運은 있느냐, 試驗에는 합격하느냐, 배우자 덕이 있느냐, 해로하느냐, 이별하느냐, 음습은 좋으냐 나쁘냐, 교통사고는 어느 달에 발생하느냐, 관재구설수가 있느냐, 있으면 언제 일어나느냐, 적성에 맞는 직업은 무엇이냐, 또 치명적이고 결정적인 위기의 해와 달은 언제인가, 등을 확실하게 감정할 수 있다. 비록 테이프로 공부하지만 선생님의 강의를 생생하게 직접 듣는 것과 같다. 더욱이 우리가 잘 아는 실존했던 有名人士들의 四柱를 상세하게 풀이하였으므로 공부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리라 확신한다.
(현재 대구에서 23기생 강의 중. 수강 희망자 환영)
◆ 아래 계좌로 입금하시면 속달우편으로 보내 드립니다.
◆ 테이프와 교재대 포함 : 20만원 (단, 스님 및 포교사는 15만원)
◆ 著者 : 孫中山 (75세) 韓國陰陽學會 中央會 會長
◆ 계좌번호 : 농협 100080-56-022361 (손선영)
◆ 주문전화 : 053)324-2468 / 326-4585

불광불교대학
범음범패 제2기 학인모집
- 교육기간 : 1년
- 입 교 식 : 2010년 1월 25일 (월요일) 오후 2시
- 수업일시 : 주1회 / 매주 월요일 오후2시~6시
- 교육내용
  - 범 패 : 거불, 복청게, 가영, 향수나열, 도량게, 다게작법, 39위, 화청
  - 작법무 : 천수바라, 사다라니, 법고
  - 49재및 천도재
  - 각단불공및 사찰의식 전과정
- 입교자격 : 범음범패에 관심있는 승려 및 재가불자
- 교육장소 : 대구시 동구 도동44번지 불광사 불광불교대학 학장 일해스님

접수 및 문 의 053)986-1080 / 011-9361-5566

한방(韓方)치료로
당뇨. 혈압. 비만
고치기 어려워도
포기하지 않으셨으면,
당뇨약 복용 또는 당뇨합병증으로
고통받는 분들
맞춤 한방치료로
상담문의하시길 바랍니다
난치성질환으로 고생하시는
본인 또는 가족으로
상담이 필요하신분은 문의하십시오
한솔한의원
031)555-7780
경기도 구리시 수택동 847번지 타워크리닉 3층
대한한의사협회 의료광고심의필 제091127-중-6353호

불자정보

강좌안내, 각종 소식, 구인 · 구직, 불교관련상품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 **사찰안내 :** 기본 규격 – 50.000원
  규격 가로 7cm – 70.000원
  규격 가로 10cm – 100.000원
- **계좌번호 :** (주)현대불교신문사
  국민은행 222-25-0005-381
  농 협 053-01-269088
- **문의전화 :** 02)732-1522 / 02)2004-8215
- **원고접수 :** jabi82@naver.com
  FAX 02)737-0696

※ 매주 수요일 마감. 다음주 수요일 게재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북
- 법당 : 30(목조)
- 요사 : 100평
- 부지 : 1,000외 3,000
- 가액 : 14억

- 위치 : 서울
- 법당 : 20평
- 요사 : 40평
- 부지 : 100평
- 가액 : 14억 5천

- 위치 : 동해
- 법당 : 25(목조)
- 요사 : 50(목조)
- 부지 : 270평
- 가액 : 4억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부전스님, 공양주 연결해 드립니다.

청 송 기 획 02)998-1994 011)713-5634

사찰 및 토굴안내

- 위치 : 북한산
- 부지 : 150평
- 인법당 : 45평
- 명당터
- 가액 : 4억5천

- 위치 : 경기
- 부지 : 130평
- 법당 : 20평
- 요사 : 30평
- 가액 : 2억 5천

- 위치 : 서울시내
- 부지 : 100평
- 법당 : 30평
- 요사 : 40평
- 가액 : 10억

※ 30년 신용과 믿음으로 일합니다
※전국 사찰, 땅, 포교당, 다량보유, 구하는 사찰 있습니다. 구입자금 융자 알선해 드립니다.
※전국 사찰 암자 포교당 부전스님 공양주 처사 인연소개 합니다

광진불사 010-2221-2807/ 02)723-4082

사찰 및 토굴안내

해운대바닷가 근처 아름다운 절

- 총부지 : 550평
- 법당 20평, 요사채 30평, 산신각
- 바다전망, 남향, 뒤편 산자락
- 마당 넓은 절
- 가액 : 6억 5천

부산 바닷가 전망 좋은 절

- 총부지 : 370평
- 법당 (41년생), 요사(방3칸), 산신각, 용왕각
- 뒷산, 바다전망 최고, 평지, 주차장
- 도량 내 100된 된 소나무 다수
- 가액 : 3억 3천

사찰전문 부산연산공인중개소 직011)560-8522,051)863-6622
※부산 시내 암자, 토굴, 사찰부지 소액 및 고액 다량확보

사 찰 안 내

- 위치 : 경기도 안성시 금광면소재
- 부지 : 1500평(종교용지)
- 법당 : 40평(목조, 단청, 3포7포)
- 요사 : 60평
- 명부전 : 30평(목조,단청,닷집)
- 기타 : 산신각, 조각, 석불(8자) 석등
- 가액 : 9억 8천만원
- 특징 : 대작불사된 대가람임

- 위치 : 경주시 소재
- 부지 : 약 2000평(종교용지)
- 법당 : 35평(목조, 단청)
- 요사 : 2동 70평
- 기타 : 산신각, 석탑, 석등, 연못
- 가액 : 3억 8천만원 (2억원 융자별도)

좋은인연 됩시다 ※ 전국 소재 사찰양도 양수 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동진불사 대구 010-9636-0455/ 서울 010-5828-0455

사찰 터 안내

- 위치 : 산청군 단성면 관정리
- 평수: 약 2만평
- 현재 조립식 2채, 전기시설 완비,
- 단독진입로
- 평수에 관계 없이 허가가능,
- 진주 진양호가 보이는 운치 있는 위치
- 가액: 4억(절충가능)

017-547-1120

포교원 안내

- 위치 : 부산 사하구 개정동
- 평수: 135평(3층, 4층, 5층)
- 3층 : 방 5개, 화장실
- 4층: 방 3개, 공양간 및 화장실
- 5층 : 대법당, 화장실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월세 80만원 시설비 2800만원

010-2599-6020

사찰실버타운안내

- 위치 : 창녕군 창녕읍 여초리
- 44,120평
- 화왕산 주령 사찰터
- 가액: 3억 2천만원
- 관리지역, 농림지역

017-570-1600

토 굴 안 내

- 위치 : 영덕군 창수면
- 총평수 : 328평
- 임법당, 삼존불, 바깥에 지장보살석불, 산신석불, 산신각, 문수전, 창고
- 가액 : 1억 5천만원

010-4660-5388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부산 금강공원 입구
- 평수: 75평(시설완벽)
- 3층 건물인데 엘레베이터有
- 시설비: 1억 5천 투자 됐는데 급해서 3500만에 정리 급 양도 (전세 및 달세 별도 있음)

010-2828-1951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원도 원주
- 땅 10,000평
- 건물 대웅전 1채, 요사채 3채, 공양채 1채
- 즉시 법회
- 가액: 7억

070-7764-6989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남 양산 남부 시장부근
- 평수 54평(현 법회중)
- 4층건물 중 3층(관리비 無)
- 시설A급, 법당1실, 방 4개
- 가액: 보증금 3천만원 월 35만원(올 전세 가능) 시설비 저렴하게 보시

055)372-3563
010-2553-8827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장흥
- 법당20평,요사채25평,부지350평
- 공양실, 삼성각, 선방 총 5동 전체 동 기와단청
- 건물 뒤 거대 바위산 있음 바위 모양이 달마 형상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 포함)

018-603-1456

포교원(급)안내

- 위치 : 서울 이대입구(대흥동)
- 지하철 2호선 5번출구 60M위치 교통편 최적지
- 4층건물중 3층 약 25평
- 삼존불, 신중, 산신, 영단 입주 즉시 법회가능함
- 보증금, 시설비 포함 2500만원(월세 50만원)

02)719-7709

사찰(급)안내

- 위치: 경북 영천시 북안면
- 사용부지 6,000평 (실등기 5,000평)
- 법당 (목조): 약 20평, 산신각, 요사채 2동 중 황토방 1개, 실내외 화장실 3개
- 가액 : 4억 (가액 조정 안됨)

011-816-9104
011-815-9104

포교원 안내

- 10년된 포교원
- 원불 300불 모셔진 안정된 곳
- 바로 법회가능
- 가액: 보증금 1,000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3723-0777
02)386-9939

명 당 터 안 내

- 위치 : 경남 창영
- 평수 : 임야 약 1만평 (약 80%사용가)
- 특징 : 사찰 암자 및 선산 등 모혈명당, 고암면 감리 (밀양 넘어가는 국도 첫째 산, 정봉 아래 정혈, 도로에서 약 120M)
- 가액 : 2억 8천 5백만원 명당가 평당 3만, 인연자에게 가격 떠나 양도함

010-7325-1259

포교원 안내

- 위치 : 의왕시 내손동 평촌 롯데마트 앞
- 안양 평촌요지 교통편리
- 평수 45평, 5층
- 시설완벽
-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 90만원, 시설비 1천만원
- 스님 사정으로 급 양도

031)426-0555

포교원 안내

- 위치 : 대구역앞 동성로 (지하철 1분거리)
- 4층 약 30평(정원있음)
- 가액: 보증금 200만원 월 20만원
- 시설비 700만원
- 상담 포교 최적

010-2446-2626

포교원 안내

- 위치 :울산시 동구 방어동
- 평수: 25평, 이층
- 삼존불(아미타불, 지장보살, 관세음 보살) 신중, 산신
- 가액: 전세 800만원, 월 55만원
- 시설비: 2000만원

010-6488-8204

사 찰 안 내

- 위치 : 전남 광양
- 부지: 1,200평, 법당 30평
- 요사채 35평, 공양실 20평
- 전체 기와 단청
- 가액: 5억 5천만원

010-3967-0048

사 찰 안 내

- 위치:경기도 광주시 초월읍 내
- 평수 : 약 800평
- 법당(55평), 요사채 : 50평 산신각 8평, 주차장 넓음
- 삼존불 모셔있음
- 가액: 전세 4,500만원, 시설비 1,000만원(조정가능)

031)764-0180
010-2747-9791

사 찰 안 내

- 위치 : 논산시 연산면
- 법당 18평, 대지 112평
- 요사채 2동
- 가액: 1억 3천만원

016-742-2122

사 찰 안 내

- 위치 : 강촌IC에서 10분이내
- 부지: 9630평 (1523여평+임야 8000평)
- 한옥신축대응전, 신축황토방 요사채 조립식건물+산신각
- 추가건축허가유(사회복지시설 가능위치)
- 바로앞 홍천강 경관과 기도도량
- 가액: 13억

011-9888-1563

전원주택 토굴안내

- 위치: 경북 청도군 매전면
- 토지: 1000평
- 건물 1층 40평, 2층 20평
- 조경과 잔디밭 너무 좋음
- 집앞에 강물이 흐르고 앞 뒤에는 소나무 숲이 있음
- 완벽한 집, 그림 같은 집
- 가액: 4억 5천만원

011-9071-7713

암 자 안 내

- 위치 : 밀양 얼음골 근교 경관수려함
- 임야 10,000평

010-4876-5535

포교원안내

- 위치: 부산시 기장군 기장읍
- 빌라 주택 밀집 지역
- 시장입구
- 법당 40평, 방2, 공양간, 화장실
- 삼불, 후불탱화는 인등으로 설치되어 있음
- 가액:보증금500만원 월35만원
- 시설비: 2,500만원
- 주지 건강상 급 양도

011-544-9777

포교원안내

- 위치: 경기 안산 상업지역
- 평수 50평(현 법회중)
- 5층건물 중 2층
- 옥상 텃밭 30평
- 법당 단청, 최고급 인테리어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80만원
- 시설비: 1천 5백만원

010-8954-8033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김해시 행림면 안양리 510번지(무척산아래)
- 법당 27평, 산신각 4평,
- 요사채 방 3,
- 화장실, 목욕탕, 공양간
- 총평수: 220평
- 가액: 1억 5천만원 (융자 3천포함)

070-8809-3800
010-8327-3808

포교원(급)안내

- 위치: 1호선 신이문역(도보5분)
- 2층: 약 40평, 법당, 방 1 공양간 (원불 300불)
- 특징 : 아주 편리 마당 약 40평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 시설비 3,000만원

018-293-7075

사 찰 안 내

- 위치: 경북 영천시 화북면
- 평수 : 약 14,000평 중 2000(밭)
- 시설 : 현재 법당 가건물 요사채, 화장실, 전기시설, 전화, 건축허가필
- 맑고 깨끗하고 조용함
- 가액: 4억 5천 (절충가)

010-3918-0333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서초구 방배동 내방역 2번출구
- 4층 건물중 3층(50평)
- 삼존불 청동불, 최신 인테리어 시설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 월세 245만원(부가세별도)
- 시설비 6천만원

010-5851-498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시화 신도시 정왕동 E마트사거리
- 대형공원과 아파트 대규모 단지로서 포교최고지역
- 4층건물중 4층, 전체 약 110평, 옥상전체, 화장실및 복도 전체사용
- CCTV설치
- 법당: 삼존불, 약사여래불, 신중단, 영단, 인등단(관음인등 108불) 큰방 3개, 사무실 1개, 창고1개
- 가액: 보증금 2천만원 월120만원
- 시설비 8천5백만원

010-4340-8866

포교원 안내

- 위치 : 경기도 인천 제물포역 5분거리
- 역세권 밀집지역
- 평수 : 35평 내외
- 법당, 방2, 주방, 후불탱화 포함,
- 박달나무목불,지장보살님 2자 7치, 좌대 1자 1치, 좌우 무독귀왕, 도명존자 3자, 좌대 5치 분리
- 가액: 보증금 300만원,월 25만원 시설비 1천만원

010-8549-0159

사찰(급)안내

- 위치 : 대구 남구
- 대지 : 106평, 법당: 40평
- 요사채(1,2층): 60평
- 포교활동 최적지
- 가액: 4억 2천만원 시설비: 3천만원(절충 가능) 1금융권에서 1억 2천까지 융자가능

011-790-9171
010-5628-8404

사 찰 안 내

- 위치 : 울산 중구 유곡동
- 대지 50평, 건평 50평
- 1층 요사채, 2층법당
- 가액: 보증금 5천만,월 40만원 (조정가능,전세가능)
- 23년째 운영중

010-8330-2436
신현대부동산

포교원 (급) 안내

- 위치 : 김해 시내 시장부근
- 4층 건물 중 3층 약 50평
- 삼존불, 신중,지장,산신불 각단탱화 일체
- 상담실 및 거실, 방2,
- 보증금 300만원, 월38만원
- 법당 및 모든 비품, 집기 일체
- 몸만 오시면 즉시 법회 가능
- 비품 및 시설비 상담후 결정

055)335-0314

포 교 원 안 내

- 위치 : 경남 김해시 삼방동
- 2층 , 45평
- 법당 25평
- 방 2, 주방, 욕실
- 가액: 보증금 500만원 월 40만원
- 시설비 약간(절충)

011-9342-9794

토굴전세안내

- 위치 : 경북 봉화 소천면
- 평수 340평, 와가 25평
- 방 3, 요사채 30평, 주방1, 방2, 창고1, 실내화장실 1, 실외화장실2,
- 마당 넓음, 산 밑에 독채,조용함
- 심야전기보일러, 산 지하수
- 전세: 2천 8백만원
- 꼭 필요하신 분만 연락바람

010-7670-0479

포교원(급)안내

- 위치 :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
- 현재 법회 기도중
- 서부 정류장 지하철 5분거리
- 2층 건물 중 2층 70평
- 주차장 시설 완비
- 제반 시설및 모든 집기일체
- 스님 공찰임명 관계로 급 양도
- 가액: 보증금 1천만원 월 60만원,시설비 절충

017-501-2438

대형포교원(전세및양도)

- 위치 : 부천신도시 고속터미널 부근 100만 신도시아파트 상가밀집지역
- 평수 : 220평. 14층 중 5층
- 법당전체와 모든 방사 고급나무 문양인테리어됨
- 법당앞에 2011년 지하철개통,주차장 100대 가능
- 가액 : 임대 2억 9천(양도가능) 시설비 절충가능(융자포함 양도가능)

011-707-5552

고급주택 토굴겸 사찰안내

처음 시작하는 비구니스님,법사님,보살님, 불자 가족

- 깔끔한 전주시내 대지 65평
- 건평 35평,
- 법당 방 1, 큰방2, 작은방 1,거실, 욕실, 화장실 2
- 특징 : 소나무, 꽃나무, 화채류 잔디있음
- 가액 : 1억 3천 8백만원(주인직거래)
- 저금리, 대출 가능

011-650-8481

사찰(포교원) 안내

- 위치 : 밀양시 무안면 땀흘리는 표충비각에서 5분거리, 국도변 위치(교통편리 시내외 정류소옆)
- 대지: 230평, 주차장 넓음
- 요사채: 적벽돌 슬라브 60평 (2층 증축가능), 최고급 원목 실내 시설, 태양열 설치
- 법당 : 18평 1동 (사찰 전자제품 포함, 조경완벽) (삼존불 및 후불 35평형 탱화)
- 가액: 2억 4천 5백만원(점충가능),(은행융자 7,000만원 포함)

010-8846-7090

정남향 별장식 토굴

- 위치 : 경남 마산 (내서에서 승용차로 신호준수 15~20분내, 함안가야 10분, 마산진동 10분거리)
- 대지 436㎡, 소규모 채소밭, 과일밭, 죽림, 산
- 건물: 임법당대1, 방4개, 주방식당2, 해우소겸 욕실세탁소2, 다용도실 ,창고1, 통나무휴게실1, 옥외해우소1, 기타시설완비, 자연석괴석, 정원화단, 표고버섯 24거루식재, 주차장, 온실, 밭 200평사용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
- 발전전망: 마산내서에서 여항국도5호선 터널개설 2011년 본격추진

055)583-1418
011-578-1413

사 찰 안 내

- 위치 : 포항 도심속 전통사찰양식,아담한 사찰
- 법당 30평(단청) ● 요사채3, 방 3, ● 2층 공양간
- 산신각, 독성(용왕단)
- 대지 50평에 약 100평사용
- 가액: 4억 ● 주차장 확보 (주인직)

017-516-0773(주지스님)
010-3550-6771(보살)

사 찰 안 내

- 위치: 경남 하동 ●총 800평, 법당 20평
- 요사채 2채, 방4개, 큰 창고
- 주차시설 완비, 관상용 양어장
- 맑고 깨끗한 약수가 있는곳
- 현재 관광지 목적으로 인도 살림욕을 공사하고 있음
- 비구니 스님 기도처로서는 최고 명당
- 가액: 2억 3천만원

010-3138-4897

참숯가마(급)안내

- 위치: 경남 밀양시 부북면 춘화리
- 평수 1208평 ● 건물 : 대지 392평
- 시설: 참 숯가마 7개, 폐수처리장(1억 3천 가설비 들었음)
- 지하수 350m이상에서 매일 100톤의양
- 식당 90평, 목욕탕 95평
- 기본숙소 방 5개, 120명수용가능
- 가액: 현 시세 22억을 18억 (모든시설포함) 급 양도. 절충가능,
- 현재 영업중이며 몸만 들어오시면 됨

010-9735-3477
010-9418-5938

사 찰 안 내

- 위치 : 경남 의령, ●대지 300평, 종교용지 300평
- 법당 29평, 주지실 별도
- 요사 24평, 요사채 아파트식구조
- 조경 되어있고, 법당 시설 완벽,대형버스 주차가능
- 가액: 1억 5천만원(은행융자 5천만원 가능)

010-4193-3366

선이란 정이며 '물려줌에 쉼이 없음'이다

<48> 원굉도(袁宏道) 거사

명대의 대표적인 거사인 탁오(卓午) 이지(李贄)는 쇠락해가는 만명(晩明)의 불교에 새로운 거사불교의 흐름을 일으켰다.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사대부 거사인 원굉도(袁宏道; 1568~1610)이다.

원굉도 거사는 대대로 불교를 신봉하던 집안 출신이었다. 그의 형인 종도(宗道: 1560~1600, 자가 백수(伯修), 호가 향광거사(香光居士))와 동생인 중도(中道: 1570~1623, 자(字)가 소수(小修), 호가 상생거사(上生居士)) 역시 독실한 거사이다. <거사전>에 따르면, 그들 삼형제의 모친 공(龔)씨 역시 독실한 불자로서 늘 <금강경>을 독송했다. 어느 날 커다란 거미가 대들보로부터 내려와 경전 주변을 돌다가 갑자기 경전을 향해 무릎을 꿇고 절을 하듯이 엎드렸다. 그러자 모친이 "너도 경전을 듣고 싶어 왔구나"라고 하며 경전을 독송해 주었다. "육여게(六如偈: 一切有爲法 如夢幻泡影 如露亦如電 應作如是觀)"에 이르자 거미가 가만히 움직임이 마치 예를 표하는 것과 같았고, 독송을 마치니 이미 죽어있었다. 모친은 거미를 감실(龕室)에 옮겨 작은 탑을 지어 줬다.(<거사전>권46) 이후 삼형제가 태어났는데, 모두 문장으로 이름을 날려 '삼원(三袁)'으로 불렸다. 문학에서는 그들을 '공안파(公安派)'라고 했다. '공안파'는 원굉도 거사의 유명한 "오직 성령(性靈)을 서술하되 형식에 구애되지 않고, 자기의 가슴 속으로부터 흘러나지 않는다면 붓을 들지 않는다(獨抒性靈 不拘格套 非從自己胸臆中流出 不肯下筆)"라는 말과 같이 격식에 구애받지 않고 '성령'을 중시해, 조사선 선리(禪理)와 탁오 이지 거사의 '동심설(童心說)'을 바탕으로 전개된 문학이론이다. 이러한 공안파는 우리의 문학, 특히 허균 · 박지원 · 박세당 등에 깊은 영향을 끼쳤다.

원씨 삼형제가 모두 뛰어난 문인이면서 거사로 활약함에 따라 <거사전> 권46 한권 전체에는 '원백수 · 중랑 · 소수전(袁伯修 · 中郎 · 小修傳)'의 제목으로 삼형제의 전기가 게재돼 있다. 그러나 역시 가장 유명한 이는 바로 원굉도 거사이다. 그에 따라 청대(淸代)의 팽희속(彭希涑)의 <정토성현록(淨土聖賢錄)> 권7과 거사의 고향인 <공안현지(公安縣志)> 등에 상세한 전기가 실려 있다.

그 문헌에 따르면, 거사의 자는 중랑(中郎)이고, 호는 석두거사(石頭居士) 혹은 육휴(六休)로서 공안(公安: 현재 호북성湖北省에 속함) 사람이다. 만력(萬曆) 20년(1592)에 진사에 급제해 오강(吳江)의 지현(知縣)에 임명됐는데, 행정의 처리가 매우 공평하고 뛰어나 백성들로부터 많은 찬사를 받았다. 그 후에 국자조교(國子助敎), 고공원외랑(考功員外郞)을 거쳐 예부주사(禮部主事)의 관직에 임명됐지만, 얼마 후 병을 얻어 사임하고 귀향했다.

거사는 특히 선학(禪學)을 좋아했다. 여기에는 형인 원종도 거사의 영향이 절대적이었다. 종도 거사가 북경에서 관직을 역임할 때, 거사는 형의 소개로 양명학의 태주학파(泰州學派)에 속한 초굉(焦竑), 구여직(瞿汝稷) 등을 만나 함께 돈오(頓悟)의 종지를 논했다. 그 당시의 정황을 <공안현지>에 실린 맏형인 원종도 거사의 전기에는 "중랑과 소수가 모두 물어 배웠는데, 선생(종도)은 심성(心性)의 학설을 가르쳤고 서로 논의하며 검증했다"라고 적어 삼형제가 조사선의 탐구에 심취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거사의 진정한 스승은 이지 거사였다.

<공안현지>에 실린 거사의 전기에는 만력 19년(1591) 거사가 "용호(龍湖)에서 이노(李老: 이지 거사)가 교외(敎外)의 종지를 그윽이 깨달았다는 소식을 듣고서 달려가 참문하고 크게 계합했다…. 그곳에서 3개월을 머물면서 헤어지기 아쉬워하다가 이지 거사가 무창(武昌)까지 배웅해 이별했다"라고 기술했다. 거사가 이지 거사를 만난 것은 진사에 급제하기 한해 전인 24세였고, 이지 거사의 처소에서 머물렀던 3개월 동안에 거사는 커다란 진보가 있었으며, 이지 거사로부터 '인가'를 받은 것이 짐작된다. 이는 거사의 동생이 쓴 <중랑선생행장(中郎先生行狀)>에서 "선생은 용호(이지 거사를 지칭)를 뵙자 큰 기러기가 순풍을 만난듯했으며 큰물고기를 개울에 풀어놓은 듯했다. 능히 마음을 스승으로 삼았고, 마음에 휘둘리지 않았으며, 능히 고인(古人)을 다루었고, 고인들에게 끄달리지 않았다. 하는 말마다 하나하나 가슴속으로부터 흘러나와 하늘을 덮고 땅을 덮기를 급류를 끊는 것과 같았고, 우레가 고요함을 깨우는 듯했다."(<가설재집(珂雪齋集)>권9)라고 당시의 상황을 표현한 구절로도 확인된다.



그림 · 김흥인

오랫동안 조사선에 매료… 자연 벗 삼아 정토로 전환
'서방합론' '가설재집' '산호림' '금설편' 등 찬술

2년 후에 거사는 그 형과 함께 다시 용호를 찾았다. 당시 이지 거사는 "식력(識力)이나 담력(膽力)이 모두 세상에서 가장 뛰어남"으로 오직 거사만이 선종의 "입미일로(入微一路)"를 가히 감당할 수 있다고 극찬을 아끼지 않았다.(<공안현지> <원굉도전>) 이후에 거사는 초굉, 도망령(陶望齡), 관지도(管志道) 등 수많은 사대부 거사뿐만 아니라 지불원(芝佛院) 무념(無念) 등 선사와도 왕래했다.

거사는 '선(禪)'에 대한 해석이 독특했다. "선이란 정(定)이며, 또한 '물려줌에 쉼이 없음(禪代不息)'이라는 뜻이 있다. 이미 '선'이라고 했다면, 바로 '변천해 없어짐(遷流無已)'이요, '변하고 움직여 항상하지 않음(變動不常)'이니, 어찌 정(定)의 흔적이 있겠는가? 선을 배우는 자가 어찌 정법(定法)이 있어 가히 지키겠는가? 또한 선에는 물려남과 나아감도 있을 수 없으며, 고요함도 소란스러움도 있을 수 없다."(<가설재집(珂雪齋集)>권5) 거사가 말하고자 하는 것은 선에 '물려주어 쉼이 없음', '변하고 움직여 항상 하지 않음' 등의 의미가 있으므로, 선에 있어서 고정된 내용이나 구체적인 형식 같은 것은 없다는 것이다. 이는 당시의 선학이 '좌선(坐禪)'과 '선정(禪定)' 등의 형식적인 것을 중시하는 것에 대한 반성적 사유로부터 나온 견해로 해석된다. 특히 거사는 마조(馬祖) 문하의 임제선(臨濟禪)을 극도로 찬탄하고, 거사의 문집 도처에 임제의 선어(禪語)들을 인용했다. 거사가 보는 가장 이상적인 선은 바로 당말(唐末) · 오대(五代)에 흥성했던 조사선으로 설정하고, 당시의 선학을 상당히 강하게 비판했다. 이는 바로 탁오 이지 거사의 영향이었다.

거사의 선학은 바로 '심성(心性)'의 두 글자로 귀결시킬 수 있다. '직서심성(直抒心性)', '명심견성(明心見性)' 등을 주장해 '천진자연(天眞自然)'을 드러내는 특색을 보인다. 거사는 "성품[性]은 편안하여 억지로 할 수 없고, 성품을 따라 행하는 이를 진인(眞人)이라고 한다"(<가설재집>권15) 라고 했다. 이렇게 '심성'으로 귀결시키는 것은 이미 당대(唐代)로부터 출현한 심성론에서의 불교와 유가(儒家)가 융합한 결과이다. 또한 당시에 유행한 양명학과도 무관하지 않았다.

오랫동안 조사선에 매료되었던 거사는 점차로 정토법문으로 관심을 전환했다. 거사가 정토로 관심을 돌린 이유에 대해 형인 종도 거사는 "조사선을 수습해 세속적인 정이 감소해 진로(塵勞: 세속에 얽매임)에 빠져들지 않았지만, 사대부의 병폐로부터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여 자연을 벗 삼아 <이소(離騷)>와 <이아(爾雅)>의 업(業)에 빠져 탐닉하며 방종한 마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다"(<서방합론(西方合論) · 서(序)>라고 밝혔다. 다시 말해서 거사가 정토에 관심을 돌린 원인을 '방종한 마음'에 대한 대치법을 정토법문으로부터 찾았다는 것이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관직을 사임할 정도로 평생을 병약하게 살았던 것에서도 거사가 정토에 귀의했던 원인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정토법문에 관심을 가진 지 몇 년 후인 만력 27년(1599)에 거사는 <서방합론> 10권(<대정장> 47책 所收)을 찬술했고, 그의 형이 서문을 썼다. 이 책의 기본적인 사상은 "부사의제일의(不思議第一義)를 종(宗)으로 삼고, 깨달음(悟)으로 이끌어 줌(導)으로 삼는다"(<서방합론 · 서>)라고 평하는 종도 거사의 서문과 같이 선적인 깨달음을 정토수행의 길잡이로 삼고 있다. 이로부터 거사는 정토법문으로 관심을 돌렸지만, 결코 돈오의 선지(禪旨)를 포기하지 않고 있음이 짐작된다. 다시 말해 선과 정토를 결합시키는 '선정일치(禪淨一致)'의 틀을 보였는데, 이는 송대(宋代) 이래로 출현한 대체적인 흐름이었다. 특히 거사는 "영명(永明) 선사는 이미 달마(達磨)가 설한 직지(直指)의 선을 깨달았고, 또한 능히 극락상품(極樂上品)에 몸이 이르렀으니, 이로써 선(禪)하는 이들이 정에 집착함을 풀어줬고, 이로써 말법시대에서 신심(信心)을 갖도록 했으니, 참으로 종(宗)의 가르침에 공이 크다"(<서방합론>권2)라고 말해 영명연수 선사가 '선정일치'를 제창한 것을 극도로 찬탄했다. 거사의 작품으로는 <서방합론> 이외에 <가설재집(珂雪齋集)>14권, <산호림(珊瑚林)>1권, <금설편(金屑編)>1권, <해탈집(解脫集)>5권 등이 있다.

명대 불교의 쇠퇴기에서 양명학의 유행과 함께 다시금 거사불교가 유행을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탁오 이지와 원굉도 거사의 역할이 가장 두드러졌다. 특히 원굉도 거사의 '선정일치'의 제창은 이후 청대와 근현대에 이르기까지 심원한 영향을 미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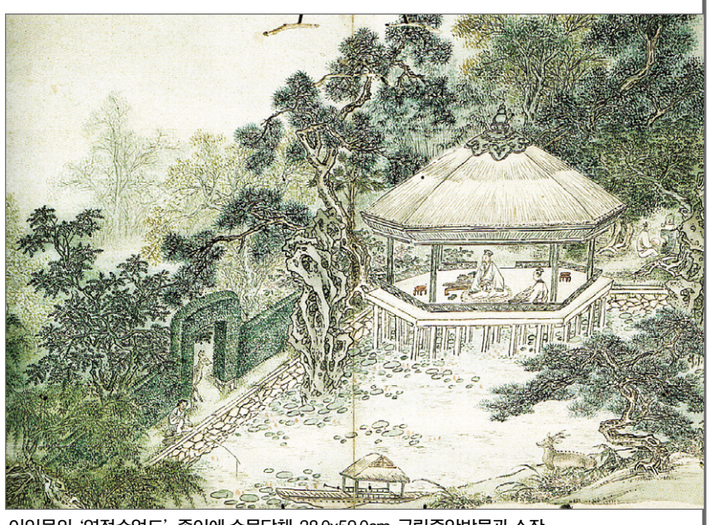
■ 김진무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교수)

옛 그림 속 茶 이야기

⑲ 연정수업도

중국까지 유명세 신위, 이인문 그림에 시 남겨

조선후기에 문사들은 차를 마신 후의 감흥을 시의 형태로 남긴 경우가 많다. 차의 맑고 투명한 세계는 문인들이 지향했던 이상과 같기 때문이다. 조선후기 시·서·화 삼절로 그 이름이 중국에까지 알려졌던 신위(申緯, 1769~1845) 역시 다시(茶詩)를 많이 남겼다. 그런데 그는 한국 차의 중흥기를 열었던 초의 선사(草衣禪師, 1786~1866)와도 가깝게 지낸 것으로 보인다. 하루는 초의 선사가 신위에게 차를 선물했는데 이것이 아마도 대밭에서 이슬을 맞고 자란 차였던 모양이다. 신위는 "조금씩 음미하며 찻잔 빛깔 감상할 제, 끼쳐 오는 댓잎 향을 먼저 마신다"라고 읊음으로써 당시의 감흥을 시 속에 담아냈다. 또한 신위는 조선후기 예림의 총수였던 강세황(姜世晃, 1712~1791)의 제자이기도 하거니와 김홍도, 이인문과 같은 선배 화가들과도 교유했다. 그는 조선후기와 말기를 잇는 교두보적인 인물이었던 것이다. 그의 문집인<경수당집(警修堂集)>에는 신위가 이인문의 그림에 쓴 시가 담아있다.



이인문의 '연정수업도', 종이에 수묵담채, 38.0x59.0cm,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선대의 임금을 모시던 화원 가운데(先朝供奉丹青班)
그 묘한 솜씨 자네(이인문)와 노단(김홍도)이 으뜸이었지(妙手推君與老檀)
구름 연기가 눈앞에 지나가자 단원은 보이지 않고(過眼雲煙檀不見)
도인만이 의젓이 책상다리하고 앉았구나(道人盤礴尙人間)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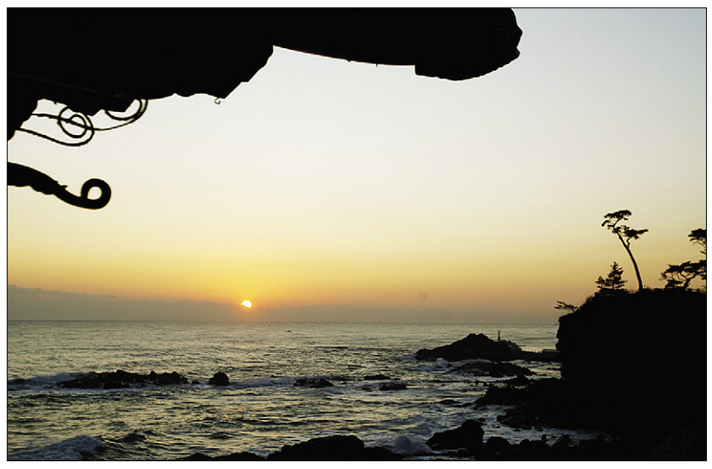
이인문과 김홍도는 같은 해에 태어난 동갑내기 친구로 나란히 두각을 나타냈지만 두 사람의 화풍은 확연히 달랐다. 김홍도가 서민생활이나 그 정서를 주제로 한 풍속화에서 두각을 나타냈다면 이인문은 이상적인 자연관을 담은 관념 산수화를 통해 원숙한 기량을 발휘했다.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이인문의 <고송유수첩(古松流水帖)> 중 제2폭 '연정수업도(蓮亭授業圖)'에는 숲속에 둘러싸인 정원 속에서 수신을 위해 공부하는 문사들의 모습이 아름다운 필치로 담겨있다. 전체적으로 안정감이 느껴지는 구도이며 소나무를 비롯한 다양한 수목들과 화훼들 속에서 화가의 정세한 표현력과 세련된 색채감각을 읽기란 어렵지 않다. 담채로 채색한 왼쪽 상단의 수목은 뒤로 물러선 원경의 표현으로 공간을 확장시키고 있고 정원으로 들어서는 담장과 입구의 표현 역시 농담의 적절한 변화를 통해 입체적인 형태를 잘 살리고 있다.

화면 중앙에 조영된 연못에 연잎과 연꽃봉우리가 군데군데 올라와 있는 것을 보니 때는 초여름이다. 연못 정자의 좌우에는 거대한 태호석이 자리해 운치를 더하는데 정자 안에는 두 명의 인물이 좌정해 있다. 연꽃향이 은은한 정원에서는 아무런 경계심도 없이 사슴이 노닐고 한가로이 동자가 낚시질을 하는데 단아한 풍모의 스승은 이 풍경을 조용히 바라본다. 오른편에 앉은 제자는 경 읽기에 여념이 없고 정자 뒤편의 다동은 부채질이 한창이다. 연못에서 전해지는 연꽃향이 은근할수록 더 맑아지듯, 차향 또한 은은하게 전해지는 것만 같다. 북송시대 화가 곽희는 "그림은 소리 없는 시이고, 시는 형태 없는 그림이다"라 했는데 과연 그의 그림 속에 어린 문사의 낭창한 음색이 화로 위에 찻물 끓는 소리와 함께 자연과 합일된 경지를 드러냈다. 이상이란 결국 이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일상이 되는 법이니 관념 산수를 즐겨 그린 이인문의 그림을 두고 일상과 괴리되는 세계라 쉽게 정의 할 수는 없을 것이다. 인간사의 수많은 질곡 중에서도 인생의 본질을 찾아 이를 짜임새 있는 조형언어로 풀어내려는 노력은 이처럼 인간의 문화와 자연이 서로 조화롭게 어우러지는 공간을 그려내는 데까지 이어졌다.

이랑 · lang312@hanmail.net · 동아시아차문화연구소 연구원

박재완 기자의 불교사진이야기

⑯ 홍련암의 아침



수평선 위로 엷은 구름이 보이기 시작했다. 보수를 위해 해체된 의상대가 태양을 예감하고 실루엣을 드러내자 숲에선 여명에 눈을 뜬 새들이 앞서 간 울음을 물고 날아올랐다. 태양이 다가오고 있었다.

'의상'의 이름에서 비롯된 시간과 '의상'의 마음에서 비롯된 추억을 더듬을 수 있는 곳 홍련암. 그 시간과 그 추억 속에서 떠오르는 태양을 보기 위해 그 날도 불자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멀리 해수관음상의 얼굴에 햇살이 다가오기 시작했다. 낮게 드리운 구름 위로 태양이 솟아올랐고 태양을 기다리던 이들은 천 년 전 의상 스님 앞에 떠올랐던 홍련을 보기라도 한 듯 각자의 서원을 기억해 내고 있었다. 파도 위에서 홍련암이 반짝거렸다. 누군가는 붉은 연꽃을 보았을 것 같은 아침이었다.

詩가 있는 도량

▪ 살펴보니

살펴보니
세상에 자랑할 만한 것 아무것도 없더라.
내 것이란 것도, 남의 것이란 것도,
살펴보니
일생에 한 번쯤 해 볼 만한 일이 있다면 비워 사는 일뿐이더라.
살펴보니
큰 살림꾼은 아무리 가져도 가졌다는 생각을 아니하고
인연 따라 맺고 풀어 만중생을 이익 되게 하더라.
살펴보니
무엇이든 내 것을 고집하고 자랑 안 하면 못 사는 사람들은
가져도 아주 조금밖에는 가질 수가 없더라.
살펴보니
참으로 비우고 참으로 가진 자는 걸림 없이 갖고 걸림 없이 버리고
내 것이란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더라.
살펴보니
한세상 비우면 한세상 덜컹 일어나더라.
비우라
비워 사는 것이 비워 얻는 것이 변함없는 진리더라.
내, 살펴보니 –허허당, 시집 <비고 빈 집>

옛 판화의 세계

산신이 채소 씨앗을 주다
산신종채(山神種菜)

<석씨원류>에 등장하는 이 삽화는 당나라 때 희종황제의 셋째 아들인 석보문 스님이 산속에서 산신을 만나 자리를 나눠 앉아 있는 모습과 산신으로부터 채소의 씨앗을 얻어 채소를 가꾸는 모습이 시간대별로 판각됐다. 또한 채소를 가꾸는 행자들이 호랑이임을 잘 나타내고 있다. 석보문은 당나라 때 희종황제의 셋째 아들로 태어나면서부터 길상한 모습으로 눈썹과 눈, 풍골이 그림같이 맑고 순수했고 타고난 성품이 고기, 마늘을 먹지 않았으며 황제가 아끼고 사랑해 온갖 계책으로 그를 설득하려했으나 끝내 설득하지 못했다고 한다. 본문의 내용을 살펴보면 "중화(中和) 연간에 천하가 어지러워져서 희종황제가 촉으로 가니 친왕들이 모두 도망갔으나, 보문 스님은 단발하고 편안히 노닐면서 석상산의 경제(景諸) 스님을 만나 깨우침을 얻은 후 두루 명산을 유람하면서 깨우침을 얻겠다고 요청하자 스승이 말했다. '건(乾)자가 든것을 만나거든 발길을 멈추고 진(陣)씨를 만나거든 곧 그곳에 주석하라.' 이에 먼 곳으로 유랑해 소무를 지나서 대건(大乾)에 이르러 멀리 산꼭대기를 바라보니 산이 울연히 깊고 빼어났다. '저 산에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고 묻자, 노인이 대답했다. '진사(陣嗣)란 사람이 있는데 오래 동안 그 속에 숨어 산다.' 이 말을 듣고 그 산에 이르니 진사는 보문 스님을 한 번 보고 곧 자리를 나눠 함께 그곳에 머물렀다. 진사로부터 한 홉의 씨앗을 얻은 보문 스님은 산 속으로 들어가 산을 개간해 채소를 심었다. 그러자 골짜기 입구의 마을사람들은 '전날 한 스님이 산속에 들어갔는데 지금까지 나오지 않고 있으니 반드시 호랑이에게 잡혀 먹혔을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 말을 듣고 진사가 산 속을 찾아가보니 한 곳에 초가집이 보였고 몇 사람의 행자가 있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불렀는데, 채소를 가꾸는 행자들이 호랑이였다. 진사는 마침내 스님이 뛰어난 사람임을 깨닫고 그가 거처하는 집을 스님에게 헌납하고 숨어버렸다." 깨달음의 경지가 높은 조사들을 불보살이나 호법선신이 보호하고 도와주는 모습이 경전이나 역사서에 많이 나타나고 있으나 우리는 이러한 것들이 비과학적이라 해 배척하는 경향이 있다. 이는 우리 불교가 너무 이론적으로만 흐르고 신심이 빠져버린 메마른 종교로 흘러가고 있는 것이 아닐까 안타까운 생각이 든다.

선학 스님(명주사 고판화박물관 관장)



고판화박물관 소장 <석씨원류(釋氏源流)> 중 산신종채(山神種菜) 편. 불암사판 1673년 간행, 반곽(半郭) 27.2×18.0㎝

2교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 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 FAX: (031)470-3116



대행 스님

제765호 현대불교
2010년 1월 6일(음 11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4년
법공양 페이지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찌 남을 건질 수 있겠습니까

항상 여러분과 마음은 함께 하고 있으면서도 또 여러분은 여러분이고 나는 나고, 찰나찰나 이렇게 헤어졌다 모였다 하는 것이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도량이 좁아서 불편한 것도 여러분의 마음이 넓다면 어디인들 어떠하리까? 이 모든 게 물질적으로는 행하지 못하는 한마음이 모두를 행해서 이 현실 물질세계로 나올 수 있게끔 바로 여러분이 대치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이 공부를 꼭 해야만 하느냐? 한 철 나는 동안에 세세생생에 굴러야 하는 관습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우린 지금도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한 컵 안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건 여러분이 들어서 잘들 아시리라고 믿고요. 우리가 지금 물질세계에서 어떠한 병고가 닥쳤다든가, 어떠한 가난이 닥쳤다든가, 어떠한 소송이 걸려왔다든가 어떠한 문제든지 용도에 따라서 닥쳐올 때 여러분이 제각기 어떻게 대치를 해야만 되겠습니까?

지금 살아서 그것을 대치할 수 없고 살아서 나를 볼 줄 모르고 나를 알 수 없는 그런 경지에서는 요다음에 옷을 벗어도, 죽었다 하더라도 관습에 끄달리는 그 영혼만 그대로 남을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또 모습을 달리 쓰고 또 이 세상에 출현을 해서, 무슨 지옥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다른 짐승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곤충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독사의 모습을 쓰고 나오거나 이런다면 그게 바로 차원에 따라서 그 지옥을 면치 못한다는 뜻입니다. 오무간지옥이다 하는 것도 바로 땅속에서 벗어나지 못하니까 그것이 바로 오무간지옥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지 안 하면 안 된다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입니다, 이게.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 게 닥쳐오든지 대처를 하려면, 예를 들어서 아들이 바다에 나가서 일을 한다 이럴 때, 참 생명이 위급하다 할 때, 남은 모르지만 자기 혼자 너무 위급한 걸 알았을 때 어떻게 대처를 하느냐는 얘깁니다. 그때 보이지 않는 무(無)의, 무심(無心)으로써 오고 가는 통신이 있어야 이것을 건질 수 있는 것인데, 어떻게 통신이 되느냐? 주해신에, 예를 들어서 바다의 소임을 맡은 그 보살한테 내가 통신을 하려면 내 마음이 거기에 찰나에 한마음이 돼야 건질 수 있다 이 소립니다.

그런데 내가 마음을 발전시키지 않고 내 마음과 찰나와 통신이 되지 않는다면 그 주해신한테도 통신이 되지 않는단 말입니다. 그럴 땐 속수무책이다 이겁니다. 건질 수가 없어요. 또 그것은 하나로 방편을 세워서 지금 얘기하는 건데 방편 아닌 방편입니다, 그게. 이름은 그러하지만 진실은 그대로니깐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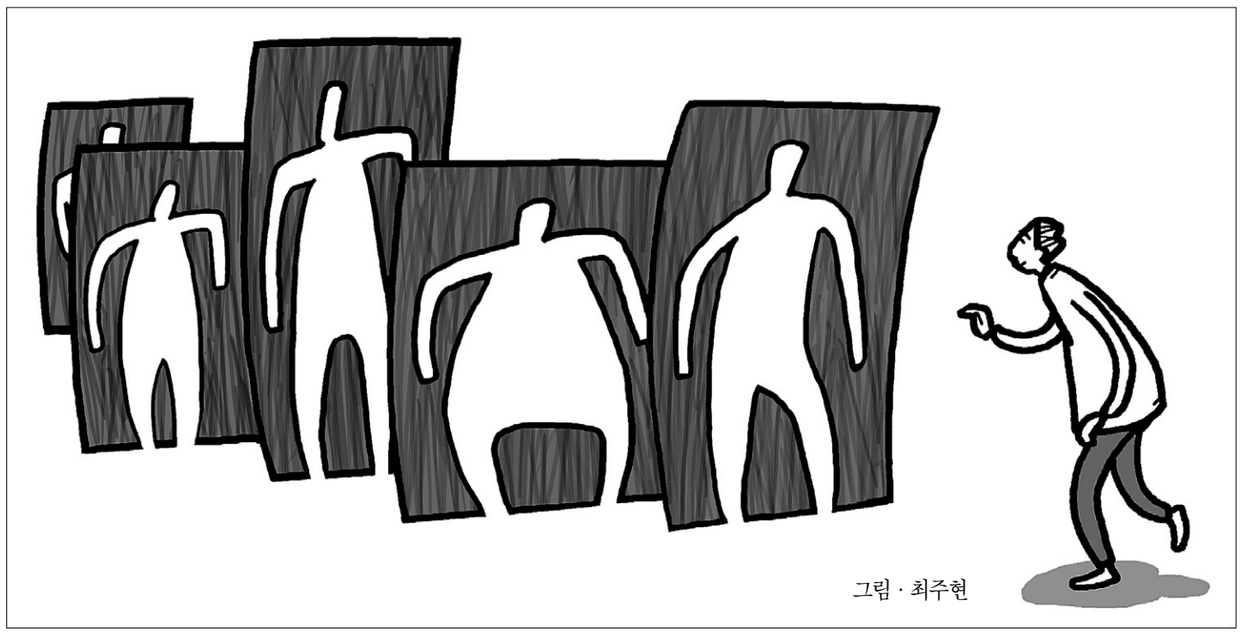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우리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다가오는 거를, 안에서 일어나고 바깥에서 다가오고 하는 양면을 어떻게 대처하느냐? 지금 그 바다 하나를 예로 들어서 이렇게 일러드렸으니까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어떠한 여건이든지 다 그러합니다. 바다의 소임을 맡은 신만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저런 산에도 주산신(主山神)이 있고 또 풀과 나무 모두를 관리하는 그러한 소임자는 바로 주림신(主林神)이라고 합니다.

이 모든 신들에 의해서, 내가 어떠한 용도에 따라서 만약에, 신도들에게 어떤 일이 닥친다면 그 신도들이 딴 사람이 아니라 바로 나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나 각자 여러분께서 그리로 통과가 돼야 살릴 수 있다는 얘깁니다, 어떠한 문제가, 여건이 벌어졌어도. 우리가 한 회사에 회장이 됐으면 회장의 권리가 있어야 공장장 또는 사장 또 부사장 이러한 사람들을 다스릴 수 있다 이 소립니다. 이 모두 우리가 위에서 관찰해서 그게 잘못됐으면 잘못된 대로 그것을 대치해서 명령을 내려야만, 명령이라고 할 건 없지만 결정을 지어야만이 모든 회사가 잘 돌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듯이 이 부처님과 보살, 이 부처님 한생각에서 보살들을 생산시키는 데는 헤아릴 수 없는 보살을 생산시킬 수 있다는 얘깁니다. 그러니 우리 한생각에서 생산처가 벌어지고 있죠. 그럼 우리가 전체 삼천대천세계 한가운데 그 법정이 생긴다는 거, 이건 부처님의 한생각이 바로 법입니다. 그래서 그 생각이 바로 생산처라고 한다면, 이 생산처에서 사람이 죽고 살고 하는 그러한 모든 판결을 낼 수 있는 그런 서류가, 우리 보이는 데는 책이 있고 글자가 있지만, 백지에 글자가 없는 글자가 있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거는 왜냐하면 '무심권도(無心權道)'의 책입니다. 그래서 생산천이라고 하죠.

그런데 생산을 해내기도 하지만 들이기도 하니까 이 들이고 내는 데를 '생사천'이라고 합니다. 이것도 이름해서 말입니다. 이것도 이름을 떠난 생사천이지 이름이 있는 생사천이 아닙니다. 그 생사천에 모두 서류가 있단 얘깁니다.

그러면 사람이 얼른 쉽게 말해서 70세에 갈 사람이 장부에 한 25세쯤 돼서 갔다, 가려고 한다 이럴 때 만약에 어느 부처님이나 어느 스님께서 이렇게 보실 때에 '아, 이 사람은 한 70세나 근 살 텐데 어째서 25세가 됐는데 죽어가나?' 하고 검증을 할 때 바로 부처님뿐만 아니라, 또 스님네들뿐만 아니라 각자 여러분도 공부한 사람들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볼 점이 있단 얘깁니다. 생각해볼 때 '아, 이거는 어디서 잘못됐구나!' 하고 그 장부를 가지고 오래 봐야만 그게 해결이 난다는 얘깁니다. 그래 생사처의 그 장부를 보려면 통신이 돼야 되죠. 생사처의 모든 소임자와 내 마음이 그쪽으로 가서 둘이 아니게 돼야 그 장부를 볼 수가 있단 얘깁니다. 그래서 살려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은 이 공부를 안 하려야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살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죽는 것도 사는 것도 떠나서 내가 한 권리를 갖는다면, 한 생으로 인해서 자유스럽게 세세생생을 벗어나는 겁니다.

이게 우리들이 살아나가는 인생길이 가끔 생각한다면 너무도 참혹할 때가 많거니와 부자다 가난하다 하는 것도 한순간에 돌아갑니다. 부자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난으로만 그냥 있는 것도 아닙니다. 또 사람도 잘난 사람으로만 있는 것도 아니고 못난 사람은 못난 대로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잘나고 못나고 바뀌가면서 변해서 화(化)하고, 화해서 나투면서 이렇게 바뀌지는 겁니다.

우리 인간만 그런 게 아니라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우주적으로도 그렇고, 이 땅 자체도 그렇고 그렇게 틈이 났다 또 벌어졌다 오므라지고, 오므라졌다 벌어지고 세계적으로 봐도 나라도 벌어졌다가 한데 붙어지고, 합쳐지고 또 벌어지고 싸우고,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상대성 원리라는 것이 조그만 것만이 아니라 큰 거에서부터 조그만 걸로, 조그만 거에서부터 큰 걸로 그렇게 벌어지곤 하죠. 우주의 섭리도 그러하고 은하계의 섭리도 그러하고 모두가, 블랙홀의 섭리가 다 그러한 거니깐요.

그래서 또 한 말을 한번 되하겠습니다. 우리 인간은 꼭 우리가 공부를 안 하면 안 되게끔 돼 있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게 뭐냐 하면, 지금 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컴퓨터니 뭐 녹음기니 텔레비전이니 또 로케트니 뭐 그냥 별놈의 게 다 생겼습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인간은 자동적인 누진(漏盡)이 있느니라, 자동적인. 자동적인 누진. 바로 세세생생을 이어가는 자동적인 누진. 이거는 인간의 중심, 바로 두뇌라는 겁니다.

우리가 텔레비전이나 이런 걸로다가 과거를 보려면 꼭 비디오를 되감아서 다시 넣어야 봅니다, 그걸 녹음을 해서. 그러나 한생각의 머리는 과거에 내가 살아온 거를 다 스크린처럼 돌려도 손색이 없이 다 나옵니다, 과거가. 여러분 안 그러십니까? 그 묘한 법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과거를 보려면 한번 스크린을 돌려보세요, 마음의 스크린을. 얼마나 잘 생각나고 얼마나 잘 보이나. 때로는 측은하기도 하고, 때로는 눈물도 나고, 때로는 우습기도 하고, 때로는 허무하기도 하고, 때로는 후회도 하고 이러면서 그걸 볼 수 있습니다. 한 찰나죠.

그러니까 그런 차이란 말입니다. 아무리 과학이 발전이 됐어도 그건 물질과학이지 심성과학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물질과학은 한계가 있지만 심성과학은 한계가 없는 겁니다. 무한계죠. 광대무변하고 묘한 법이기 때문에 세세생생을 가도 손색이 없죠. 사람이 죽었다 하더라도 그것은 그대로 남아 있으니깐요. 댁의 몸으로는 모두 뵐 수가 없지만 마음으로는 이 세상을 모두, 이 세상 도량을 한꺼번에 쥐고서 볼 수도 있는 그런 도리가, 바로 그 녹음해둔 이 두뇌에 있단 얘깁니다. 두뇌 아닌 두뇌지, 또 그것도. 이 물질적인 두뇌에 접해서 그냥 응시해서 있을 뿐이지 그거는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이 몸체가 다 죽어도. 그

☞18면으로 계속

buddhanews.com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도 없이 한 찰나예요

☞17면에서 계속

러니까 묘한 거죠.

그래서 텔레비전도 이게 때로는 화면, 또는 말 나오는 거, 또는 끄고 켜는 거, 또 높이고 줄이는 거, 이거와 텔레비전 전체 이 자체가 바로 뭡니까? 우리 인간도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거를 어디서 조절을 하느냐 이겁니다. 바로 저, 왜 이렇게 안 나오지? 방송국? 허허허. 그게 그렇게 말이 안 나와! 방송하는 데서 그걸 연결을 안 하면은 안 됩니다, 또.

그렇듯이 우리 인체를 가만히 생각해보십시오. 인체 안에 수없이 생명의 그 의식들이 아주 꽉 찼습니다. 꽉 찼죠. 또 바깥에서 들어오는 게 꽉 차서 보고 듣고 또는 가고 오고 또 만나고 또는 내가 어디서 오고 이런 거를 종합해서, 다섯 가질 종합해서 그것을 받아들임으로써 대뇌에 연결이 되는 게 누진(漏盡)입니다. 그 누진에 녹음이 다 됩니다, 그게. 녹음이 다 되고 입력이 다 돼가지고 사대(四大)로 통신이 됩니다. 인간 몸에 사대로 통신이 돼가지고 그 사대 안에 모든 생명의 의식들이 그 통신이 되는 대로 그것에 의해서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바깥의 일들이 보고 듣고 들이고 대뇌로 녹음이 되고, 녹음이 되고 입력이 돼가지고선 바로 찰나에 이게 바로 되는 일입니다. 돼서 사대로 통신이 되고 그러는 까닭에 인간 몸뚱이 하나가 모두 움죽거리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깐 이 몸속에 들어있는 생명의 의식들은 내가 어떻게 하는 건지, 로보트가 컴퓨터에서 시키는 대로 하듯이 자기가 생각을 내서 하는 게 없어요, 이 몸체 안의 생명들은. 통신이 돼야만 그것이 이제 돌아가요. 그래서 그 통신이 끊어졌다 하면 죽는 거죠. 그래서 들이쉬는데 들이쉴 수가 없고, 내쉬는데 내쉴 수가 없고 그렇다면 죽는다 이런 뜻이나 똑같죠. 한쪽이 끊어지니까.

그러니 우리가 우리 전체의 이 모두를 볼 때, 보세요. 보는 거, 이거를 천안통(天眼通)이라고 합니다. 말할 땐 똑바로 얘기를 해야 되겠어서 이럽니다. 천안통. 듣는 거, 천이통(天耳通). 남의 마음을 아는 것, 타심통(他心通).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는 걸 신족통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 아는 것을 숙명통(宿命通)이라고 합니다. 이 다섯 가지를 우리가 그냥 평소 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냐? 보는 것도 고정됨이 없이 보고 돌아가고 걸어오는 것도 발자취를 짊어지지 않고 오고. 안 그렇습니까? 생각해보세요. 듣는 것도 들을 뿐이지 그냥 돌아가고 있고 야, 만나는 것도 그렇고 모두가 다 고정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 그렇게들 하고 있으면서도 하고 있는지를 모르고 자기가 마음으로 그냥 자꾸자꾸 끌어뭉쳐서 쥐고 놓지를 않고 사는 습관에 의해서 그냥 마음으로 자꾸 오업(五業)을 짓는 거죠. 다섯 가지 업을 짓는 거죠. 그 업 속에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영계성 업보성 세균성 유전성 인과성, 이 다섯 가지가 모두 종합해서 들어있노라고.

그래서 이것을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는 꼭 공부를 해야 된다. 공부라는 것도 이름일 뿐이지, 공부라는 게 아니라 그냥 자기 자신이 자기 자신을 벗어낸다 이런 뜻입니다. 이 몸 안에, 그러니까 바깥에서 들어오는 거와, 보고 듣고 들이는 거와, 안에서 듣고 움죽거리는 것이, 양면이 바로 어디에서부터 모든 게 작용이 되느냐? 바로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중심에서 그걸 다스릴 수 있는 바로 대뇌 누진이란 얘깁니다. 누진을 통해서, 이게 물질적으로 따진다면 대뇌에서 척추를 통해서 모든 게 사대로 퍼지는데, 통신이 되는 건데 이게, 본래. 그런데 이 누진이 바로 입력을 다 해가지고 있는 근본이기 때문에 바로 이거를, 그 누진 자체의 선장을 쥐고 모든 걸 거기다 믿고 다 맡겨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겁니다.

이 녹음이 되는 누진은 바로 이 다섯 가지 통 속에서 벗어난 누진입니다. 벗어났기 때문에 모든 생사 건에도 그렇고, 이 모든 살아나가는 거, 수명 문제도 그렇고, 이 모든 전체가 어떻게 살았느냐에 따라서 전부 녹음이 돼 있는 바로 개체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수억겁을 거쳐오면서 살아온 그 자체가 누적이 돼서 거기 전부 녹음이 돼서 있는 줄 모르고…. 그럼 거기서 차례차례로 지금 현실에 나오는 대로 거기다가 되녹음을 해야 그놈의 게, 이 누진에서 녹음된 게, 즉 말하자면 입력이 지워지지 않습니까?

대충 알아들으셨습니까? 어떻게 멍멍하게 계십니까? 아, 지금 현 시대 사람들이 이거를 멍멍하게 생각하고 계시면 어떡합니까? 말하는 데 힘도 안 나지 않습니까, 그럼. 지금 이것을 어떻게 말을 해야만 잘 알아들을 수 있을까 하는 생각에서 이렇게도 말해보고 저렇게도 말해보고 지금 난 요절이 났는데. 하하하.

그러니까 내 몸뚱이 속에 있는 그 생명체들은 전부 모습도 차원도 천차만별이고, 의식도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이 대뇌에서 통신이 가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 줄도 모르고, 어떻게 움죽거릴 줄도 모르고, 어떻게 작용을 해야 할지도 모르고 어떻게 모자라는 데를 채워줘야 될지도 모릅니다. 단, 내 마음에서 모두 거기다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항상 얘기하죠. 어떠한 급한 일이 생겼을 때는 '급한 일을 해결하는 거는 너밖에 없다.' 하고 입력을 했을 때 바로 직속으로 통신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직속으로 화(化)해서 입자가 돼서 나가서 원자로 된단 말입니다, 그쪽 원자. 이렇게 왕래가 돼 있는 겁니다. 이 마음이라는 것은 가깝고 멀고 이런 게 없습니다. 한 찰나입니다.

이런데도 사람이라면 99%가 부처가 될 수 있다 했는데 그렇게 자기 몸뚱이가 어떻게 어떻게 구성이 돼서 살고 나가는지, 그렇게 구성된 게 어디로부터 왔는지 아, 그것들을 통히 모르는 거예요. 그렇게 내가 나를 모르고야 어떻게 남을 건질 수가 있어요? 가족을 어떻게 이끌어나갈 수 있어요? 그러고는 죽기 살기 그냥 매달리면서 육체로, 말로 그냥 한몫 하죠. 그냥 "아이구, 불쌍한 너야 왜 이러느냐! 아이고, 네가 잘 돼야 될 텐데." 이러고만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가족들한테 이것을 잘 가르치는 게 모든 재산을 물려주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 세세생생에 벗어나게 되면 모든 권리가 주어져서 자유의 권리를 갖고 다스릴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한마음 될 수 있는 권리권을 가져서 모두가 부처가 될 수 있고, 부처의 한생각이 그렇게 보살로다 화할 수 있고, 법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보신으로다 화할 수 있고…. 예를 들어서 생각을 하지 않으면 부처고 생각을 했다 하면 법신이 되고 문수가 되고 말입니다. 한생각을 했다 하면 문수가 되고 움죽거렸다 하면 보현이 되는 거죠. 이렇게 따로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엊그저께 그림을 그리는데 가서 시험을 보는데 한 모습을 놓고서 여럿이서 다 똑같이 그린다 합디다, 시험을 보느라고. 그렇듯이 우리도 다 제각기 똑같아요. 이 우주의 섭리가 다 똑같이 벌어지고 똑같이 크고 작을 뿐이에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나 하나만 깨치면 모두 전체를 알 수 있다 이런 거죠.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여러분이 알지 못하는 우주의 근본도 인간의 근본에 아주 그냥 딱 직결이 돼 있어요. 뭐 그거는 이 우주의 근본이 이 행성하고도 직결이 돼 있기 때문에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얘깁니다. 우리가 지금 벗어나지 못해서, 매달려서 벗어나지 못하고 돌아가듯 이 행성도 그냥 거기에 매달려서….

이게 보이지는 않죠, 끈이 달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나 이 마음의 능력의 줄 그건 벗어날 수가 없어요. 한 치도 벗어날 수가 없어요. 궤도를 그냥 돌고 있죠. 우리도 그렇게 그냥 수레바퀴에 얹혀서 돌고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생각하면 지구 안에 벌레로서 지구 바깥을 한 치도 벗어날 수 없이 지금 살고 있는 거죠. 우리가 그렇게 해야만 되겠어요? 인간으로 태어났으면 인간을 좀 훌떡 벗어나서 진짜 인간이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지금 직접 당하지 않았고 "내가 살 만한데 뭘 그래? 그까짓 거 뭐 주인공이 뭐 말라빠져 죽은 거야." 이러는 사람도 있어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주인공이란 자기 몸뚱이와 움죽거리는 거와 생명과,근본과 똑같이 한데 합쳐진 거를, 지금 육(肉) 안에 들은 생명들도 다 같이 움죽거리는 거를 가지고 주인공이라고 했는데 아, 자기가 자기 무시하는 거야 뭐 마음대로 하라죠, 뭐. 누굴 믿어요, 지금? 허공을 믿을 겁니까? 이름을 믿을 겁니까? 형상을 믿을 겁니까? 중들의 고깃덩어리를 믿을 겁니까? 무엇을 믿기에 그렇게 그렇게 해야만 되겠습니까?

자기가 혼자 와서 혼자 가는 길에 어떻게 놀고 가느냐에 따라서, 또 요다음에 그 소임을 맡아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그럼 소임을 저절로, 개로 소임을 모습을 가지고 나왔다면 개 소임밖에 더 있습니까? 그건 저절로입니다. 뭐 누가 시켜서 이 소임을 너 맡아라, 줘라 이러고 뺏고 이러는 것도 아닙니다, 인간은. 그냥 자기의 모습 쓰고 나오는 대로 그 소임이 주어지니깐요. 아주 괴짜죠. 우습죠. 염소로 모습을 가지고 나온다면 염소의 그 소임을 다 해야죠.그렇듯이 소도 그렇고 모두가 다 그렇죠. 자기 하는 소임은 다 있으니깐요. 인간으로 나온다면 인간의 소임을 다 해야 하고요. 인간들도 천차만별인데 그 소임 소임 따로따로 천차만별로 돼 있는데 조금도 우연이 없고 이렇게 잘못 나가는 법도 없어요.

내가 항상 얘기하죠. 인간의 차원도 바로 이 세상 차원이나 다 같다. 배도 모두 받아다가 크고 작은 걸 나누어 놓는다. 작은 거는 작은 것끼리 큰 거는 큰 것끼리. 깡통 있는 데는 깡통으로 채워지고 금(金)이 있는 데는 금으로 채워진다. 사람들도 정치인은 정치인들대로 상인들은 상인들대로 이렇게 자동적으로 모임을 갖는다. 상인들이 정치인들 하는 데에 끼일 리가 없고, 정치인이 상인들 한테 끼일 리가 없다. 깡통이 금방에 갈 리가 없고 금이 깡통전에 갈 리가 없다.

그러니 인간의 차원도 역시 그러하니까 우리가 끼리끼리 한가족이 모여서, 만나서 살게 되는 것이 바로 끼리끼리니까. 깡통이라면 깡통, 금이라면 금, 이렇게 끼리끼리 만난 사람들이니까 어떠한 한가족 속에서 어떠한 한 사람이 잘못을 저질렀다 하더라도 모두가 자기 각자 자기 탓으로 돌려야 한다. 그건 왜? 그 상대방 탓만 아니니깐 말입니다.

왜냐? 그 깡통과 그 깡통이 부딪쳐야 소리가 나니까. 이쪽이 어떠한 문제가 나면 이쪽도 속이 상하니까 마찬가지로 죄는 마찬가지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그렇게 끼리끼리 만나서 속썩이고 살게끔 돼 있으니까,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그거를 몽땅 없애려면은 남의 탓으로 돌려서는 아니 되고 자기의 그 녹음된 거를 지워버리는 수밖에는 없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틀리다면 틀리다고 하셔야 내가 또 강력히 나가죠. 허허허.

지금 의학적으로나 다들 가만히 살펴보세요. 내가 하는 말이 지금 모두 과학적으로 되는 이치와 상대성에 의해서 이렇게 되는데, 인간의 자동적인 콤퓨타와 자동적으로 움죽거리게 하는 그런 누진(漏盡)에 관한 건은 누구도 따라올 수 없다고요, 누구도.

부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한 우주를 갖다가 요만한 면경알로다가 다 갖다가 볼 수 있고, 또 갈 수도 있고 올 수도 있고, 행할 수도 있다는 그 사실을 거짓말로 알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렇게 요만하게 아주 좁쌀 알갱이만한, 좁쌀 알갱이도 없는데 표현을 하려니까 좁쌀 알갱이라고 합니다. 좁쌀 알갱이만한 면경이 이 대뇌에 들어있어서 누진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안팎 즉, 과거 현재 미래, 삼세(三世)가 다 거기 흠뻑 다 들어있다는 얘깁니다.

그리고 그뿐이 아닙니다. 모두가 녹음이 돼서 스크린처럼 돌아가는데, 그러니까 스크린처럼 돌아갈 수 있으니까 이 무르팍이 왔다 갔다 하고 막 움죽거리게 하듯 그것도 그렇게 돌아가니까, 예를 들어서 과거로 돌아가서 뭐를 하려면 한 찰나에 그냥 다, 여러분도 아마 이 공부하신 분은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될 겁니다. 어떻게 되는 줄도 모르게 체험을 하게 되는데 그게 너무 빨라서, 너무 빨라서 모르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에서 지금, 어린애가 들어서기만 하면 낙태가 된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낙태가 되려고 피가 흐르고 있다고 한다면 그럴 때, 그럴 때 그 순간 들었을 때 벌써 순간 거기 그 안에 들어간 거죠. 그러면 그렇게 너무 빠르니깐 이 도리를 모르는 사람들은 '어머나! 그게 그렇게 됐어?' 그렇게 우연히 된 걸로도 알고 또 때로는 그렇게 된 줄 알아도 모르고 '아유.' 보질 못하니까. 그러니까 '아휴, 참 부처님 원력이 이렇게 참 광대해!' 하고 정말 좋고 기쁘지만 그거를 보지는 못합니다.

왜냐? 이 전력이 이 순간 가설이 돼 있으니까 순간 버튼을 누를 때에 불은 반짝 들어옵니다. 그런데 그 전력이 들어오고 나가고 하는 순간, 그 순간을 여러분이 봅니까? 보지 못하죠? 그런데 그렇게 전력이 들어와서 불이 들어온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 알고 있는 그 자체를 믿으세요,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다음 호에 계속)

※위 법문은 1995년 1월 15일 정기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마음선원 홈페이지(www.hanmaum.org, 한마음선원)에서도 같은 내용을 보실 수 있습니다.



불자 세상보기

김 호 귀
동국대 불교문화연구원 연구교수

삼대사인연은 본참화두

모든 사람들은 본래부터 세 가지 대사(大事)를 구비하고 있다. 곧 생대사인연 · 사대사인연 · 일대사인연으로서 흔히 생사일대사인연이라고도 한다. 이런 가운데 일찍부터 선문에서는 생과 사의 문제가 지극히 중요하기 때문에 생사에 윤회하는 문제를 초월하려는 것이 최대의 문제로 생사사대(生死事大)가 취급됐다.

이것은 오조홍인이 제자들을 제접할 경우 활용하던 문답이기도 하다. 돈황본 <단경>에서는 홍인이 제자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한다.

"세간의 사람들은 생과 사의 문제가 중요한데도 불구하고 늘상 인간과 천상의 복전만 추구하기 위하여 공양할 뿐, 세간의 생과 사로부터 도통 벗어나려고 하지 않는다."

홍인은 생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부지런히 정진해야 할 것을 강조했다. 홍인에게는 그것이 곧 생대사와 사대사의 문제를 해결하는 일대사의 인연이었다. 생사의 문제는 생과 사 그 자체로서도 대사(大事)의 인연임에는 분명하지만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제시된 가르침이 곧 일대사(一大事) 인연이다. 따라서 삼대사인연(三大事因緣)은 모든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하고 깨쳐야 하는 과업으로서 외면해서는 안 되는 본참화두이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생대사인연(生大事因緣)을 구명해야 한다. 생대사인연은 곧 자신이 태어나기 이전의 문제로서 분별심이 형성되기 이전의 순수한 자신의 본래모습을 터득하는 것이다. 여기에서 자신은 육신의 자신이 아니라 아상(我相)이다.

또한 사대사인연(死大事因緣)은 생전의 성장과 교육과 늙고 병들어가는 개개인의 온갖 행위로부터 영원한 이별의 모습이다. 출생하면서부터 늘상 하고 싶지 않은 것을 하면서 살아가는 백 년의 삶이 모두 몽환이고 허공의 꽃과 같아서 세월이 흘러가는 줄도 모르다가 맞이하는 모습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생대사인연과 사대사인연은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닌 어떤 것임을 파악하는 것이 일대사인연(一大事因緣)이다. 곧 출생과 삶과 죽음과 죽음 이후의 문제는 필연적인 관계에 놓여 있음을 깨치는 것이다. 그것은 생대사와 사대사의 무상한 모습과는 달리 일심불성(一心佛性)의 도리야말로 성인과 중생에게 차별이 없고, 예와 지금과 미래에도 차이가 없으며, 법에도 이법(二法)이 없고, 불에도 이불(二佛)이 없다. 단적으로 말하면 좌선(坐禪)이고 진여(眞如)이며 열반(涅槃)이고 원각(圓覺)이며 묘법(妙法)이고 일물(一物)인 '거시기'이다. 이것을 깨치는 것이 사대사인연이다.

생대사와 사대사의 현실에서 자신을 일깨워 일대사인연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보살도의 실천이다. 때문에 보살도는 생로병사에서 시시각각으로 서원하여 발심하고 좌선하여 수행하며 자각하여 증득하고 열반하여 교화하는 일체의 행위이다.

이러한 보살도는 모든 사람이 늘상 활용하고 있으면서도 자각하지 못하는 것이 중생이다. 이에 중생은 반드시 자각해야 한다. 그 자각을 일깨워주기 위하여 제불의 불법이 출현한 이유이다. 그러나 이미 제불의 일대사인연은 생대사인연과 더불어 완성돼 있었다. 사대사인연 또한 생대사인연 이전에 갖추어져 있었다. 때문에 생(生)과 사(死)와 일(一)의 분립적인 입장을 벗어난 삼대사인연(三大事因緣)이 곧 일대사인연이다. 그 실현은 오직 생대사인연은 번뇌의 분별이 일어나는 줄 알아차리고, 사대사인연은 팔만 사천 번뇌가 본래 공한 줄을 터득하며, 일대사인연은 생대사와 사대사가 별개의 모습이 아니라 모두 자신의 본분사였음을 일깨우는 것이다.

본 칼럼은 본지 편집 방향과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社說

공덕 중의 공덕 '법보시'

예로부터 불교에서는 '법보시 공덕'이 가장 으뜸가는 공덕이라 했다. 법을 보시한다는 것은 다름 아닌 깨침을 보시하는 것이다. 부처님의 전생담에서는 한 구절의 경구를 듣기 위해 온 몸을 바치는 일화도 나온다.

인쇄술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가르침을 기록한 책자를 보시하는 일이 아주 귀한 일이었을 것이다. 책자가 아니더라도 통신수단이 없던 시절에 부처님의 가르침을 구술해 주는 사람은 또 얼마나 중요하게 대접받았겠는가? 법보시란 법을 전해주는 단순한 행위가 아니다. 그 속에는 함께 깨달음의 세계로 나아가자는 큰 원력이 담겨 있다.

근현대 한국불교의 선지식 탄허 스님이 현토한 <대방광불화엄경>이 매우 정성스럽게 묶여졌고 그 책자가 세계 유수의 도서관과 석학들에게 보시된다고 한다. 법보시 치고는 매우 귀한 법보시다. 인터넷이 발달한 이 시대에 정성스럽게 장정된 경전이 세계로 법보시 된다는 것은 법보시 본래의 의미를 되새기는 계기임에 틀림이 없다.

인지가 발달하고 문명이 고도화될수록 법은 무너진다고 했다. 물질의 풍요와 생활의 편익이 사람으로 하여금 탐욕과 나태에 빠지게 하기 때문이다. 지금과 같은 시대에 경전을 세계로 내보낸다는 것은 그 자체의 상징만으로도 한국불교의 세계화에 새로운 성과일 것이다. 이 거룩한 불사를 추진한 회룡사의 원력으로 온 불자와 국민에게 최상승공덕이 회향되길 바란다.

거꾸로 가는 문화재 보호정책

국보와 보물 등 국가지정문화재 보호에 대한 국가의 인식이 행정편의 주의에 물들어 있다. 4대강 개발을 앞두고 사회적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문화재청이 최근 마련한 국가지정문화재 주변 현상변경 허용기준은 기존의 법이 유지하고 있던 '까다로움'을 벗어던졌다.

3인 이상의 심의 규정이 없어지는 등 공사주체에 상당한 편익을 제공하고 있다. 이 말은 곧 국가지정문화재 주변의 현상변경이 쉬어졌다는 의미다. 물론 쉬워졌다는 것은 문화재 훼손의 우려가 커졌다는 것을 의미한다.

문화재 보호정책이 개발우선주의에 밀려 거꾸로 가고 있는 것이다. 국보 제1호 숭례문을 화마에 빼앗긴 나라가 스스로 국보 보물 등으로 지정한 문화재를 좀 더 강한 법으로 지키려고 하기보다는 개발편익을 슬쩍 손들어 주는 행태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당국은 민원해소를 이유로 들고 있지만, 민원우선정책을 적용할 것과 적용하지 말아야 할 것은 정부가 엄정하게 지켜야 한다. 물론 사찰이나 문화재를 소유한 입장에서 보면 이 기준이 현실적인 편익을 주는 게 사실이다. 생활 편의 시설의 확장이 절실해도 문화재 인근이라는 이유로 막막했던 경우 등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방법으로 불편함을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을 찾고 문화재는 엄격하게 보호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지정문화재는 역사적 가치와 종교적 가치 이상의 국민적 자산이기 때문이다. 이번 허용기준이 좀 더 원론적인 측면에서 재검토되길 바란다.

현불만평 박구원



"대운하 보다 실속 있겠어"

사부대중 테마칼럼

1월의 테마-새출발

"네 꿈을 자신 있게 펼쳐보지 않겠니?"

2010년 새해가 밝았다. 연하장에 쓰여진 '송구영신(送舊迎新)'이란 말과 같이 대부분의 사람들은 새로움을 맞이하는 것을 즐거워한다.

새롭다는 말이 단지 옛것과 다른 차별을 뜻함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말 속에 과거의 잘못을 반성하고, 미래의 발전과 희망을 담고 있기 때문이리라. 특히 부처님의 가르침인 제행무상(諸行無常)의 도리에 따르면, 새 출발은 과거와 미래의 경계선상(지금 여기)에서 계속 변화하며 반복되고 있다. 시작도 끝도 없이 순간순간이 새로울 뿐이다.

<출요경>에는 "과거에 악을 저질렀어도 선한 행동으로 그것을 없애면 구름 사라진 뒤의 달과 같다"는 말이 있다. <성경> 가운데 '요한묵시록'과 '베드로서' 등에서는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지고 의로움이 깃들어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이 기다리고 있다"고도 했다. 이는 과거의 잘못된 행동에 얽매이지 말고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선한 행동과 의로움을 행하는 것이 새로움의 시작이요, 보다 나은 삶의 질을 가져온다는 뜻과 다르지 않다.

현대는 정보통신의 발달 등으로 산업화를 넘어 정보화된 시대로 하루하루가 급변한다. 사람들 모두 순간순간 숨 가쁠 정도로 바삐 살아가며 그 삶 속에서 자신을 추스르고 정리하기는커녕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데만 급급한 것이 현실이다. 이런 가운데 반성 없이 욕망만 키우는 생활 습관은 살기 위한 행동 하나하나가 자신에게 스트레스로 큰 짐이 되어 양쪽 어깨를 누르는 등 병이된다. 욕망과 욕구를 선순환적으로 해결하지 못한 스트레스는 결국 그것이 원인이 돼 우울과 불안을 일으킬 수 있음을 가슴에 새겨야 한다.

특히 정신력이 약한 사람이나 나이든 사람은 새로움에 대한 적응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두려움과 망설임이 복병으로 나타나게 된다. 이것은 도고마성(道高魔盛)과 같이 새로운 마음으로 새 출발 할 때 나타나는 장애물로 볼 수 있다. 이는 반드시 제거해야하는 요소이다.

불가에서는 이런 것의 치료처방으로 서로 원결을 맺지 않도록 하며, 믿고 신뢰하는 선연사회를 만들어 가야한다고 가르친다. 불전 <아함경>에도 "어떠한 원한도 원한을 갚음으로써는 해결되지 않는다. 오히려 모든 원한을 용서함으로써 해결된다. 이것은 영원한 진리이다."고 하였다.

한편 미국의 해부학자 레오나드 헤이플릭(Leonard Hayflick)이 인체를 구성하는 수조개의 각종세포들마다 다른 수명한계(인간의 세포는 약 70~100회 정도 분열한 뒤에는 더 이상 분열하지 못하고 스스로 사멸한다)가 있어 사라지고 새로 생성된다는 DNA메카니즘을 발견하였다. 이는 인체구성 기본 단위인 세포도 삶과 죽음을 한정된 범위 내에서 항상 새롭게 진행되고 있음을 말해 주는 것이다.

연말연시를 맞아 서정희가 부른 '작은 새의 꿈'이란 노랫말을 다 같이 음미해보면서 우리 모두 즐거운 마음으로 새로움을 경험할 새 출발을 하자!

"그래 세상은 너를 위해 존재한 거야. 네 꿈을 한번 자신 있게 펼쳐보지 않겠니?"

도각 스님
태고종총무원
종무조정실장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박혜월 인쇄인 : 최낙관
110-734 서울특별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대표전화(02)2004-8200 / 대표팩스(02)737-0697

편집국 02)2004-8234~55 FAX (02)737-0698
광고국 (02)2004-8213~7 FAX (02)737-0696
회사홈 현불닷컴 www.hyunbul.com
실시간 뉴스 붓다뉴스 www.buddhanews.com
불교포탈 부다피아 www.buddhapia.com
쇼핑몰 현불삼닷컴 www.hyunbulshop.com

현대불교 지사안내
대구지사 : (053)768-8008
광주전남지사 : (062)384-3009
충청지사 : (043)732-5560
전북지사 : (063)910-8977
경남남부지사 : (055)746-9778
영주지국 : (054)634-3429
부산지사 : (051)632-0064
강원지사 : (033)744-3618

구독신청 · 배달안내 (02)2004-8212 / 구독료 : 1개월 5천원 · 영구 62만5천원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다-3379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대한불교총화종

新年法語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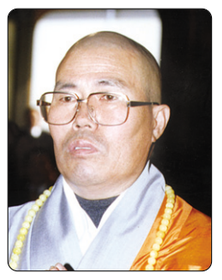


종정 이동광

丑迓迎寅 改赫新
勇猛精進 有達成
기축년을 보내고 희망과 광명에 찬 경인년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개혁으로서 범과 같이 용맹하고 정기있게 나아 가며는 반드시 모든 일이 이루어 질 것이다.

宗徒一同 團結和
宗團大業 必有成
종도 여러분들이 화목 단결하여 협조와 협력으로서 나아 가며는 종단의 큰일이 반드시 이루어 지리로다.

새해 인사말씀



총무원장 전남정

庚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를 뜻깊게 맞아 모든 불자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광명이 늘 함께하여 건강과 행복이 가득한 한해가 되시길 부처님 전에 합장 기원드립니다. 본래 無始無終이므로 새해나, 지난해나 다를 바 없으나 사바 중생들에게는 지난해의 잘못을 참회하고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한해를 설계한다는 차원에서는 필요한 일 일것입니다. 성철 큰스님 법어에 "자기를 바라봅시다. 자기는 원래 구원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본래 부처입니다. 자기는 항상 행복과 영광 넘쳐 있습니다. 극락과 천당은 꿈속의 잠꼬대입니다." 라는 法語가 있었습니다. 우주의 삼라만상이 모두 자기라고 했습니다. 우리 모두 금년은 자기를 보는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대한불교조계종
봉넝사 승가대학 금강율원
학장 율주 묘엄
대중일동
거사림회. 관음회. 승만회. 청년회
경기 수원시 팔달구 우만동 248번지
전화 031)256-4127
팩스 031)254-3371

대한불교조계종
갑 사
주지 태진
사부대중일동
충남 공주시 계룡면 중장리 52번지
TEL 041)857-8981~2
www.gapsa.org

대한국불교조계종
불 광 사
총무원장 성보 호산
종도일동
경인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성불하세요
총무원 : 경남 마산시 내서읍 호계리 54-1번지
전 화 055)232-7819
핸드폰 011-9540-8209

한국불교태고종 서울 남부 종무원
보 운 사
원장 법진
사부대중일동
종무원 : 서울시 관악구 신림7동 685-113번지
전 화 : 02)855-4792
핸드폰 : 016-256-6142

대한불교화엄조계종
종정예하 법정
부종정예하 성원
장로원장 득봉
총무원장 혜상
종회의장 도일
교육원장 법운
포교원장 금담
호법원장 청담
복지원장 덕산
비구니원장 해광
경북교구원장 혜광
경남교구원장 경공
대구교구원장 종범
총무부장 금오
사서실장 구산
총무원 : 경북 영주시 안정면 봉암리 산 428번지 봉황사
전 화 : 054) 632 -2799 핸드폰 : 011-228-7813

한국불교태고종
능 하 사
주지 성련
신도일동
■ 서울 마포구 공덕1동 105-95호(4층) TEL 02)701-7488

대한불교조계종
화엄도량 부석사
주지 근일
사부대중일동
■ 경북 영주시 부석면 북지리 148 TEL 054)633-3464

문화재 3호
부산 만덕사지
주지 검산 박혜명
신도일동
■ 부산시 북구 만덕1동 30번지 만덕사 TEL 051)334-3009

2009년 겨울
전남 나주 심향사
어린이 및 가족 템플스테이

佛紀 2554年 庚寅年 謹賀新年
새해새날 자비광명 온누리에

"靑蓮飛天 -초록연꽃 하늘날다"

기 간	모집인원	대 상
2009년 12월 29일(화) ~ 2010년 1월 1일(금)	20명	초등 3~6학년
2009년 12월 31일(목) ~ 2010년 1월 1일(금)	30명	일반 및 가족
2010년 1월 24일(일) ~ 2010년 1월 30일(토)	20명	초등 3~6학년
2010년 2월 6일(토) ~ 2010년 2월 7일(일)	20명	다문화 아동

■ 문의 061) 334-5420 / 팩스 061) 334-2887
■ 홈페이지 : http://www.simhyangsa.or.kr
■ 주소 : 전남 나주시 대호동 825 대한불교 조계종 심향사

선칠 용맹정진
(7일 용맹정진)

◆ 결재일 : 2010년 1월 24일(일요일) 오후 7시 결재
◆ 해재일 : 2010년 1월 31일 (일요일) 사시회향

대한불교조계종 묘실상선원
042)585-0778 / 010-6555-6696